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8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433 호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종무실 폐지 '뜨거운 쟁점'

문광부 직제개편, 종교계 "사회적 기능 축소" 우려

종교지도자협 "오히려 더 강화돼야"

정부 "종교업무 유지…문제될 것 없다"

문화관광부가 종무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화관광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기획관리실,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산업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 등으로 돼 있는 2실6국 체제에서 문화정책국과 예술국, 종무실을 통폐합해 문화정책실로 개편하는 2실4국 체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광부 모철민 종무관은 "2실4국 체제가 될 경우 문화정책실장이 종무를 총괄하게 되고, 종무관이 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며 "8월중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현고스님은 "종교정책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무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종교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종교간의 통합이나 사이비 종교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는 독립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월29일 '종무실 폐지 추진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종무실 폐지는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주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홍보실장 정웅모 신부는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등한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등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이하 종지협)도 7월29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종교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부처 조직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며, 오히려 종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문광부 행정인사담당관실 김대현 사무관은 "종무실이 폐지되더라도 종교행정과를 설치해 종교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존의 2개과가 1개과로 축소 · 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랄라라, 부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세상~"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영월 적멸보궁 법흥사와 백덕산에서 열린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찬불가인 '팡팡! 룸비니동산'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박재완 기자

안산시에 불교문화산업센터

조계종, 5천평 규모 건물 2동 내년 착공

조계종이 추진 중인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44억원을 들여 경기도 안산시 북동에 연건평 5천평 규모의 지하 3층 지상4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짓는다고 7월30일 밝혔다.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는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와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게 된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에는 △불교회화 · 조각 · 음악 · 서적 전시 및 판매소가 들어서는 전시시설 △불교음악 · 의식 공연을 위한 공연시설 △불교음악 및 회화 연구실 및 세미나실 등의 연구시설 △불교회화 · 음악 · 공예 · 의식 · 음식문화 · 참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휴게실, 관리실 등의 기타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정부에 국비 122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심의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종교와 세계화' 국제회의 300여명, 종교협력 모색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스 정교 등 여러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세계화 시대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초종교적 대안을 모색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파얍대학교에서 열린 '종교와 세계화' 국제회의는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슐락 시바락사(INEB 고문) 등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석자들을 비롯해 300여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간 연대와 협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화를 바라볼 수 있는 종교와 교육 △세계화와 종교와 언론 △세계화 시대에 종교 다양화와 초종교적 관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참여불교 세계대회 차기 대회는 2005년 10월 인도 부다가야에서 개최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추진" 파문

불교환경연대 "노대통령 공약 파기 선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공론조사'로 결론짓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7월 2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차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론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두 가지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해 오는 9월까지 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원택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문대골 목사(생명교회), 이정택 교무(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박영신 교수(연세대, 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29일 오전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산 관통도로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우회노선 결정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밭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김제 청운사
연 밭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기행 일시 및 인원

8월 9일, 16일, 23일
오전 7시~오후 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 여행자 보험금 포함)
※10명이상 단체참가시 10% 할인

참가 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25분까지 조계사 앞 집결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국적 포기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들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국적 포기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불자변호사인 최봉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8월 13일 청와대에 국적 포기서를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7월 31일 밝혔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국적 포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광복 48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전혀 못 받은 데 따른 것. 할머니들은 그 동안 일본 법원에 제기한 명예회복소송에서 번번이 패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급기야 법원을 통해 행정문서공개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서공개'를 명령했지만 외교통상부 등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강점시기 피해자인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이다 보니 명예회복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할머니들은 국적을 포기하는 초 강경수를 두어서라도 명예를 회복을 하고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할머니들이 오죽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려는지 정부는 코드를 읽어야 한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할 바에는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진정 국민 참여정부라면 한일협정서 내용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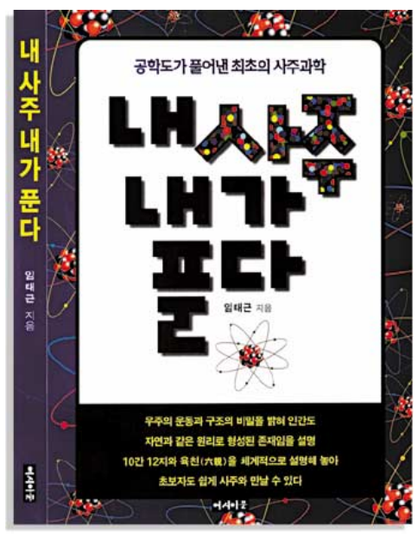
김원우(취재1부 차장)

서울大 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신간)

- 부시 美 대통령의 2004년 대선運은 과연?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 음양오행 이론은 천문학,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심리학, 건축학 등 현대의 모든 학문에 응용될 수 있다.
-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다.
- 이책은 10간 12지와 육친(六親)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아 초보자도 쉽게 사주와 만날 수 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사 설

동국대 건학 백주년 준비에 부쳐

8월 1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 5백대 명문대학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도쿄대가 19위, 교토대가 30위, 오사카대가 53위이다. 중화권에선 타이완대가 190위, 칭화대가 248위, 베이징대가 287위 등 6개 대학이 포함되었으며, 한국에선 서울대 163위, 연세대 300위, 포항공대 322위, 한양대 408위, 고려대 412위 등이 들어 갔다. 자료는 상하이 교통대학 고등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다.

동국대학이 건학 100주년 기념 D-1000일 행사를 8월 12일 학교 불상 앞에서 거행한다고 한다. 이 행사를 통해 백주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건학 백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동국대의 새로운 탄생, 역사 창조에 대한 한 마음의 참여'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 동국대학이 지향하는 비전과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학교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희망 찬 내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건학 백주년 기념 백만 등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일산 불교병원 개원을 비롯한 어려움이 차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으면 한다. 불교계 최고의 대학으로 근대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 상대적인 발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도 이 대학은 잠자고 있었다. 부처님처럼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

대선공약은 '관통'되어야 한다

공론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북한산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폐기되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공약일지라도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과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아직 없다.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면, 불교인들을 선거 때의 표로만 보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후의 양심으로서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종교인들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며,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불교지도자들이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은 당대는 물론 후손들이 향유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토록 하기 위한 현세대의 고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의 쟁점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의 효율성을 우선에 둘 것이냐의 것이다. 그런데 공론조사를 통해 노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의 진원지가 될 소지가 높다.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싸움을 붙이고 이긴 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동국대 건학 100주년… '제2창학' 정성 모은다

'D-1000, 백만燈 달기' 운동

최초의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동국대 전신)가 문을 연 것은 1906년 5월 8일이었다. 당시 학교설립의 주축을 담당했던 불교연구회가 각 도의 수(首)사찰에 보낸 통문을 보면, 추락한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불교 중흥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학교 설립을 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건학 100주년(2006년 5월 8일)을 맞아 '제2의 창학'을 내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가 100년 전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던 불교계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으고 도약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건학 100주년 D-1000. 100만등 달기' 운동의 선포식을 12일 오후 6시부터 명진관 앞 불상 주변에서 갖는다.

'D-1000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00인 1000배 100만등 달기' 운동 선포식 등으로 이어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000명 페넌트 테이프 커팅'이다. 건학 10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간다

학교발전기금 1천억원 모금 계획

생각바꾸기 '동국비전' 의견 수집도

는 의미를 담은 페넌트 테이프 커팅은, 학과 · 부속 기관 · 연구소 · 행정기관 등 290여개 기관의 대표 1000명이 각 학과(기관)의 이름이 들어간 페넌트를 자르는 행사. 테이프 커팅 후 페넌트는 해당 기관에서 2006년까지 보관함으로써 100주년 사업에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페넌트 테이프 커팅과 동시에 불상 주변에 설치된 1000개의 연등에 불이 밝혀져 여름 밤을 밝힐 예정이다. 1000개의 등은 개인이나 단체가 한 개씩 밝힌 100만 개의 연등을 통해 1천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은다는 야심 찬 계획의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다. D-1000일 이전 참여자는 12일 행사에 연등을 밝힐 수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 최창선 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신 분들의 뜻을 기릴 방법이 없었지만 100만등 달기에 동참해 발전기금을 내신 분들은 명패를 제작해 정각원이나 만불전에 보존함으로써 그 뜻을 기릴 생각"이라며 "100만등 달기 운동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100일마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100가지 바꾸기 운동' '동국 비전(Vision) 2006 이렇게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받는다. 서울과 경주 캠퍼스 도서관 앞에 설치된 엽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D-900 행사에서 의견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주지소임 맡기 더 어려워졌다

조계종 3급승가고시 입방전 · 산림후 두차례

조계종에서 주지 소임 맡기가 더 어려워졌다. 첫 관문인 3급 승가고시가 한결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7월 29일 고시위원회를 열어 제3차 3급 승가고시 시행 일자와 시험과목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승가고시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의 3급 승가고시를 입방 전 1차 고사와 산림 후 2차 고사, 두 차례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한 점이 크게 달려졌다. 이에 따라 10월 1~7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제3회 3급 승가고시산림 기간 중 1일 입방 전 1차 고사를, 산림 과정을 마친 후 6일 2차 고사를 치르게 된다.

1과목을 선택하면 됐던 시험 과목도 늘었다.

1차 고사는 소의경전인 <금강경>(전체 공통, 주관식)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하며, 2차 고사도 <육조단경>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등 15개 중 3개 과목(논술식)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전형근 차장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 이상 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주지 소임을 맡을 수 있고 상좌를 둘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자격도 생긴다. 또 종단 내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평불협대표 4~12일 방북

평양 법운암 단청불사 입재법회등 참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평불협) 대표단이 평양 법운암 단청불사 등을 위해 방북한다.

8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방북하는 평불협 대표단은 4박 5일 동안의 입재법회 공식일정 외에도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개성 영통사 불사 현장, 개성지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법운암 개금불사는 김성호 불교미술관장의 기술지원과 후원으로, 성불사 개금불사는 나기태 회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방북인원은 회장 법타스님 외 정인악 이사장,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 김성호 개금전문가, 김성룡 단청기술자 등 총 10명이다.

한편 평불협은 보다 나은 통일교육 환경과 돈독한 불심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법당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 성북동에 건립될 통일법당에는 통일기원 약사여래본존불과 삼천 약왕보살을 봉안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1674 (예금주: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31호 26면 '차맥지킴이' 기사 가운데 국내 20개 지부를 201개로 고칩니다. 432호 2면 사설 중 광주실명나눔실천본부를 생명나눔실천본부로, 4면 육조사 주지 현응스님을 현응스님으로, 8면 하리샤 리아게를 하리샤 리아나게로 고칩니다.

원혜스님 징계요청 결의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

조계종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7월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특위조사를 거부해온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조사특위는 또 다음 중앙종회에 봉은사 조사결과를 보고한 뒤 특위를 해산키로 했다.

봉은사 조사특위는 지난 8개월여 동안 봉은사 감사를 벌였으나 봉은사의 감사 비협조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 7월초 조사 특위 소위원회에서 총무원 집행부의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몽산스님 새주지 선임

대흥사 산중총회 열어



조계종 22교구 본사 대흥사는 7월30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몽산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몽산스님은 1951년 생으로, 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2년 화엄사에서 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1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9년 화엄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98년 대흥사 부주지, 99년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2003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수련대회

인 사 말 씀

종단의 위상제고와 대승종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 2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애종지념(愛宗之念)으로 종단 발전에 물심양면 기여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대자비의 원력을 내시어 수희동참으로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7년 8월 24일 ~ 8 월 26일(2박 3일)
- **입소식** : 불기 2547년 8월 24일 오후 3시
  (단 입소자는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세면도구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교통편** : 1. 중부고속도로 → 증평 IC → 529번 도로 → 부흥 4거리 → 32번 도로 → 화양동국립공원 → 송면리 → 다보수련원
  2. 경부고속도로 → 청원 IC → 청주시 외곽도로 → 공군사관학교 → 미원 → 32번 도로 → 화양동국립공원 → 송면리 → 다보수련원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031)448-8811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중앙종의회 · 각 지방종무원 ·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철 혜심 합장

◆공론조사란?

청와대는 7월 29일 공론조사에 대해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주장 등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참여자간 토론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 또는 무작위로 참여자를 선정한 후 공론의 장(場)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전문가 패널 등과의 토론을 거친 뒤 2차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TV 토론 등을 이용해 이해관계자와 불교계, 환경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시민들을 뽑아 관련 정보를 제공, 토론을 벌인 뒤 여론조사를 하고, 다시 토론을 거쳐 2차로 공론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다.

'공론조사' 방법 내세워 북한산 도로 관철 의도

불교계·시민단체, '갈등조장' 수용 못해

◆불교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론조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회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되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0일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계의 이런 정서를 전달하며 '공론조사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범어사, 해인사, 쌍계사, 통도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대표단도 30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불교계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31일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고 "공론조사는 정부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교계 "약속 불이행땐 교단 저항 직면할 것"

시민단체 "정부 스스로 권한 포기 무책임한 처사"

불교계에 전달한 공약집을 통해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이 공약을 불교지도자들 앞에서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6월 초 활동을 마감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환경철학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조사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를 고려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대응팀 구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북한산 문제도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공론조사로 갈 경우 시공사측의 사전작업등으로 인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며 "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대응책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7월

문광부 종무실 왜 폐지하려 하나?

문광부가 종무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조직 혁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광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체 조직 개편안도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무실 폐지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각 종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종무실이 설치되고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굳이 별도의 독립부서로 둘 필요가 없다고 문광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무실은 종교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종무실 조직은 종무실장을 중심으로 종무관, 종무1과 종무2과로 구성돼 있다. 종무실장과 종무관은 종무1, 2과를 총괄하며, 종무1과는 불교, 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업무와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 보존 관리를, 종무2과는 개신교, 가톨릭 관련 업무와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문화정책실장이 문화, 예술 업무외에 종무까지 함께 맡게 되며, 종무1, 2과에 배치된 17명의 현재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자연히 현재보다 종무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

지방 분권화 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문화정책실장이 겸하면 종무기능 축소"

"종교도 자생력·독자성 갖춰야" 자성도

게다가 종무실장 직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문광부 안대로 종무실장이 종무 외에 문화와 예술 분야를 통합해 관리할 경우 현재만큼 종무에 업무력을 집중시키기는 어렵다고 종교계는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신적·도덕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 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정신적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기구 축소가 기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통사찰 보존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필요한 업무는 개편되는 조직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장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편작업에는 예술, 문화, 체육 등 전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종무실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종교가 각종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종무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 역기능을 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각 종교도 자생력과 독자성을 갖고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부 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나 종무실 폐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문광부와 정부혁신위원회 간의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했다가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무실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종무실은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개편대상에 올랐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부고속철 대안노선찾기 실패

7월 28일 마지막 기회 … 두달간 활동 마감

전문위원 선정 진통·시한 쫓겨 합의 못봐

의견서 제출 … 총리실 최종결정만 남아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기존 경부고속철도 부산 노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출범한 '대안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순택·이하 노선재검토위)'가 7월 2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결국 대안노선에 대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노선재검토위는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시민종교대책위측 9명과 사업시행자측 10명,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 11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노선을 지지하는 식의 지적은 하지 않고 개인별 의견을 낸 차원이라고 노선재검토위는 밝혔다.

당초 노선재검토위는 기존 노선과 대안노선 가운데 부산노선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전문위원 선정, 활동 기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데다 활동시한의 제약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선재검토위는 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서에서 "천성산과 금정산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기존노선의 터널공사로 금정산 지하수 유출 및 정족산 무제치늪 훼손 우려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문제발생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또 "2개의 대안노선은 민원발생 소지나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해 공사착수에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양산천~양산신도시~경부선~부산역' 노선과 '경부고속도로~양산시 동면~금정산 만덕터널~부산역' 노선을 대안으로 좁히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해왔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말부터 계속된 경부고속철도 부산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총리실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총리실이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안노선을 찾기 위해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하긴 했으나 두 달의 짧은 기간으로 현장조차 가보지 못한 채 조사를 완료한 노선재검토위 활동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대안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양산천 관통 대안노선에 대한 양산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한 노선재검토위 작업이 천성산 구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지율스님을 비롯한 천성산보존대책위가 배제된 채 진행돼 노선재검토위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노선재검토위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38일간의 단식으로 환경운동의 인식전환을 가져 온 지율스님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율스님은 기존 노선이 강행될 경우, 단식에 이어 또 다시 거리에 나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했던 시민종교대책위 도관스님 또한 "짧은 조사기간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기존 노선에 대한 정확한 환경평가, 지질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를 북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론(公論)조사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위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당초 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한국재가불자 헌장 선언문

새천년(2003년)을 맞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사고와 관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무상 무등등의 진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거나 유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구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왠지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불교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적 요소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700년 역사를 이어온 저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유력한 종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뛰어난 포교사가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 천년을 잠들어왔던 거사불교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국불교가 민족의, 인류의 희망이자 등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에게, 종단에게, 몇몇 이름 난 지도자들에게만 이 급박한 현실을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의존이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가불자들이 그 동안 수동적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불교의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재가불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가불자가 변할 때 한국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불교중흥이나 불국정토건설은 재가불자들이 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룩한 승가의 재가불자들이 당당히 설 때 불교의 밝은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몇몇 뜻있는 재가불자들은 오늘 그 시급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해내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모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유마의 모임을 발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거론치 않더라도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면서, 떨쳐 일어남은 소중한 변화를 향한 '소리는 작지만 울림은 큰 거사'라고 자부합니다. 변화는 구호나 거창한 조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108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염불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며, 경전을 공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는 원력과 실천이 있을 때 한국불교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작은 울림이 끝내 한국불교를 바꿔내고, 마침내 세계일화를 이뤄내는 거대한 법륜의 포효로 확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재가의 깃발 높이 세우고 새 불교, 새 세상을 향한 법륜 굴리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장엄한 대열에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동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불국정토 그날까지 구르라,
재가의 법륜이여! 재가의 깃발이여! 펄럭이라

불기 2547년 7월 22일

붓다클럽 108발기인 일동

재가불자헌장실천을 위한 108발기인 윤청광(고승열전작가), 공종원(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선교(UBF 한국본부장), 김홍국(해병 불자가수 회장), 남강수(불자가수 회장), 김형중(교법사 단장), 이진호(연합포교사 단장), 이상우(동산불교대 총 학생회장), 김태복(장군), 김정순(여성불교통일 회장), 김태제(경기불교회관 이사장), 김대원(산악인 연합회사무총장), 신근식(전 삼보법회회장), 김재일(동산반야회장)외 94인

buddha 붓다클럽 Tel. 02) 732-1215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붓다클럽 이렇게 추진합니다

재가불자헌장 5대 실천덕목

- 나는 매일 부처님전 108배로 새로운 삶을 실천한다.

우리들의 하루는 인사하고 절하는 것으로 그날 아침을 연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당연한 신행의 모습이다. 절하는 그 모습에 하심(下心)이 있고, 반성과 참회가 있으며, 업장소멸이 이루어진다. 또한 매일 108배를 실천하면 하는 자에게 건강이 따라온다. 불국정토를 실현하는데 건강해야 할 수 있다. 그리하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매일 염불(참선) 천 번을 칭명한다.

불교인의 여러 수행방법 중에 염불(나무아미타불)이 가장 으뜸이다. 왜냐하면 염불은 아이들이나 여러 어른들이나 지식층이든 보통사람이든 누구든 가정, 직장 어느 곳이든 할 수 있기에 대중성이 강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참선을 즐겨하는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

- 나는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이웃에게 전한다.

한국불교는 지금도 경전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며, 불자들 역시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하거나 재앙을 없애달라는 일방적인 요구 신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알고 수행하면 무명(無明)이 없어지고 만복이 찾아오고 갖가지 재난이 사라짐을 확신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이웃에게 전법하는 포교사가 되자. (전회원에게 붓다클럽성전 보급)

- 나는 매일 정기적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한다.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웃과 사회에 실현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위하여 준법정신준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장소 청결을 위한 쓰레기제거활동 등을 전개한다.

- 나는 매일 일정액(월 1만원)을 보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우리는 정기적인 헌금, 보시정신이 빈약하다. 많은 불자는 복을 구하는 데는 쉽게 시주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구제하는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습관화 되지 못했다. 붓다클럽 회원이 월 1만원을 보시하여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불자가 되자. 사회와 불교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 특히 사회가 불교를 필요하게끔 만들자.

1. 일 정 · 2003. 7. 23 ~ 10. 26 시·도별지역 조직 및 모집 / · 2003. 10. 27 붓다클럽 다짐대회
2. 조 직 · 붓다클럽은 전국조직으로 구성한다 / · 붓다클럽은 시·도지역 행정조직으로한다.
3. 회 원 · 재가불자 누구나 가입가능. 전화 02)732-1215
4. 운 영 · 붓다클럽의 모든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관은 다짐대회까지 완료한다.

경주 석굴암 원주 대성 스님 수행공간서 좌정한 채 열반



장좌불와 · 간경정진 … 육신안락 멀리
92세 노구불구 예불전 찬물로 목욕재계

경주 석굴암(주지 종상)에서 30여 년 동안 원주소임을 맡았던 한 노스님의 좌탈(坐脫)이 교계에 잔잔한 감동을 던지고 있다.

대성(大聲)스님은 7월 26일, 세수 92세로 자그마한 수행공간에서 좌정한 채로 열반에 들었다.(사진) 스님은 72년부터 석굴암에 주석하면서 열반에 드는 날까지 노구를 이끌고 원주소임을 놓지 않은 채 수행정진했다.

석굴암 기획실장 성제스님은 "후학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섬세히 보살폈다"며 "스님은 그렇게 이곳에 오셨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말했다.

특히 대성스님은 평소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정진을 통해 젊은 스님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고 한다. 일평생 대중들에게 일체의 법문을 하지 않았다는 스님이 오직 자신의 수행을 통해 후학스님들에게 무언의 법문을 전해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더구나 노구를 이끌고 장좌불와를 하면서 일체의 편안함도 멀리했다고 한다.

"좀 편히 앉아서 수행하시라고 두툼한 방석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어느 틈엔가 밖에 내놓아 버릴 정도였습니다"

석굴암 공양주 이무염화 보살(63)은 "평소에는 석굴암 부처님 그것과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닌 스님이었지만 사중 살림에 대해선 호랑이 같았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바로 얼마 전까지도 9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새벽예불은 물론, 사시예불, 저녁예불까지 참석했다. 더구나 새벽예불에 들기 전에는 추운 겨울날에도 항상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좌정했다.

그러나 사중 어느 누구도 스님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스님은 30여년을 석굴암에서 주석했지만 원주소임에 관련된 일 외에는 찾아오는 불자들을 만나거나 외출을 하지도 않고 오직 스님의 방사에서 좌정하며 경전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오죽하면 스님의 법명이 실제는 창호(昌湖)였으며 속명이 김대성이었다는 것을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석굴암 김대용 사무국장은 "석굴암의 창건주가 같은 이름의 김대성 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은 아마도 석굴암과 큰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님의 영결식은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주지 종상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선원, 강원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8일 석굴암 법당에서 엄숙하면서도 조용히 치뤄졌다. 스님의 49재는 8월 1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열리며, 9월 12일 막재가 봉행된다. (054)746-9933

경주= 박원구 기자

일주문

조선 도공 천도 추모재



현봉 순천 송광사 주지는 9일 사자루에서 조선 도공(陶工)을 위한 천도 추모재를 봉행한다. (061)755-0107

우리는 선우 여름캠프



박광서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8~11일 강화도 일대에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02)2278-8672

엄마랑 빵만들기 행사



상덕 옥수복지관장은 6일과 13일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빵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엄마랑 빵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에



윤청하 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은 7월 29일 열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진흥원 8월 다보법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장은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이봉춘 교수(동국대)를 초청 8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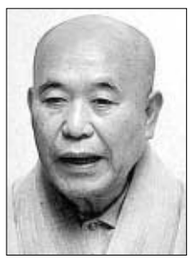
사찰환경답사 실시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은 9~10일 회원들과 함께 보성 대원사와 순천 선암사 등을 순례하는 사찰환경답사를 실시한다.

양국 불교교류 징검다리 역할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총재 지성 스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교류가 지역불교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많고,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과 몽골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30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한몽 불교교류협의회 발기인 대회에서 총재로 추대된 지성스님(대구 동화사 주지 · 사진)은 "불교교류협의회가 한국과 몽골의 불교문화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성스님은 "과거와는 달리 종교간 문화간의 갈등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한몽불교교류위원회가 한국불교계의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또 "우리보다 앞서 몽골에 진출해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하면 불교계의 해외진출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우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여하는 몽골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한몽불교교류 사업의 첫 단추를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창립총회는 13일 오후 4시 팔공산 동화사에서 몽골 최대사찰 간단사 주지 처이참즈(CHOJAMTS)스님 및 지역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구=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불교이념 복지 · 청소년 교화에 접목

불국토 설립 9돌 대표이사 정관 스님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참여를 고민하면서 불국토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의 그 고민에 충실하면서 불교이념을 복지와 청소년교화사업에 접목시키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설립 9주년을 맞은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스님(영주암 회주 · 사진)은 불국토 설립 초창기의 첫 마음을 강조했다. 불국토는 94년 설립 이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법인 '불국토'로 성장하면서 부산 복지와 청소년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정관스님은 "보살사상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정진해 온 법인 식구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불자들 덕분"이라고 불국토 성장의 공덕을 대중들에게 회향했다.

불국토의 향후 주력사업은 노인복지사업으로 2004년에는 부산 불교계 최초로 양로원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불국토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곧 포교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전제한 정관스님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불국토의 서원이 곧 부처님법의 실천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판매수익 노숙자 구호단체 지원

불교소품제작 동판공예가 이용생 씨



"불자들에게 동판공예를 무료로 지도하고, 동판 오방불의 판매 수익금을 노숙자 돕기 기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서예나 불교관련 소품을 동판으로 제작해 온 동판공예가 이용생(60 · 사진) 씨가 최근 '국태민안 오방불'(세로 240cm, 가로 130cm)을 처음으로 제작,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노숙자구호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몇 달 전 꿈바위불교교육원 회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자들에게 빵과 우유, 계란 등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부터 노숙자 돕기에 뜻을 세운 이 씨는 이왕이면 불교작품을 만들어 보시의 참뜻을 널리 전하기로 했다. 커다란 동판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등 다섯 방위의 부처님을 모신 '국태민안 오방불'은 독특한 미감을 자랑하는 동판 조형물이다.

꿈바위불교교육원 부산포교당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판공예 무료강좌'도 열 계획인 이 씨는, 반응이 좋을 경우 서울에서도 무료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051)552-167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국염불만일회 제6차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김재일)는 7월 27~29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에서 제6차 성지대회를 개최했다. 법타스님, 김재일 대표, 이진호 연합포교사단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성지대회는 호마천도의식, 촛불점등의식, 육염불(六念佛) 등으로 진행됐다.



동대부고 인천시장배 축구 우승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 축구부는 7월 27일 열린 제3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초중고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부는 참선 등 불교 수행법을 통해 인내심과 극기력을 길러왔다. 한편 축구부 제 11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3 불교평화포럼

한반도 위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귀의삼보하옵고,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지혜로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03 불교평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불교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고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에 맞는 평화활동의 방향을 정립해보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가하시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8월 9일 15:30 입재식
16:00 불교평화포럼 1부 "한반도 위기를 진단한다"
[기조발제] 한반도의 운명-북미관계의 실상에서 / 박명림 박사
한반도 문제과 동북 아시아의 관계 / 서승 박사
한반도 위기와 안보(경제비용 측면에서)/ 박형중 박사
[지정토론] 조성렬 박사, 남문희 기자, 홍익표 박사
18:00 저녁 공양
19:30 불교평화포럼 2부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
[기조발제] 불교사상적 접근: 심재룡 박사
시민사회의 대응: 손혁재 박사
통일운동의 활로: 장용철(통일운동가)
[열린토론] 참가자 전원

8월 10일 03:00 아침 예불
07:00 아침 공양
08:00 도량 탐방
10:00 불교평화선언 및 회향식

주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포럼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시: 불기2547(2003)년 8월 9일(土) 오후 3시 ~ 8월 10일(日) 오전 12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설법전
문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 ☎ 02-725-4277, FAX 02-744-4287

행사 당일(8월 9일) 주최측이 마련한 버스가 조계사 앞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8일 개원 예정인 '만해마을' 전경. 이곳에서 '2003 만해축전'이 열린다.

백담사 '만해마을' 8일 오픈

문학박물관 등 7개 공간 갖춰…반야심경 정신 담아

첫행사 '2003 만해축전' 11일까지

심포지엄 · 백일장 · 서예대전 등 행사

백담사에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민족혼을 계승하기 위한 '만해마을'이 8일 문을 연다.

건축가 김개천 씨가 설계한 '만해마을'은 2,075평의 대지위에 만해문학박물관(지상 3층), 만해사(지상 2층), 문인의 집(지하 1층, 지상 4층), 만해학교(지상 2층), 심우장(지상 2층), '님의 침묵' 만해광장(272.3평), 경절문(徑截門) 등 7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만해문학박물관은 내부 설계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무극의 공간을 연상시켜 마치 만해 스님의 '알수 없어요'란 시를 건축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원보전'의 법당이 있는 만해사도 대칭형태로 된 검은 사각형 모양의 벽이 일획으로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공(空)과 색(色)은 물론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반야심경>의 색합공(色合空)의 정신을 건축화 했다. 또 문인의 집과 만해학교는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연수시설로 꾸며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2003 만해축전'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축전에서 '만해학 심포지엄'은 9~10일 정치사회와 불교로 나뉘어 두 차례 열린다. '만해의 정치 · 사회 사상' 심포지엄은 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장시기 동국대 교수, 전보삼 신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또 '조선불교유신론의 21세기적 의미' 심포지엄은 정광호 인하대 명예교수, 서재영 의상만해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식 부천대 교수, 허도학 경남일보 논설위원, 고명수 동원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제7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대중 前 대통령(평화부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학술부문), 소설가 조정래 씨(문학부문), 무용가 이애주 서울대 교수(예술부문)가 각각 수상한다. 문의:(033)635-286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경영·정보교육센터 22일 개원

불교아카데미, 단체, NGO 교육장으로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교계 최초로 경영 · 정보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7번지 매트로빌딩 3층에 마련되는 경영 · 정보센터는 불교적 가치를 사회 속에서 펼쳐갈 인재 양성의 산실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갈 비영리단체들의 전문 배움터로, 모든 불교단체와 사찰, NGO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30여평 규모의 경영 · 정보센터는 빔프로젝터 등 미디어활용 기자재와 최신 노트북 및 무선LAN 등이 설치돼, 공개강좌 및 세미나, 각종 회의 및 명상모임 진행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스님들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등 실용/실무능력과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과정 등 경영/리더십, 직장인을 위한 일터 생활명상 등 문화/교양, 비영리단체 회원 및 조직관리 등 NGO 지원교육 공개강좌가 열린다. 개원식은 8월 22일 오후5시. 문의: (02)741-1066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31일자로 같은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남동우 기자

재소자 조상영가 위로

원각사, 천도재 봉행

양평 원각사(주지 법웅)가 재소자 및 여주교도소 불심회(교도소 임직원 불자회) 조상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7일 오후 1시 여주교도소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천도재에는 혜산스님(한국전통의식대학장),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 등이 참석, 천도재를 통해 150여명의 조상 영혼을 천도하게 된다. 또 이날 재소자 및 교도대 2천여명분의 떡과 과일 등 위문품 전달식도 이뤄진다.

법웅스님은 "교도소에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수험생 학부모위해

봉은사, 명사 강연회

강남 봉은사는 수능 D-100일을 앞두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법왕루에서 대입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사찰과 교회에서 열린 대학합격 기도회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도들에게 입시에 대한 기본소양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수험생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사초청 강연회는 전통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의 '수험생을 위한 건강음식',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실장의 '수능 D-100일 학습 및 입시전략', 서울대 종교학과 윤이흠 교수의 '기도와 정진-마음을 밝히는 법'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내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 주제

22일 조계사서 '화엄광장'

한반도에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제9차 화엄광장이 열린다.

22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화엄광장은 박성준 교수(성공회대, 평화학)가 발제를 맡고 이향천 한생명운영위원장 외 1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광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내 · 국제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평화를 위해선 고통과 연민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을 고민한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 목 저녁 7시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2층에서 제13기 불교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의:(02)737-6181 남동우 기자

클래식·재즈·불경의 만남

가람아트홀서 이색무대

독경 소리와 재즈 섹스폰 연주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가 7월29일 가람아트홀에서 열렸다.

'클래식과 재즈와 불경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재즈 색스폰 연주자 최광철 씨와 부산불교교육대학 장의봉사 정토팀(팀장 수덕 이종규)의 천수경, 반야심경 집전의식이 만난 것이다. 불경과 재즈 섹스폰의 협연으로 목탁, 염불소리, 색스폰 소리의 어울림으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공연은 부산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 최광철 씨가 부산에서 갖는 첫 공연으로 최 씨는 이정식 씨와 함께 우리나라 색소폰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재즈 연주가. 국악과 재즈의 만남, 종교와 재즈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온 주인공이다.

이날 천수경, 반야심경 협연 외에도 베토벤 '비창 소나타'의 멜로디를 기본으로 자유로운 변주와 애드립을 섞어 재즈화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는가 하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소프라노 신용희 씨가 부를 때 그 노래의 느낌을 역시 즉흥성이 살아있는 재즈 연주로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농업살리기연대서 캠페인

우리 쌀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생명 터전을 물려줄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범국민운동'이 펼쳐진다.

우리농업살리기연대(공동대표 도법)는 WTO 협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진될 쌀 추가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이정호 사무처장은 "쌀 한말을 생산하기 위한 땅은 약 7평"이라며 "무농약쌀 한말로 땅 7평을 살릴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쌀을 구입하는 비용에 1만원을 보탠다면 쓰러져 가는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 생존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2)529-6347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내안의 폭력 뿌리뽑기



남동우 (취재1부 기자)

현재 전북 부안은 전쟁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핵폐기장 백지화 ·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7월 26일 집회과정에서 경찰측이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는 등 강경 진압을 일삼았다"고 한다. 특히 "삼보일배 성직자 문규현 신부(부안성당 주임신부)는 경찰의 집단구타로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직자에 대한 폭력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해 2월 18일 의정부 송추 북한산관통도로 건설현장에서 LG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회룡사 성타, 성환, 법현 스님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다.

이 두가지 사안의 공통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과의 대립과 갈등에서 폭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신 교수(연세대)는 7월 29일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기자회견 뒤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내 안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제안했다.

교계에서도 총무원 호법부의 폭력(본지 432호 참조)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유형무형의 폭력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아직 자기 참회가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새만금 삼보일배를 기억하고 있다. '내 안의 폭력 뿌리뽑기'도 불교계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른 종교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길 서원해본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백중기도 및 회향안내
우리절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불교의 천도명절인 우란분절 백중기도기간을 맞아 불자님들의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위하여 칠칠재를 봉행하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가 봉행됩니다.

제 2차 천삼십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삼십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종단산하 신행단체들의 여름나기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7월 27~30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열린 진각종의 청소년 연합캠프.

종단 신행단체 여름나기 한창

각종캠프 수련회로 신심·애종심 키워

종단 산하 신행단체들이 수련회와 여름캠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과 애종심을 키워주고 있다.

천태종은 7월 24~26일 진행한 중·고등학생회 수련회를 비롯해 7월 18~20일 전국 합창단 수련회, 7월 25~27일 금강불교대학 총동문 수련회, 7월 4~6일 금강불교대 학생회 수련회, 7월 11~13일 전국청년회 수련회를 열었으며, 8월중에도 어린이 본산 참배(16~17일)와 종립유치원 교사 수련회(6~8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천태종은 성지 참배 등을 통해 불교와 종단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각종도 7월 27~30일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서울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참가한 '어깨동무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7월 22~24일 진행했으며, 어린이 자성학교 여름캠프를 7월 23~25일과 7월 30~8월 1일 두차례 열었다. 7월 28~30일에는 종립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총지종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안동 일대에서 도예체험, 풍산 전통한지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여름 학생 수련회를 개최했다. 진각종과 총지종은 참가자들에게 밀교와 전통, 자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종단 종무인력 '가뭄'

천태종 한 스님이 사찰 2곳 주지 맡아
태고종 재교육 체계 미흡해 운용 제한적
진각종 심인당 주교 130여명에 불과

불교 종단들의 포교, 종무, 교육 등 각 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주요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은 물론 총지종 등 종단 내부에서 "인재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무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다. 실제로 천태종과 진각종은 승려 및 정사 1인당 2개 이상의 보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천태종은 전국 250여 사찰을 460여명의 스님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 소임을 맡지 못하는 비구니의 수가 250여명에 달해, 한 스님이 2곳 이상 사찰의 주지를 맡는 경우가 많다. 총무원 부장급 이상 스님 가운데 총무부장을 제외하고 사찰 주지를 맡지 않은 스님이 없을 정도다. 심한 경우 4개 소임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진각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스승은 250여명으로, 이 가운데 심인당 주교직을 맡을 수 없는 전수 220여명을 제외하면 종단 소속 130여 심인당에 주교로 부임할 수 있는 스승은 130여명에 불과하다. 각 심인당에서 교화할 수 있는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30여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총지종도 스승 부족으로 주교를 임명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천태종과 진각종 등의 인력난은 까다로운 선발기준과 양성과정에 원인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인사에서 3년의 행자생활을 거쳐야 비로소 십선계를 받을 수 있는 천태종의 스님들은 이 기간동안 구인사 강원과 금강불교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구인사 농장에서의 수행 등 주야로 고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천태종의 한해 배출 승려는 1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각종은 자라온 가정환경 등도 평가가 이뤄질 정도로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행자과정인 처무 생활 2년과 진각대학 4년, 예비스승인 시무 5년 등 최소 11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사 행계(법계)를 받는다.

조계종과 더불어 불교 양대 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은 7천여명에 달하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태종 관계자는 "조계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단이 제한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종단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 확보와 꾸준한 재교육,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서울분원 대각정사 개원·점안

대각종은 7월 2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서울분원 '대각정사(주지 해각)'를 개원하고 삼존불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만청스님을 비롯해 종단 원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주지 해각스님은 "대각정사를 서울지역에 불교와 종단을 널리 홍포하는 포교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각정사는 10일 불교교양대학인 대각불교대학을 개원할 예정이다. (02)2699-6384



부석사서 하반기 종도 수련회

삼론종(총무원장 혜승)은 7월 24~25일 강원도 평창 부석사에서 제12차 하반기 종도 수련회를 개최했다. 불교의식, 종단사 등에 대한 강의와 종단발전을 위한 토론, 교육원장 진봉스님의 '화합 승단과 포교'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종정 석봉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혜승스님, 중앙종회의장 혜광스님, 사정원장 추봉스님 등 종단 원로와 간부, 종단 소속 승려 60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미아찾아주기 각 산하사찰로 확대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아찾아주기를 전 종단 사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이달부터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인천 황룡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울산 정광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종단 사찰에 '미아찾아주기운동 지역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아찾아주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천태종복지재단은 그동안 천태종보와 월간 금강 등 종단 홍보매체와 종단 사찰 사보,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2명의 미아를 부모 품에 안겨줬다. 그러나 복지재단 중앙사무국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종단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태종복지재단은 종단 소속 지역 중심사찰로 범위를 확대, 사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국제 방송인 산사체험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은 9일 용인 총본산 와우정사에서 국제방송인연수회(IBW)에 참가한 18개국 언론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국제언론인들은 와우정사에서 경내 관람, 한국불교사 강좌, 참선 실수, 전통불교의식 등을 체험한다. 해곡 총무원장은 "21세기는 문화콘텐츠시대이기 때문에 불교문화는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대상 전산교육 실시

조계종은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승려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열리며, 기초반에서는 컴퓨터 기본 사용법과 운영체제, 문서편집, 인터넷 활용 등을, 중급반은 중급 문서편집과 인터넷 활용 등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강원종무원사 기공식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운)은 7월 16일 춘천시 동면 감정리 종무원사(宗務院舍) 부지에서 종무원사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10월말 완공 예정인 강원교구 종무원사는 1,300여평의 부지에 50여평 규모로 건립되며, 향후 승려 노후시설과 일반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게시판

행사 ▲능인선원은 제3회 하계 특별 수련회를 서울 국녕사에서 개최한다. 가족수련회는 8~10일, 명상캠프는 15~17일 진행. 프로그램은 참선, 진언명상, 임사체험, 산행, 선체조, 삼보일배 등. 참가비 5만원. (02)577-5800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는 하자센터와 공동으로 6일에서 8일까지 우이동 원불교수련원에서 '10대의 평화캠프'를 연다. 캠프는 인권, 여성, 전쟁, 환경 등에 대한 워크숍과 대동놀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3만원. (02)2677-9200

▲전북불교대학은 여름방학 맞이 교계 스님 및 석학 초청 공개특강을 9일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이 '불교와 현대문명사회'를 주제로 강연한다. (063)226-7878

모집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 아동·청소년을 학습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일시는 매주 수요일 2시간씩. 활동은 직접 가정 방문. (02)385-1351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2·23일 오후4시에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무료 영화상영회를 연다. 상영작은 '선생 김봉두', '보리울의 여름'. (051)868-0750

▲불광사 불광교육원은 일반인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불교예절, 불교사상사 등. 기간은 20일~9월 5일. (02)414-4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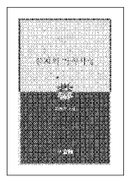
▲목동청소년수련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지역 사회 유해환경을 조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02)2646-6815

구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연구 분야에 종사할 사회복지 연구원을 구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자. 준비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연구계획서(필) 각 1통. 접수방법은 인편, 우편, 전자우편 모두 가능. 마감은 15일. 홈페이지 http://www.swcs.or.kr. (02)739-9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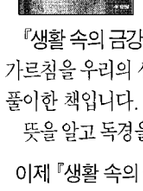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꽃마을은 생활지도원을 구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는 인편, 우편, 전자우편. 마감은 충원시까지. E-mail k900900@empal.com. (031)671-367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지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에 기초하여
· 가족이 되어 만나는 인연,
· 가족을 위한 세가지 기도법과 참회법,
· 걱정 대신 축원을 하는 생활,
· 구체적인 향상의 자녀교육법,
· 부부사랑을 키우는 비결,
· 불교 특유의 효 사상과 효도방법
등을 감동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4×6판 / 176쪽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쪽 / 값 6,000원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 경전!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① 금강경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② 부모은중경
독송의 방법과 축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권 100쪽 / 국반판 /값1,0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당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 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꾸러기 동자님들 의젓해졌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덕산 관음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초등학생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형극, 찬불동요배우기, 공포체험, 적멸보궁 참배,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신나는 현장

7월 29일 오전 9시 조계사 앞. 관광버스를 타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다녀와"라며 작별인사를 한다. 아이는 엄마에게 "예"하고 외치며 버스에 오른다. 엄마는 걱정이 되는 듯 버스 밖에서 서성거리며 아이를 쳐다보지만, 아이는 배웅 나온 엄마가 안중에도 없다. 캠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며 재미있는 놀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이다.



◇"부다피아 캠프 너무 재미있어요" 관음사 대웅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어린이들.

친구 사귀느라 엄마 배웅은 뒷전

버스로 약 4시간쯤 달려 영월 백덕산 관음사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토끼, 코끼리 등 4개반으로 갈라져 방 배정을 받았고, 짐을 푼 아이들은 각자 싸온 점심을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 잠시후 선생님이 나누어준 푸른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은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마치 몇해 사귄 친구처럼.

입제식을 위해 대웅전으로 향하는 아이들. 천불이 모셔진 관음사 대웅전에 들어서자 마자 질문을 쏟아낸다.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법당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은 저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단의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각 반 담임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입제식에서 아이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당예절을 배웠다. 아이들은 어느새 장난끼 가득한 꾸러기에서 의젓한 선재동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어 진행된 안양 한마음선원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인형극시간. 아이들은 현응스님으로부터 마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법문을 들은 뒤, '자성본래불'이라는 인형극을 감상했다. 아이들은 주인공 봉이의 대사에 깔깔대고 웃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 이후 아이들은 불교레크레이션협회 윤미경, 김희진, 유봉재 선생님으로부터 찬불가와 율동을 배웠다.

찬불가, 율동에 절집 들썩들썩



◇선생님 쳐다보랴, 찬불가 가사보랴, 바쁘다 바빠.



아이들은 목이 터지라 찬불가를 따라 불렀고, 선생님들의 율동을 보며 따라하기 바쁘다. 각반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불가와 율동을 따라 한다.

해는 서서히 백덕산을 넘어가고 어느덧 칠흑같은 어둠이 주변을 뒤덮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공포체험시간은 각 조별로 두 개의 후레쉬를 가지고 사찰 인근에 4개 지점을 통과해 다시 사찰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은 바로 2번 지점. 산속을 올라가야만 하고 귀신이 나오는 공동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2번 지점에서 저학년 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휴지 귀신을 보고 놀래 고학년 언니오빠들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3번지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들었다.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찾아보고 별을 보며 각자 한가지씩 소원을 빌기도 했다.





물놀이에 마냥 즐거운 천진동자들

다음날 오전 10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법흥사를 참배한 아이들. 법당에 왜 부처님이 안계시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 선생님으로부터 법흥사 유래와 적멸보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법당 안을 기웃기웃 거리며 적멸보궁을 둘러보았다.

신나는 물놀이 시간. 선생님들이 나누어준 물총으로 서로 쏘아가며 장난을 친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좋아한다. 각 반 담임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신나한다.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에는 천진불의 해맑은 미소가 녹아 있었다.

저녁 7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 반별 장기자랑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반별로 준비한 장기를 선보이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터지는 불꽃 폭죽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우성을 쳤다.

마지막날 아침. 재미있는 미니올림픽과 회향식을 끝을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는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차 안. 피곤에 지친 선재동자들은 단잠에 빠졌다. 마치 엄마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처럼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채.

글=김두식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뷰

오정주 - 다시 참석 못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거예요.
고태인 - 별동별에 소원, 부처님 공부잘하게 해주세요

서울 중동초등학교 6학년 오 정 주(사진 오른쪽)

2박 3일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에 입학해 다시 부다피아 캠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캠프가 너무 재미있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 말씀 잘 듣고 남은 방학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흥인 초등학교 2학년 고 태 인(사진 왼쪽)

선생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별자리도 보고 별똥별도 보았어요. 선생님이 별똥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부처님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키 크게 해 달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어요.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군포교 활성화 · 효율화에 초점

조계종 군승특별교구 추진 배경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소속 종회의원들이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승특별교구' 설치와 관련한 종법령의 제 ·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후보 시절 내건 특별교구(군승 · 해외 · 선학원) 설치 공약과 맞물리면서, 불교계의 중점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 군법사 절대 부족, 군불자 감소, 제정 빈약 등의 문제점을 군승특별교구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군포교 현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군승특별교구를 왜 두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과 선결과제, 특별교구의 형태 등을 살펴본다.



◇군법사 1인이 관리하는 군법당은 15곳 가량. 사진은 경기도 화천 육군 제 15사단 신병교육대 신입불자장병들이 군법당에서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 특별교구의 지위와 의미

군승특별교구의 설치는 전국 24개 교구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형태가 된다. 그간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승회의 등이 군승특별교구의 위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벌여왔지만, 이제는 조계종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할 독립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별교구는 포교원과 (구)군승단이 절충안으로 설치한 현 군불교위원회를 종단 공식기구인 교구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그 위상이 격상된다. 이는 군불교위원회가 군승특별교구로 확대 ·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 '군승특별교구', 왜 필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군포교 '활성화'와 제도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이는 조계종이 군포교 종책 수립, 군법당 운영 시스템 확립,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단 차원에서 관리 ·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불교의 전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군불교 규모가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여 명 등으로, 단순히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로 묶어놓기에는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현 군불교위원회에 일반 교구본사의 지위를 부여해 군법사들의 종법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군법사들은 군포교의 특수성을 감안, 종헌에서 독신규정의 적용 예외를 받았지만, 하위 종법 · 령의 제도적 미비로 '비승비속'의 위치를 보여 왔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전창응 사무국장은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군포교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역 군법사들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종단 내 · 외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불교위원회, 군승회의 등의 해당 기관들은 원론적으로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다. 핵심 쟁점은 △특별교구의 주지 자격 및 임명 · 선출절차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 범위 △30여 개의 관련 종법령 제 · 개정 등이다.

우선 특별교구 주지 자격과 임명 · 선출 절차의 경우, 중앙종회와 포교원은 군포교 경험이 있는 중진급 비구를 포교원장이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불교위원회와 군승회의는 예비역 군법사 출신의 비구를 '선 군승회의 추천, 후 포교원장 임명'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군승회의 의장 장성화 군법사는 "교구 주지 자격은 군포교에 정통한 예비역 군승출신의 비구로 해야 군승특별교구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며 "군승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 제한 범위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중앙종회와 포교원은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권, 중앙종회에 종법 제 · 개정 건의 등의 권한을 제한하고, 승려교육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는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군불교위원회와 군승회의는 일반 교구들의 의무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여건이 아닌 만큼,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쳐 종단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은 "특별교구에 일반교구의 권한과 의무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군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교구를 선정, 정기적인 예산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종법령 제 · 개정의 손질도 필수적이다. 승려법, 법계법, 교육법, 지방종정법, 각종 선거법 등 30여 개의 종법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조계종 전체 종헌 · 종법의 40%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 기간만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포교원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 현실적인 모델은 없나

천주교의 군종교구, 기독교의 군선교연합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천주교 군종교구는 1958년 '군종신부단'을 창설, 61년 주교회의의 공식인준을 거쳐 지난 1989년 군종교구로 독립했다. 초대교구장은 예비역 군신부가 맡았으며, 교구장은 주교회의에 참석해 일반 교구청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또 지역별 교구청과 연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독교는 현재 특별교구가 없지만, 12개 교단에서 파견된 군종목사의 선교지원을 위해 지난 72년부터 전군신자회후원회를 결성하고, 지금은 전국 13개 지부를 거느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성장시켰다.

군포교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특별교구의 모델로 교구주지는 군포교에 정통한 예비역 군승을, 임명절차는 군승회의가 추천에 총무원장 임명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취쳐 · 유발 · 재정 빈약 등 군포교 특수성을 감안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군포교 개선 공청회 개최 △중앙종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승특별교구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군불교 규모 대형화 … 포교원 감당 역부족

종책수립 · 군법당운영 등 종단차원서 관리 · 지원

해당기관들 당위성 공감하나 각론에선 입장차

'특별 교구' 권한 · 의무 충분한 논의 거쳐야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정혜승
보리방송모니터회
간사

방송모니터 有感

'비판 · 트집잡기 하는 곳' 오해
모니터 활동 필요없는 세상 왔으면

#1.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넨다.

명함 받은 사람1: (의아한 표정) " 보리방송이 새로 생겼나보죠?"

명함 받은 사람2: "보리 방송 모니터? 무슨 일을 하는데 예요?"

보리방 간사: 생긴 지 13년이나 된걸요. 방송국이 아니고요, 보리(菩提)가 이름이고 방송모니터 하는 곳이랍니다. YMCA시청자운동본부처럼 불교계의 유일한 방송 시청자 단체입니다.

명함 받은 사람1: 그럼 주로 뭘 모니터 해요? 불교계니깐 주로 불교 방송만 하겠네요?

보리방 간사: (웃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YMCA처럼 방송전반에 관해서 해요. 우리 단체는 특히 어린이, 환경,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 합니다.

#2. 모니터

모니터(monitor)가 외래어라서 그런지 많이들 낯설어 한다. 방송모니터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방송감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방송에서 불교를 코믹화 소재로 사용해도, 폭력이 미화되고, 특정직업과 신분이 왜곡 돼도 속으로만 '방송이 원래 저렇지…' 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치부하였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방송전파는 국민의 것이지 방송국의 것이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주인이고 방송국에 전세를 준 것이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쓴다면 집을 깨끗이 쓰라고 주인으로서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방송모니터를 트집 잡기, 비판하기, 분별심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알려주고 바로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집을 깨끗이 사용한다면 집주인이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큰 바램이 생겼다. '방송모니터가 필요 없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3. 무관심

영어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배운 적이 있다. 누가 일하면서 어려움 점을 물어본다면 감히 관심 없는 불자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신교단체 방송모니터 활동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사실 있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박수가 한손으로 칠 수 없듯이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방송모니터 교육 때는 불자보다는 개신교의 문의 전화가 더 많았다. 현재 자원 활동가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로 전반적인 방송모니터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 보리방 시청자 전화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통 뿐이다. 사실 보리방송모니터회 간사를 하기 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잘못된 방송을 보고 어디로 지적해야 하는지, 시청자 운동이 뭔지,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4.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얼마 전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는 매년 12월에 '보리방송문화상'을 선정해 수여한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불교사회발전을 위해' 불교를 올바르게 표현한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상이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초기보다 많이 불교 비하나 왜곡이 줄어든 것은 잘한 사람에 대한 칭찬과 지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건국 55주년 反核反金 8 · 15 국민대회」가 오는 8월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가반역을 심판하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다시 모여 국가반역자를 심판하고 韓美동맹을 강화하며 盧武鉉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없다, 행동하는 다수만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念願을 모아 「反核反金 자유통일 3 · 1 국민대회」와 「反核反金 한미동맹 강화 6 · 25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는 오는 8월 15일 건국 55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다시 「反核反金 8 · 15 국민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우리는 지난 55년간 민족반역자인 金日成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의 도전을 극복해 가면서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의 금자탑을 쌓아올렸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대한민국과 그 주류 정통 세력의 이런 위대한 업적을 부정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金大中 정권은 지난 5년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金正日정권에 굴종하고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였고, 國益과 國富를 도용하여 민족공멸의 핵무기 개발에 쓰인 것이 분명한 최소 5억 달러의 군자금을 敵將에게 바쳤으며 8 · 15 건국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앞장서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속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盧정권의 갈팡질팡하는 對美외교와 햇볕정책을 계승한 對北정책으로 우리 안보의 기틀이 붕괴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극심한 경제불황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 국가를 좌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난 결과임을 직시코자 한다.

盧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반대한 사람을 국가정보기관의 사령탑에 앉히기도 했으며, 6 · 25남침 후원자이자 통일 해방자인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기조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救國을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도 심각하게 고려하며 그 귀추를 주시코자 한다.

2003년 7월 30일

주최 : 反核反金 자유통일 국민대회

[공동대회장]
吉自延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목사)
吳滋福 (이북도민회총연합회회장, 전 국방장관)
鄭起勝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崔海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목사)
金玉均 (천주교 한민족돕기회 총재, 주교)
李哲承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鄭草宇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애국시민 여러분, 8 · 15 국민대회를 함께 준비해갑시다!

이번 대회도 지난 두 번의 대회처럼 애국시민들의 참여와 성금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다수만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을 지켜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들의 용기와 救國의 결단, 그리고 총궐기를 호소합니다.

집행위원장 安 應 模 (황해도 도민회 회장 / 전 내무장관)

● 회비송금계좌 : 참여단체회비(30만원)
후원회원모집(천원도 만원도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477401-01-057013 안응모
우리은행 816-211112-02-101 안응모

● 연락처 : · 기획/총무팀 : 전화/(02)790-4815 ~ 6 팩스/(02)790-4868(자유시민연대)
· 홍 보 팀 : 전화/(02)527-4515 / 4518 팩스/(02)527-4517(대평연합회)

충남 논산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된다.

불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석기, 이하 준비위)는 최근 경승실 개원식과 불상 점안식을 봉행하고, 이달 중순경 '교통사고와 변사자 천도법회'를 겸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현재 준비위는 지난 달 초부터 전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들어가 5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초대 경승실장에 논산 지장암 주지 창법 스님(법륜종 총무원장)을, 경승위원으로 대둔산 영주사 주지 풍운 스님,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불교회 창립된다

회원 50여명 … 중순께 법회
경승실장 창법 스님 추대

준비위는 우선 회원들의 3교대 근무 여건 등을 고려, 점심시간을 활용한 정기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 종교가 없는 80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 꽃꽂이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불교회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준비위는 전체 직원의 40%가 논산 지역 거주자인 점을 감안해 매달 관내 사찰 순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불교회 창립준비위원회 최석기 위원장(48 · 정보과장)은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신입 회원 확보에 중점을 둬 불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불교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잘나가는' 일터불자회 배운다

2년 미만 불자회들 포교아이템 · 운영노하우 벤치마킹



그림 / 김영민

사 례

#1. '출범 3년차, 전국 산하단체 205개, 회원수 1만여 명, 단위 기관 불자회 · 개별 회원 등 조직구성의 다양성 확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단기간에 가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동일 직종의 직장불자연합단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2. 7월 27일, '제3호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를 개원한 선재마을의료회. 그간 자체 활동평가,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 등 짜임새 있는 조직운영 노하우를 선보이며 전문직종 불자회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들어 직장 · 직능불자회들이 '잘나가는' 일터불자회의 성공사례를 닮는 벤치마킹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창립을 준비하는 직장불자나 설립 2년 미만의 불자회들로,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등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은 경영전략기법 중 하나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업체의 제품,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 배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불자회가 이처럼 모범 불자회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창립 초기의 빈약한 조직을 단기간에 완비하고, 향후 불자회 운영모델을 중견 직장불자회에서 찾기 위해서다. 또 기존 동일 직종의 불자회가 벌이는 사이버 조직운영기법, 회원 늘리기 방법, 문화 이벤트 법회 등 근무여건에 따라 적용해보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창립초 빈약조직 단기간 보강 겨냥

지난 2001년 창립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는 올 5월부터 사이버 공간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을 개설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커뮤티니,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강원 원주경찰서 불교회 등도 마찬가지다. 또 마산시청 불자회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회원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 동료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올 4월 창립한 경기 양평경찰서 불교회는 올해초부터 경찰청 불교회가 매달 찬불가 배우기 · 정근 · 참선 등 주제별 법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이벤트 법회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직 불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올 4월 출범한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전문직 특성을 살린 사회봉사활동으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선재마을의료회, 불자약사보리회,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등이 그간 벌여온 무료 진료 및 법률상담을 자체 평가하고, 이들 자료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계종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직장불교 모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종책에 반영하고, 전국 직장불자회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말 응모자 참여범위, 10월 불자회 단체장과 내부 검토, 12월 최종 세부계획안 마련 순으로 진행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숫타니파타 교리강좌 열어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충남 대전지부(회장 여성구 • 사진)는 7월 28일 대전 보문고등학교 법당에서 김홍섭 교법사에게 <숫타니파타> 교리강좌를 들었다.



'초발심자경문' 교리 수강

철도청 서울 성북승무사소 법우회(회장 박우락 • 사진)는 19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상현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교리강의를 듣는다.



경주 일대로 '달빛기행' 떠나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 • 사진)는 9~10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 일대로 문화유적답사 '달빛 기행'을 떠난다.



법광 스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안동교도소 불심회(회장 김성배 • 사진)는 24일 안동 법용사에서 주지 법광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 교리강좌를 듣는다.



정기법회…법현 스님 법문 들어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 • 사진)는 7일 본점 4층 강당에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무료법률상담 회향식 가져

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법우회(회장 이만덕 • 사진)는 7월 18일 서울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 활동 회향식을 가졌다.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불교 연구와 보살도 실천'

이 짧은 문구가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지난 1988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아래 지금은 회원들이 2천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저마다의 전공,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연구실 안에서 연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강의실에 들어서면 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법보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자 노력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는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보살도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아가 뜻을 함께하는 다른 단체와 더불어 여러 사회운동에 동참해왔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진정한 보살도의 실천은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립초기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신행을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 사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을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몸에 되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러한 여러 노력들을 바탕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으로 거듭났고, 다른 하나는 '2002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입니다. 우선 사단법인 등록은 앞으로 우리회의 활동에 공신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002 한국교수불자대회'는 그동안 신행 · 학술의 두 분야를 하나로 엮어내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앞으로 우리회의 활동방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모시고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학기념관에서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를 갖습니다. 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체와 불교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각국의 불교가 왜 차이점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 깊이 흐르는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참가국 교수불자들은 대승 및 남방불교권별로 자국의 불교 전래와 현황을 실은 '나라별 리포트'를 제출하고, 전공분야별로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공동대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대회는 창립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현대문명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범 아시아적으로 확립하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연기영 회장

회원수 2천여명…작년 사단법인 등록
백담사서 첫 東亞 교수불자대회 추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원들이 지난 2002년 8월 강원도 백담사에서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 수행 체험 이야기

◆ 중단전챠크라 (가슴명치) 막힌 지옥 덩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체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독 경 염 불 의 들숨시 가슴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세 불량으로 거꾸로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자동단전호흡 은 참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수행으로, 수행 자라면 누구나 배워야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나, 쉴때나, 잠잘때에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禪이 절로 됩니다.

◆ 와 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충만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롱초롱 빛나는 두눈이 와선의 진가를 말해준다.

◆ 행 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짓눌린 어깨가 가벼워 진다.

◆ 업장소멸진참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호흡에 맞춰서 절하는법 숨차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승화강이 된다.

◆ 소리산의 정상(출세봉)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 일요일 : 아침 5~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철야정진 합니다)
◆ 준 비 물 :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절을 기차게 잘하는법 읽고 올것.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도 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 오시는길 : 상봉터미널 - 청평댐→설악면→모곡종점 하차 전화요
동서울,상봉터미널 - 양평→용문→단월 하차 전화요
★ 자가용 : 양평에서 홍천방향→용문터널→단월→대명비발디파크 입구에서 청평 방면으로 6km 지점→석산주유소앞→소향산장→법왕정사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붉자 용자)

꼭 소장하여 활기찬 고귀한 진품 영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면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敎藝術文化院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전체시설의 절반을 투자비용 없이 보유가능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장안낙원의 분점으로 분양행사시 지원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




◇회암사 지공선사탑 및 석등(사진 왼쪽)과 나옹선사탑 및 석등(오른쪽). 고려말로 추정되던 이들의 조성연대가 조선후기인 19세기라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회암사터 나옹·지공선사 부도

'고려말' 아닌 '조선말' 조성"

소재구 학예관 | **양식 뒤떨어지고 순서 위계 안 맞아 회암사 19세기까지 명맥 이어진듯**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사적 128호) 북쪽 능선에 남아 있는 지공(?~1363)선사와 나옹(1320~1376)선사의 부도는 조선후기인 19세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두 선사의 활동시기와 연결시켜 고려시대로 조성연대를 추정해오던 것들이다.

경기도박물관이 회암사 특별전(~10월 5일)의 일환으로 7월 29일 개최한 학술강연회에서 '회암사지의 석조유물'을 발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나옹, 지공선사의 승탑(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 부도)은 두 선사의 입적시기에 맞춰 그 조성시기가 고려시대 말기로 비정되어 있다"며 "양식적인 면에서 이 승탑들의 조성시기는 19세기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연구관은 먼저 여말선초 회암사의 3대 주역이었던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부도 위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회암사터 위쪽, 즉 현재의 회암사 동쪽 능선에는 위쪽부터 나옹선사탑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50호), 지공선사탑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49호), 무학대사탑으로 추정되는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 1407년 추정)가 자리하고 있는데, 상하의 계보를 중시하는 선문에서는 보기 드물게 제자인 나옹선사탑과 스승인 지공선사탑이 위계상 그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이는 최초에 무학대사의 부도가 세워지고 나머지 두 스승의 탑은 먼 후대에 나옹, 지공의 순서로 세워지면서 상하의 위계가 흐트러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소 연구관의 설명이다. 나옹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선각왕사비(보물 387호, 1381년)가 맞은편 언덕에 떨어져 단독으로 세워진 사실 역시 애당초 이 석비가 세워질 당시에는 부도를 동시에 건립할 계획이 없었음을 짐작케 한다.

양식적인 면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무학대사의 탑과 석등으로 추정되는 회암사지부도와 석등을 본뜨고 있지만 거의 장식이 생략되고, 조형감각도 매우 단순화되어 극단적으로 형식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소 연구관은 "이는 순조 28년(1828)에 중건된 무학대사비, 지공선사비 등의 치석기법이 그대로 승탑조형에 적용되고 있는 점이나 조선후기 왕릉의 귀유석(鬼遊石)을 본뜬 상석(床石) 등에서도 확인된다"며 "지공, 나옹선사의 승탑과 그 부속물들은 입적 당시의 제작물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조성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관은 "19세기에도 무학대사비, 지공선사비, 나옹화상탑 및 석등, 지공선사탑 및 석등 등 일련의 석조물들이 대거 조성되었다는 것은 회암사가 명종~선조(1566~1595) 대에 완전히 폐사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회암사 터에서 지금의 회암사 쪽으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국 232개 시군구 향토문화 DB화
복장유물 등 불교문화 집대성 전망

정문연, 내년부터 '문화전자대전' 편찬

전국 방방곡곡의 불교 관계 자료들이 집대성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전국 232개 시·군·구의 향토문화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국향토…'는 지방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일종의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2013년까지 1천2백억 원의 정부예산과 연인원 2만여 명의 전문학자가 투입된다.

대략 58만 항목에 20여만 장의 사진이 △자연과 지리 △지방역사 △문화유산 △성씨와인물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종교와 문화 △생활민속 △구비전승 등 9개 분류체계에 따라 실린다.

단순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정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범패처럼 무형문화재는 동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절마다 발견되는 복장유물의 경우 조성기 등 발견유물에 대한 내용 연구까지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지방의 불교문화가 집대성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9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온 전산정보실 이종철 실장(정문연 한국학대학원 교수)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된 것들인 만큼 문화유산뿐 아니라 생활민속, 성씨나 인물, 종교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불교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불교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불교계 전문 인력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일 日서 한일종교연구포럼

일제침략기 일본불교에 대한 반성 등 발표



한국과 일본의 종교학자 20여 명이 모여 근대기 양국의 불교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2일 일본 교토(京都) 오타니(大谷)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종교성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리는 제2회 한일종교연구포럼(공동대표 정진홍·사진, 시마조노 스스무)이다.

포럼의 핵심이라 할 제1분과 '한일의 근대문화와 불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각과 '약간의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일본 불교의 한국 진출을 일제의 대륙 침략과 연결시켜온 우리 학계에서는 일본 불교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 불교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 개념을 배제하고 동아시아 종교문화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순수한 개념의 종교 교류 현상을 분석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병욱(고려대 강사)·김방룡 박사(보조사상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대신 일제 침략기 일본 불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일본측 발표자가 맡는다. 오타니 대학 연구생인 미국인 미카 아백(Micah Auerback)은 "한국 불교를 접한 일본의 승려들은 한국 승려에게 감화를 받아 한국 불교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불교를 통해 선종의 순수한 전통을 배우게 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불상(3)

애기부처의 비밀

선덕왕 때 일이다. 도중사(道中寺)의 생의(生義)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그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더니 남쪽 골짜기에 이르러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께서 나를 꺼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꿈에서 깨어나 그가 표시해 놓은 곳을 찾아가 땅을 파니 과연 돌미륵이 나타났다. 그 미륵상을 삼화령 위에 옮겨 절을 세우고 이름을 생의사(生義寺)라 하였다. 충담스님이 해마다 3월3일과 9월9일에 차를 달여 공양하던 것이 이 부처라고 한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다. 이 설화에 나오는 불상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셔진 삼화령석조미륵삼존불상으로 추정된다.

경주사람들은 이 삼존불상 가운데 양쪽의 보살상들을 '애기부처'라고 부른다. 이 보살상들은 1m 남짓한 4등신의 몸매에 순진무구하고 앳된 표정을 짓고 있다. 영락없이 네 살배기 어린이 모습이다. 이 애기부처는 7세기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애기부처는 중국 북제, 북주시대부터 일본 하쿠호 시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양식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양식의 불상을 '동형불(童形佛)'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또한 애기부처라는 의미이다.

애기부처의 이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여래입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얼굴은 미소년 상이지만, 몸매는 4등신의 어린아이 모습이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右肩遍袒)에 오른쪽 엉덩이를 옆으로 내민 포즈가 앙증스럽다. 이 바람에 법의의 오른쪽 끝자락이 살짝 들렸는데, 이것이 이 불상의 매력이다.




◇삼화령석조삼존불의 보살상(사진 왼쪽)과 금동여래입상(오른쪽). 두 불상 모두 4등신의 어린아이 몸매로 '애기부처'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도대체 왜 부처님을 앳되고 앙증스럽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친근감이다. 부처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이다. 원효스님이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거리낌 없는 행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 것도 같은 시기, 같은 맥락의 일이다.

이제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성철스님 하면 떠오르는 '삼천배'에 관한 일화도 이 불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삼천 번 오체투지를 해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삼천 배를 하지 않아도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천 배의 고통을 피하려는 신도는 일부러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미터 남짓 4등신-순진무구·앳된 표정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 앞에

그렇다. 어린아이는 곧 부처이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허망하게 높은 것만을 쳐다보는 중생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은 차원의 것이다. 삼천 배를 하여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한껏 낮추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도 솔 암 주지 지 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곤지암
011)844-4341

행 자 모 십 니 다
▷ 고졸이상, 40세미만
▷ 타종단스님 개종 환영
▷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후원함
02)917-3363

가족처럼 함께사시며 사찰을 운영관리해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 철학가능하신분 환영
▷ 용천사 (예천)
054)655-60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031)719-0408~9

도반을 찾습니다
강원공부를 마친 35~45세 비구니스님
천일기도 정진과 불사목적에 귀의할 제반있는 승려로서 운전경력있는분, 미륵불상, 법당불사하실분
경남창녕군 소재1,000평
011-538-2371(~8.30까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2人)
033)462-50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40대~50대
용 덕 사
011-595-1522
051)759-9058

공양주 구함
▷ 55세 이하
▷ 서울 금호동
017)260-33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부부도 환영함
031)377-7283
011)9254-7283

천년 관음기도도량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천도재,각종 불공 해 드립니다
스님이 필요한 곳에서는 연락바랍니다(비구니)
019)357-5009

처사님모십니다
▷ 충북 단양 조용한 사찰
▷ 사찰숙식 가능한 분
▷ 50세 전후 처사님
▷ 운전면허 소지자환영
▷ 부부동반 환영
043)423-2085
011-244-2083

6대째 내려오는 비법
위장약을 부처님 마음으로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오래된 위장병 자신있습니다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187-02-274348 농협 이양희
011-392-4984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천수, 바라, 오공양, 작법등 각종행사에 임시로 염불 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다슬기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사 람 을 찾 음
· 속명 : 최선자 · 나이 : 52~53세
· 법명 : 만행월 · 신장 : 155~157cm
· 특징 : 이마는 넓은편, 눈이 크고 입술이 두터움
머리는 갈색(변할 수 있음)
전라도 말씨 사용.
사찰에서 공양주로 상주할 가능성이 높음
016-371-0054 / 052)225-1577

회주님이나 투자가 모심!
내용 : 소승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마음법의 도리를 통달한바 없이 통달한 자로서 기본 불사후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이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불국정토 실현에 동참할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도안 광명.

불사포교:여력:마음법통달, 한의학전공, 외공내공무술전공, 역학달통등모든 정법으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불국토 건설 준비가 끝난 스님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회주님이나 투자가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도안 광명.
016-726-0830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 간 역 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육신의 영생법 저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기타 사고사등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들, 여러차례천도를 했으나 아직도 천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49일 만에 속시원히 천도해 드리며, 잘되고 않됨을 거의 확인 시켜 드립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눌림이 있는 분도 해결해 드립니다.
▷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 011-9243-0993

志 晛 易 理 學 硏 究 院
檀園門下生 韓 恩 炅
◆자연오행과사상체질&수지침시술법강의
-오장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의 자의관리
◆단원역리학 강의(초급~연구반)
-이석영 선생 수제자 단원 이병열 선생의 정통 학문
◆생활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 난치병 치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 두통,우울증,화병, 불면증,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 강의내용
1. 기초반(3개월) :
사물(목탁,요령,태징,광쇠,쇠,북)다루는법
도량석, 셋송, 상단예불, 불공, 제사 시식 등
2.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범패)
3.고급과정(6개월) :
천수바라, 요잡바라, 작법(나비춤), 49재, 예수재, 수륙대재
(전문직 범음범패), 각어산, 화청
♥ 강사 : 도진스님, 일각스님
♥ 1년 수료후 수료증 드림
한국불교 범음회
051)554-1518. 011-846-1518
017-563-3062 원 광 사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敎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www.hye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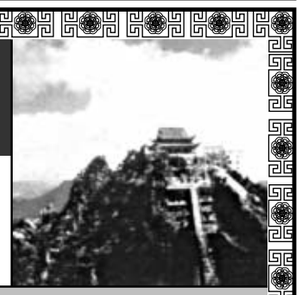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티벳 카일라쉬(수미산)순례
17일 319만원 / 24일 339만원



성스러운 우주의 중심 聖山 카일라스와 티벳 문화, 자연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떠나는 티벳 대탐방이다.
● 출발일 : 8/26 ~ 9/18 (현재 5명)
● 포함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게스트하우스 캠핑), 중국비자,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네팔비자,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중국 구화산 / 황산
5일 89만원



절강의 보타산, 산서의 오대산, 사천의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불교의 사대 명산중의 하나로 신라 김교각스님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지장재(8/27) 참관"
● 출발일 : 8/25 (단 한차례)
● 일 정 : 인천-남경-구화산-황산-상해-인천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금단의 땅 - 티벳!
티벳 8일 195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싸-장체-시가체-라싸-성도-인천
● 출발일 : 8/14, 8/21, 9/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미얀마 6일 159만원
황금불탑과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폴까지 함께하는 최적의 불교성지 순례!!! - 대만족
● 일 정 : 인천-싱가폴-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싱가폴-인천
● 출발일 : 9/30,10/21,11/4,11/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불교의 발상지 - 인도 / 네팔 불교 성지 순례
일정 A - 9박 10일 225만원
● 일 정 : 인천-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 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1/28,12/25(성도재일),1/4,1/26,2/7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일정 B - 12박 13일 275만원
● 일 정 : 인천-뭄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산치대탑-아그라-상카시아-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라지기르(영취산, 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델리-인천
● 출발일 : 11/20,12/8,1/2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티벳 / 네팔 10일 260만원
티벳과 네팔을 잇는 우정공로를 따라 펼쳐지는 티벳불교!
● 일 정 : 인천-성도-라싸-장체-시가체-장무 / 코다리- 둘리겔-카트만두-상해-인천
● 출발일 : 8/11, 8/18, 9/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스리랑카 6일 119만원
불교의 보고로 불리우는 "아름다운섬" 스리랑카 성지순례
● 일 정 : 인천-콜롬보-네곰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켈라니아-콜롬보-인천
● 출발일 : 9/19,10/1,10/17,11/7,11/2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티벳 大佛축제 단체배낭 8일 139만원
티벳 불교문화 축제의 향연이 펼쳐지는 기간에 맞추어 느껴보는 실속있는 여행.
● 출발일 : 8/24 【드레풍 大佛축제, 쉬둔절】
● 포함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중국 실크로드 8일 145만원
종교문화의 대이동 실크로드를 따라..
● 일 정 : 인천-서안-우루무치-트루판-돈황-서안-인천
● 출발일 : 매주 금요일 6인이상 출발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짚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1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비,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대 만 5일 95만원
대만의 불교성지와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련까지
● 일 정 : 인천-타이페이-대중-고웅-화련-타이페이-인천
● 출발일 : 8/29,9/13,9/27,10/11,10/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기(전세기) 취항!!!
聖地巡禮만을 위한 특별기가 최대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취항합니다.
11월 24일 / 12월 1일 (단 2차례)
▣ 불교성지 단체여행 - 189만원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공항세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 승가대학, 신도회, 신행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SINGAPORE AIRLINES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충남 / 위치 : 부산 / 위치 :전남 순천
- 법당:33평(목조) / 법당 : 36평 / 법당 : 20평
- 요사 : 90평 / 요사 : 130평 / 요사 : 45평
- 부 지 : 2100평 / 부지 : 755평 / 부지 : 1000평
- 가 액 : 10억 / 가액 : 25억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만원
-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57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6억원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토굴수련원터 안내

- 위치 : 함양 백운산 자락
- 부지 : 대지 200평 포함 합 10,500평
- 가옥 있음
- 가액 : 평당 2만원
- 특징 : 토굴과 수련원 터로서 적합한 650고지의 전망 좋은 곳

016)367-2112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만원(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영주
- 대 지 : 3000평 / 부 지 : 220평
- 법 당 : 4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100평 / 요 사 : 12평
- 가 액 : 20억 / 가 액 : 6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의정부시내 전철역앞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 주방, 사무실, 방, 화장실
- 전철역 앞. 옥상 사용 가능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전세 2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872-8227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 25평(주지실)
- 요사 :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 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양도 : 1억3천만원, 전세 8천만원

019)673-8525
011)677-852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사찰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 위치 : 서울 근교(강남 40분)
- 대지 : 130평 / 대지 : 700평
- 법당 : 1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200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15억 / 양도가 : 10억
- 역사가 깊은 도심사찰임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대로변 시장 입구, 교통편리
- 3층 건물 3층 50평
- 가액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1)848-364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안동시시내 위치좋음
- 종교 용지 : 436평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칠성각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 조계종 승려에 한함
- 시내가 가깝고 약수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비구니 사찰임

011)9581-6044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상가 4층건물 3층
- 법당 35평(방2, 화장실,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 특징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9534-28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1리 390번지
- 절터 250평, 밭 700평, 임야 5000평
- 가액 : 6천만원

055)366-1619
안내 054)833-47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요사채 25평
- 교통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사 찰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
- 부지 : 12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30평
- 일반건물 : 150평
- 가액 : 3억6천
- ※대출 가능함

※ 대구 근교
※ 창녕
※ 고령
※ 기타지역 안내물건 다량 보유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조건 : 종중평(400여평 사용. 인법당 겸 요사채 45평, 산신각 35평, 건물등기평수는 12평임. 삼존불, 심야전기, 심야온수, 약수 및 수도설치)
- 가액 : 9500만원

011)9770-659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 울창 계곡 / 대전에서 25분 계룡신도시에서 10분
- 차량 진입
- 이용 가치 : 사찰부지, 납골당, 종교시설, 연수원, 생수개발, 휴양시설(참나무 찜질방) 등
- 면적 : 7만 3천평
- 가액 : 평당 1만원(총 7억3천만원)

017)405-1554
야간) 042)522-2588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서산시 가야산(해미IC 5분)
- 산세 수려. 전망 좋음
- 부지 1500평중 600평 사찰허가 토목공사 완료. 조경, 전기, 자연수, 자연석 큰돌 많음
- 가액 : 2억원

017)341-9967
017)341-6969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입구 (산청군 신등면 도로에서 300m위치)
- 천수천안모신 40년된 기도도량
- 사용대지 380평, 요사채 2층슬라브
- 1층 30평, 2층 20평
- 다용도로 단청되어있음
- 법당 조립식, 1층 25평, 대중실
- 법당 2층 18평, 산신각2평, 약수탕
- 주차완비. 불자동네.
- 주지노환으로 부득이하게 매매
- 가액 : 9천만원

055)973-3615 / 011)9501-37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용인시 용인IC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3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 특 A급
- 비구니 스님에 한해서 드립니다

031)322-2646
011)9227-2646

사 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공주 / 위 치 : 이천 / 위치 : 대구
- 부 지 : 1만 8천평 / 부 지 : 2600평 / 부지 : 약 120평
- 법 당 : 25평(임) / 법 당 : 25평 / 법당 : 30평(2층)
- 요 사 : 30평 / 요 사 : 90평 / 요사 : 50평(1층)
- 가 액 : 2억원 / 가 액 : 9억원 / 가액 : 3억 8천만원
- 특 징 : 잔입로 노송 울창 / 특 징 : 산세좋고 주차 100대 가능 / 특징 : 3억원 이상 소요된 산축사찰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 법당(삼존불), 탱화, 거실, 부엌살림 일체 있음. 즉시 양도 입주 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 1천5백만원(절충가능)

042)527-3800
017)403-380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근교 낙동강과 산이 어우러진 도심. 아파트대단위 상가및 주택가. 산업단지 전등한옥으로 꾸며진 법당과 요사
- 주차장완비. 넓은정원. 정남향
- 고속도로 및 교통 편리
- 가액 : 2억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245-546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평수 : 대지 88평 등기, 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목조기와 10평
- 방2개, 입식부엌, 욕실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토굴 안내

- 위치 :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보행 15분, 한라산 전관 보임
- 대지 : 258평
- 외부 : 2중 돌집(25평) (2002년9월준공)
- 내부 : 황토방. 부엌, 욕실포함 6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6)9686-6582

사 찰 안 내

- 위 치 : 포항칠포 / 위 치 : 부산 / 위 치 : 사천 곤명
- 부 지 : 80평 / 부 지 : 400평 / 부 지 : 7,300평
- 법 당 : 32평 / 법 당 : 25평 (인법당) / 법 당 : 28평
- 요사채 : 37평 / 가 액 : 3억 / 요사채 : 57평
- 가 액 : 2억 / ※ 산복도로위 산속암자 / 가 액 : 4억
- ※바닷가 별장형 암자 / ※ 여법한 교외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의정부시
- 대지 : 100평. 건물 36평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전세 6500만원

011)671-098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200평이상,법당 30평정도 요사채 30평정도
- 차 진입 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 주인직접. 부동산 사절

011)883-7856

임야 안내

-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법인,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① 계곡이 흐름 ② 전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③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④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105번종점(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전 · 월세 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사 과 문

2003년 3월경 불교 조각원 사진을 불교문화 예술원에서 발행한 팜플렛에 전제한바 있습니다. (전제하기전 불교 조각원의 대표님 한분과 협의를 통해 전제하게 되었음) 불교 조각원의 전제 금지 요청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귀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3년 7월 29일

불교문화예술원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명륜동 전철역 롯데백화점 5분거리
- 평수 50평, 5층건물에 4층 현대식 건물. 주차장 완비. A급시설.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 가능)

051)556-3312
016)549-8357

암자 안내

- 암자 및 농장 정원수 1만포기
- 옆산 1만평 사용가능
- 실버타운 적지
- 평당 9만원
- 3600평
- 경북 의성군 소재지

017)813-912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3. 준 유원지
- 대지 200평, 전 500평. 산장(돌과 나무집 30평)방3개, 거실,다락,모두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54)262-6673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상주시공성면용안리 김천,상주에서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임법당 1, 주방1, 방 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팔공산
- 대지 : 100
- 건물 : 법당, 스님방, 차실 합 30평 공양주거실, 보살실 합 20평
- 시설비 : 3천만(삼존불, 산신, 용왕 탱화)
- 보증금 5백만원, 월20만원

018)502-8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계산동
- 신축빌라 24평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가액 : 융자안고 2300만원
- 권리금 200만원(집기일체 포함) 몸만 오시면 됨

032)541-9428
011)9642-12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대로변
- 사정상 급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1천만원

053)566-8203
0502)104-30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주방시설완비
- 삼존불,신중탱화,지장탱화,지장불 모셔져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백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20평
- 산신각, 용왕각
- 약수물 풍부
- 120년된 고찰
- 가액 : 1억2천만원 전세 5천만원

011)9312-210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대포동
- 대지 : 188평
- 법당 23평, 요사 37평
- 2010년 성남, 이천 전철 완공 시내에서 자가용 6분
- 가액 : 1억 4천만원(절충 안됨)
- 저가에 양도. 꼭 필요한분만 전화요망
- 법당 시설물 일체

011)9142-37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 시청터미널에서 5분거리, IC에서 10분거리
- 2층 건물중 2층 60평 방3개, 법당, 화장실, 거실
- 삼존불, 약사여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지장탱화,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2천700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55)385-0868
019)447-777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257 지하철 바로 옆 부산 침례병원 옆
- 총 37평, 방 3, 부엌 1
- 전세 3천만원,
- 월세 50만원(전기, 수도료 포함)
- 부대시설비 : 1500만원

017)252-2722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가족묘지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 면적 : 3,300평(국도변 인접)
- 지목 : 임야(산소용지로 최적)
- 특징 : 팔당호반의 최고의 명당, 정남향
- 가액 : 평당 30만원(가격 협의 가능)

016)235-737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5백만원

011)9852-8386 / 051)782-9386

목어

人心과 正道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올 여름은 모든 것이 하향일로(下向一路)다.

'비상의 희망'보다 '하향의 절망감'이 세상을 덮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은 극심한 불경기에 위축된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더 이상 아래가 어딘지 구별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격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당연히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동반 하락하게 한다. 재미없는, 살 맛 안 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치인들은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금언을 잊고 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민심이반을 자초 했다. 경제 역시 정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권력 혹은 편법에 의지해 온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해 질곡의 구도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심과 정도' 두 가지가 결여된 사회는 언제나 혼란 그 자체였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도 그 두 가지가 실종된 어느 사막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고난이 더 큰 행복을 길어 올리는 힘이라는 믿음만큼은 놓지 말자. 하향의 끝자락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솟구치는 지혜가 우리들 자성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절망도 희망도 모두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절망스러운 곳에서 희망가를 부르고 희망의 순간에 절망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야말로 참불자의 자세가 아닐까?

무더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휴가 차량들이 그 지혜의 자리를 확인 하고 돌아오는 행렬이 되길 빈다.

일상생활에서 계(戒) 지키기 운동

조계종 포교사단이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지계(持戒) 실천운동에 나섰다. 포교사단은 단순히 기도하는 날로만 인식됐던 재일(齋日)의 전통을 되살리는 동시에 재가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계를 실제로 지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같은 운동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단은 포교사 및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8월 17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팔재계 수계 · 실천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천운동에 들어간다.

장군죽비

SK텔레콤의 사이버 종교차별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한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이미지 배경화면'에 불교 테마의 이미지가 배재돼 종교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의 네이트닷컴(www.nate.com)은 종교 디렉토리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주제로 한 홈페이지 배경화면만을 제공해 네티즌들에게 개신교와 가톨릭만이 종교의 전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한승원 소설가

한 역무원이 던진 희망의 빛

한없이 짜증스럽고 어지럽고 한심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세상이다.

한 학원장이 자기 학원 학생을 납치하고, 자기 친구인 여대생을 유괴하여 돈을 울거내려 들고 아파트나 은행에 뛰어들어 한번에 많은 돈을 보듬으려 든다. 아내 이름으로 혹은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상대방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다음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 한 택시기사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한밤중에 자기 다리를 철길 위에 묶어 지나가는 열차 바퀴에 잘려나가게 했다. 한 젊은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강도당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아무리 재주를 잘 넘는 손오공도 결국은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을 뿐이란 말이 있다. 한데, 재주를 부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용용 죽겠지 하면서 달콤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생겨날 돈 뭉텅이에 시야가 가려 사리판단이 어수룩해진다. 그의 눈에는 돈 뭉텅이만 보일 뿐 자기의 실수와 사악함으로 말미암은 죄와 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성공만 보일 뿐 절대로 실패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고 있다. 정치판의 추악한 무리들도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자기 한 몸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되고, 자기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무어라고 한다는 것이냐 하고 골프여행 간다고 나가서 카지노로 돈 날리고 망신만 사오기도 하고 고가 상품들을 밀수입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거듭 절망하게 한다.

그러한 판에 우리는 모처럼 희망의 빛을 대하게 되었다. 한 젊은 역무원이 열차 바퀴 속으로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를 구한 다음 자기는 막상 두 다리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것.

얼마 전 일본에 유학 간 한 젊은이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보고 바야흐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 구해낸 다음 자기는 막상 목숨을 잃은 일이 아직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 아프게 들어왔다. 한데 착함은 용기 가지지 않는 자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번 그 역무원의 착함과 용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는 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로또 복권이 세상을 들끓게 한다. 학생들은 돈을 벌수 있는 쪽으로만 진로를 정한다. 아름다움이나 사람답게 사는 길은 번쩍거리는 돈 밖으로 멀리 밀려나 있다. 우리는 돈 저쪽으로 밀려난 착함이나 아름다움이 진실로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들이 기껏 많이 가지고 있어보아야 죽어갈 때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었다. 한 남자가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제했는데 그것은, 그 아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어찌 한 생명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차마 그냥 있을 수 있느냐는 짠한 마음 때문이다. 그 마음이 어짐(仁)이다"고 맹자는 말했다.

그 역무원이 다리를 다친 그 자리에 조그마한 돌이라도 하나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리게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떠할까.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조계종 통합신도회가 나아갈 방향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창기 선진규)는 7월 25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2강의실에서 통합신도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안식 전국신도회 상임부회장,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김광식(부천대 교수) 씨가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정리=박봉영 기자>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는 7월 25일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정, 헌신, 순수한 불심으로

▧김광식(부천대 교수)

반성, 이념정립 등 내부고민 절실

신도회에 대한 최우선의 문제는 신도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 일반 신도들이 과연 신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 왔고, 종단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한다. 이는 신도회의 이념과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그리하여 불교를 삶의 중요한 증거로 하여 살고 있는 다수의 불자들은 신도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미약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는 신도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자기 반성과 이념 정립, 노선의 재정비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의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단의 사부대중 운영체의 요망이다. 이는 신도회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 불자들이 당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신도회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신도회가 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도회로 나아갈 수 있다. 신도회는 신도들의 조직이요, 지향이다. 그 후 종단의 구성원, 구성체로서의 신도회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도회의 노선과 성격은 이미 신도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손안식(전국신도회 상임부회장)

조직 정비, 대중 참여 유도

재가불자들의 순수한 신행조직체로 설립된 전국신도회는 94년 종단개혁 당시 아무런 절차없이 종단에 의해 사무실 폐쇄, 해체 선언을 당했다. 재가불자들의 자발적인 신행조직이 종단에 의해 폐쇄된 좋지 못한 선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 연합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여 통일된 실천이념으로 불교를 선도해야 함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하부조직과 중앙간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합신도회는 중앙과 하부조직의 강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하며, 대중이 참여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의 자립도 통합신도회의 절실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통합신도회는 사상과 이념의 올바른 정립, 조직역량의 강화, 실천의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창립정신 잊지말아야

중앙신도회의 출범 의의는 과거 교계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불자의식의 왜곡, 부정과 비리로 인한 불교의 명예실추, 그로 인한 불교의 사회적 신뢰 저하 등을 재가불자 차원에서 결별하고 바른 신행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도조직의 결성이라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신도회의 구성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앞으로의 통합신도회는 전국신도회 초기 활동가들의 불교와 종단에 대한 열정과 헌신, 중앙신도회를 통해 나타난 신도운동에 대한 지향, 역사와 사회 앞에 책임 있는 신도회의 추구 등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신도회의 역사와 불자들의 바른 신행에 앞장서고 사회와 역사에 책임 있는 신도회를 지향하는 중앙신도회의 창립정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승천(중앙신도회 정책위원)

권력예속, 정치적 이용 경계

전국신도회의 창립 시기는 불교계의 정화불사가 한창이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종단 정화 적극 참여 결의, 분규사찰 정화에 대한 제반대책 수립 등의 활동사항이 담겨있는 것을 보면 종단 정화 문제가 당시 신도회의 최대 화두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67년 13개 시도지부, 24개 교구지부회, 153개 시군지회, 812개 사찰 신도회가 결성됐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당시 권력자였던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예속되는 아픈 전철을 밟았다. 권력자의 신도회 진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도회가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싣고 있습니다.

◎ 오봉사(경북 김천시 소재)의 대연스님 (☎054-437-1898, 018-541-1890)이 저희 **파동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6일간의 수련기간 중 삼일 째 되는 날 저녁, 스님이 잘 아는 신도 한 분을 **파동 명상**을 통하여 영적인 점검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순간, 스님의 등 부근에서 큰 구멍이 뚫리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나쁜 기운들의 뭉치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희열감이 넘쳐나면서 백회혈 부근에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력이 몸 전체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신도가 파동음을 들으면서 깊은 명상상태로 빠져들면서 경험하는 영적 현상의 그림들을 스님도 같은 상태가 되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신도의 몸 속에 있는 다섯 명의 영가를 차례대로 불러내어 제령 천도를 했다고 한다. 그 후 그 신도는 평소에 이유도 모른 채 아프고 불편했던 신체 부위의 통증들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8월 3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땅 · 농부의 고마움 배웠어요"

남녀 중고생 83명 흙사랑 농촌봉사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땅을 일구며 노력하시는 농부들의 고마움도 알게 됐구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가 연 제11회 흙사랑 농촌봉사활동에 참가한 안재성(부산 남산고2) 학생의 말이다. 흙, 환경, 자연, 마음 나누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농촌봉사 활동에는 5년 연속 참가한 안재성 학생을 비롯, 83명의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함께했다.

학생들의 숙소인 범어사 설법전 지하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환경신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한 이 신문은 청소년들이 조별 토론을 통해 내용을 직접 정하고 만든 것이다.

첫날 찻길의 흙과 인적이 드문 숲속의 흙을 비교한 후 흙의 소중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둘째날 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노래가사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쏟아냈다.

셋째날 학생들은 범어사 농막에서 일일 농부로 나섰다. 고무신을 신고 호미를 든 청소년들은 고추밭의 잡초를 뽑아내고 비닐을 걷어내며 비지땀을 흘렸다. 천미희 기자



◇학생들이 일일 농부로 나서 고추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팔공산 '동봉' '서봉' 옛이름 되찾는다

'미타봉' '장군봉'으로

팔공산 동봉이 불교적 옛 이름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대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팔공산 동봉을 본래 명칭인 '미타봉'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팔공산 서봉도 신라 김유신 장군을 지칭하는 옛 이름 '장군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 환경녹지국 안은영 씨는 "종교계, 학계의 구체적 자문을 통해 '공공용물 명칭 재개정위원회'를 소집한 뒤 명칭변경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3일만에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고 이중 90% 이상이 봉우리 명칭을 옛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박원구 기자

청소년 참선교실 열어 9일부터 매주 토요일

부산불교교육원이 방학을 맞아 청소년 참선교실을 연다.

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4회 진행하는 이번 참선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정해룡 사무국장은 "참선교실을 통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북한 이탈자인 신랑 오모 씨와 김모 씨가 폐백시 정련스님에게 절을 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눈물의 결혼식

"고향분들도 함께 했으면…"

정련 스님 주례, 자원봉사자 준비 도맡아
60여 하객들 분단의 아픔에 눈시울 붉혀

지난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몰운대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결혼식이 열렸다.

7월 26일 몰운대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지난해 북한을 이탈한 신랑 오모 씨(25)와 신부 김모 씨(29).

이날 결혼식은 교계 복지관의 각별한 정성과 배려로 마련됐다. 복지관 관장인 정련스님은 주례를, 예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복지관 식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았다. 예식장을 꾸미기 위해 교계 복지관 몇 곳을 돌며 필요한 물품을 대여했고, 피로연 음식준비도 직접 했다.

정련스님은 주례사를 통해 믿음을 강조하며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 나가라"고 당부했다. 특히 복지관 직원들이 2주일간 연습한 '프로포즈'라는 축가가 예식장에 울려퍼지자 신부와 60여명의 하객들은 분단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폐백을 올리는 시간. 같은 북한 이탈자로 양부모를 자청한 최모 씨 부부에 이어 정련스님이 절을 받았다. 스님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약속했다.

신랑 오모 씨는 "오늘 결혼식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도 "고향의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생각이 많이 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재 학원을 다니며 이 · 미용 기술을 함께 배우고 있는 신혼부부의 꿈은 미용실을 여는 것. 이들은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꿈을 이루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된다.

정련스님은 "북한 이탈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불교계의 관심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안타깝다. 앞으로 교계가 북한 이탈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몰운대복지관은 '북한이탈 주민 지원 안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펴내 이날 참석한 북한 이탈자들에게 제공했다.

천미희 기자

총체 음악극 '에밀레 천년의 소리' 공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8월 13일~10월 23일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제작 설화 속에 깃든 역사의 현장이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총체음악극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엑스포 전시장 내 백결공연장에서 '에밀레-천년의 소리'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특유의 맑은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다해 일명 에밀레종이라 불리우는 성덕대왕 신종에 얽혀있는 역사적 설화를 우리 전통음악인 판소리, 정가와 함께 현대음악 합창, 라이브 등이 한데 어울리는 총체음악극으로 표현한다.

오전 11시,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기존의 에밀레 설화에 신라향가 도솔가의 모티브를 더해 불교의 윤회사상과 충효사상 등 신라인들의 시대정신을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박원구 기자

멸종위기 희귀 가시연꽃 군락 건천읍 佛池 유료낚시터 전락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의 연꽃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 건천읍의 세계적 희귀식물 가시연꽃 대규모 군락지가 낚시터로 전락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근처에 목 없는 비로자나 불상이 발견되는 등 신라시대부터 존속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시 건천읍 불지(佛池)는 1000여 평 규모로 세계적인 희귀식물 가시연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낚시터로 전락돼 가시연꽃의 멸종을 막기 위한 각종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낚시에 사용되는 각종 떡밥과 오물 등이 수생생태계에 악영향을 불러와 결국에는 가시연꽃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용으로 알려진 가시연꽃의 무분별한 남획도 문제"라며 "관계당국에서 이 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련과에 속하는 가시연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1속 1종 밖에 없는 1년생 대형 수생식물로 최근 산림청에 의해 멸종위기 1순위 식물로 지정됐다. 박원구 기자

대구 U대회 성공기원 달마도展 등 문화행사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달마도 전시회와 영산재가 잇달아 열린다.

선서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종췰)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대구국채보상공원에 마련된 250여미터 길이의 터널형 야외전시실에서 달마도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U대회 개최년도(2003년)와 참가국(170개국)을 합한 2,173점의 달마도가 선보였다.

한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주최로 17일 대구월드컵경기장 서편광장 특설무대에서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이 '임의 소식' 등 선법가를 부르고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

선법가 · 동요 등 첫 발표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은 7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첫 선법가 발표회를 가졌다.

부산 유일의 남성합창단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의 첫 단독 선법가 발표회였던 이날 공연은 남성합창단 활성화와 부산지원 불사 원만회향의 서원을 노래에 담아 부른 무대였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스님, 부산지원장 혜도스님 등이 참석한 공연은 1, 2부로 나눠 고미년씨의 지휘와 김연주씨의 반주로 진행됐다.

특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머니합창단은 민요메들리로 흥겨움을 더했고, 부산지원 청년회는 율동이 어우러진 발랄한 무대로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5-7555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병든 이웃 고통나누기 20년

산청 은혜사 혜전스님의 원력행



7월3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경남 산청 은혜사 주지 혜전스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용래(산청 덕산중 3년)를 넋 나간 사람처럼 바라본다. 평소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활짝 웃곤 했던 용래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다. 용래의 아버지 이태조 거사는 은혜사에서 일하는 가족같은 사람이다.

이용래 군은 지난해부터 재생불량성 빈혈로 치료를 받아오다 두 달 전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병세도 문제이지만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얼마 전 혜전스님이 사재를 털어 병원비를 내놓자 신도들도 용래를 돕자며 모금을 했다. 하지만 신도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생각다 못한 혜전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송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추진하는 등 백방으로 용래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지금은 산청읍내 각급 기관과 연계하거나 읍내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모색 중이다.

91년 '지장계' 구성 봉사활동
백혈병학생 돕기 동분서주
수술비 막막, 각기관 연계 모색

혜전스님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혜전스님은 20여 년 전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이다. 현재는 의족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다리를 절단하면서부터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소쩍새마을, 연꽃마을, 나환자촌, 각 지역 복지원 등 20년이 넘게 복지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후원을 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혜전스님은 91년 신도들로 구성된 '지장계'를 만들어 불우이웃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0여명의 지장계 회원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지역 불우이웃이나 소쩍새마을, 충주 진여원 등을 방문,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펼쳐왔다.

지장계 박정희 총무는 "스님께서 저렇게 나서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모금도 다시 하고 용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래의 병실을 나선 혜전스님은 "여기저기 더 도움을 청해봐야겠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후 원 계 좌 :농 협 835013-52-045094(이태조), (055)973-186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미륵사지 주변 난개발 규제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예정

전북 익산시는 국가사적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주변 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 개발 계획에 어긋나는 건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7월 30일 밝혔다.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되는 면적은 미륵사지 앞 14만8천여㎡로, 앞으로 이 구역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립할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과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께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 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미륵사지 주변을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농림 또는 준농림 지역인 미륵사지 주변은 건축행위 등에 큰 제약이 없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1만여 명의 등산객이 미륵산으로 몰려 미륵사지 주변에 음식점과 상가 30여 곳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박봉영 기자

화란, 국방장관·대사일행
백련사서 한국불교 체험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대사 등 일행 20여명이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에서 참선을 비롯한 한국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네덜란드인 하멜 표루 3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한한 카프 네덜란드 국방장관 부부와 하인드 브리스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은 7월 28일부터 1박 2일간 백련사에서 아침예불과 참선을 직접 경험했다.

주지 혜일스님은 "3개월에서 10년까지 외부출입을 삼간 채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무문관을 소개하자 동양의 선불교에 감동하는 것 같았다"며 "특히 카프 국방장관의 부인 델링 여사는 중국 유학경험을 얘기하며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광주 증심사 대웅전
장마로 처마 일부 훼손



광주 증심사(광주시 문화재자료 1호) 대웅전(사진)의 처마 일부가 장맛비에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1일 남부지방에 계속 내린 장맛비로 대웅전 뒤쪽 처마 부분의 부연(처마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여 멋을 내기 위해 덧얹은 짧은 서까래) 한두 칸이 부러지면서 지붕 기와가 흘러내리는 등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광주시로부터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훼손 부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우장막을 씌우고 처마 일부분에 지주를 받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대웅전 처마의 추녀 부분이 내려앉는 등 건물 구조상의 문제점도 노출돼 3억5천만 원을 보수비로 지원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이 있었다"며 "1일 현재 장마로 인한 다른 사찰문화재의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신나고 잼있는 우리절 짱'
당진 흥국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친누나 친오빠의 손을 잡고 부처님을 그리고 율동을 배우며 오색실에 염주 알을 꿰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당진 흥국사(주지 법공) 경내에서 '제20주년 흥국사 여름불교학교'가 열린 것.

'신나고 잼 있는 우리절 짱!'을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여름불교학교에는 6세부터 12세까지 130여 명의 새싹불자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흥국사 여름불교학교의 분위기는 여느 사찰의 것과는 다르다.

친누나 친오빠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동생을 보살핀다는 게 도드라진 특징이다. 중·고등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여름불교학교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도우미들 역시 초창기 흥국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 불교의 참맛을 본 이들이다.

"농어촌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싹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법공 스님은 "신평면 일대(충남 당진군 소재)에서 어린이들의 발심터가 될 수 있도록 흥국사를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우리 식구 먼저 포교해야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천사 전무량 보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으면서도 시골 고향 같은 편안함을 주는 절.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약천사(주지 자운스님)는 그런 곳이다. 입지조건·거리가 멀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10여분 거리의 한 상가건물에 들어서 있는 약천사는 큼지막한 약국, 호프집 간판 덕분에 깜박 한눈이라도 팔라치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음력 초하루인 지난 7월 29일. 법회를 마칠 때쯤 약천사를 찾았다. "○○엄마, 자리 없음 이리 와서 같이 먹어." "그래도 어떻게 스님이랑 겸상을…." "뭐, 어때요.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시골장터 같은 부대낌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 첫 방문인데도 왠지 편안한 이유다.

4년 전, 상계5동 동사무소 뒤편 단칸방(?)에서 시작한 도심 포교당 약천사가 이 곳으로 옮겨온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러 오는 신자가 아직 30~4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겨울 찬바람 맞으며 절해야 했을 때부터 같이 온 신도들이라 '신심' 하나는 어느 절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지 자운 스님의 자랑거리다.

전무량(62) 보살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서울 시내의 여러 큰 절들은 다 '다녀봤다'는 무량 보살은 자운 스님을 만난 이후, 법회 때 다른 일이 있어 참석 못 하면 아침 일찍 미리 들러 기도하고 갈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가 됐다. "신도 늘리고 그런데는 관심 없고, 그저 없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너무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스님과 한 번 인연 맺은 신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절이 큰 것 같아요."

욕심없는 스님이 좋아 온 가족이 신도
전세 벗어나 여법한 도량 갖추는것 서원



◇전무량 보살(사진 오른쪽)이 초하루 법회를 앞두고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7남매 중 맏이인 무량 보살 덕분에 친정,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약천사 신도가 됐다. "가까운 우리 식구들 먼저 포교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절에 오라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반문이다.

그래도 묻어 둔 서원 하나가 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약천사가 이런 상가건물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여법한 도량으로 커 나갔으면 해요. 성불하십시오."

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자운스님 서울 약천사 주지

전무량 보살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불자입니다. 절은 물론 동네 대소사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에요. 법회 마치고 남는 음식이 있으면 스님이랑 겸상을…." "뭐, 어때요.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시골장터 같은 부대낌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 첫 방문인데도 왠지 편안한 이유다.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가져다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도 앞장서시구요. 그리고 처음 포교당을 낼 때부터 함께 한 신도라 저보다 절 일을 더 걱정하십니다. 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이제 시작"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줍니다.



대구불교방송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 포항 FM105.5 안동 FM97.7 로 개설허가 –

대구불교방송은 정보통신부와 경북체신청으로 부터 "불교포항 FM중계소·불교안동 FM중계소"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포항 FM 105.5MHz 안동FM97.7MHz로 오는 10월 시험방송을 거쳐 11월 중순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과 송신 출력의 한계로 전파도달이 어려웠던 55만 인구의 공업도시 포항과 영덕, 경주 일부, 그리고 경북 북부지방의 중심 안동을 비롯 영주, 문경, 의성, 봉화 등 경북 동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 부처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대구불교방송 후원가족 그리고 애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포항·안동 중계소 설립 후원 ARS전화
060-701-0408 (한통화당 2,000원)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94.5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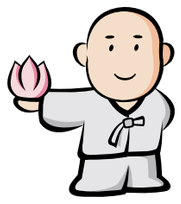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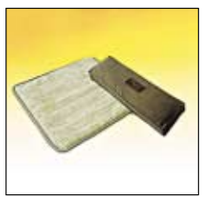
추석 받고싶은 마음... 주고싶은 마음...

★행사내용 : 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 회원에게 무이자할부 2~3개월
★ 행사기간 : 2003년 8월 1일 ~ 8월 31일 (3만원이상 주문시 택배 무료 발송)

주문전화 02)732-1520

추천 상품





희담석 방석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이즈 : 38.5cm X 35.5cm
■ 색 상 : 연카키색, 살구색
■ 상품가 : 198,000원



모기기피.방향제세트

■ 상품구성 : 방향제 6pcs + 향초 2pcs + 스프레이(100ml) 1pcs
■ 상품가 : 39,800원



천연향-구례소리세트(B)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들어 낸 천연향 구례소리세트는 은한 녹차의 내음을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 구 성 : 세트 B = (구례소리 아침 1 + 녹차향엽 2 + 여행용 향엽샘플 2 + 향꽃이 1) 50,000원



옥구이판

비닐가장을 제공하므로 야외용으로 산과 바다 계곡 어디라도 휴대할 수 있고, 세제가 없이도 물에다 불린 다음 수세미로 닦으면 아주 깨끗합니다.
■ 사이즈 : 30cm * 35cm
■ 상품가 : 25,000원



연꽃보드(걸이형)

콜크판 위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보드입니다.
사무실 입구나, 우리집 현관주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보드입니다.
■ 재 질 : 콜크, 원목, 아크릴물감
■ 상품가 : 18,000원



숲단주

검은 보석같은 고강도 숯을 한알한알 깍아서 만든 단주입니다.
또한 숯은 체내에 침투하는 사기나 유해물질을 정화시킵니다.
■ 사이즈 : 8mm
■ 상품가 : 45,000원



도자기연꽃

■ 제품 재질 : 도자기
■ 사이즈 : 14cm(높이) X 13cm(넓이)
■ 상품가 : 33,000원



흑단목목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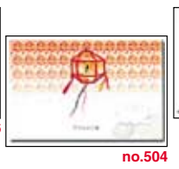
■ 제품 재질 : 도자기
■ 사이즈 : 14cm(높이) X 13cm(넓이)
■ 상품가 : 33,000원



가정용 촛대 (모델명 : 6039)

■ 재 질 : 놋쇠 8cm(넓이) X 7cm(높이) X 7cm(밑넓이)
■ 1 set(촛대 2개) = 30,000원


no.436


no.504


no.620


no.621


no.622

카드세트

추석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10장 1세트(봉투포함)
■ 상품가 : 6,000원
■ 20세트(200장)이상 구입시 단체명 인쇄가능


1


2

도자기 인형

도예가의 순수 수공예작품으로서 천진난만한 동자스님들을 소재로 하여 정감이 가도록 표현한 도자기 인형입니다.
1. 스님과 소 ■ 상품가 : 55,000원
2. 목탁스님 ■ 상품가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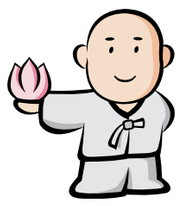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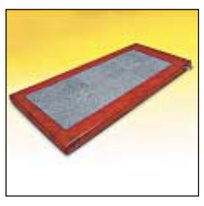

2

동자인형시리즈

1. 동자인형-가사
■ 상품가 : 5,000원
2. 동자인형-천수경
■ 상품가 : 8,000원

효도 선물





스님용 희담석 보료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 보료사이즈 : 900mm x 1,800mm x 100mm
■ 상품가 : 2,800,000원



건강지압봉(은행나무봉)

건강봉은 물리치료,운동치료,기치료 전문인들이 오랜 경험과 인체공학적 고찰을 통해 개발한 현대인의 건강 필수품입니다.
■ 3종세트(1호봉, 2호봉, 3호봉)
■ 상품가 : 16,000원



원적외선 건강양말세트

■ 제품구성 : 1세트 6컬레 (검정색3,회색1,진회색1, 올리브색1)
■ 상품가 : 59,800원

Silver 건강팔지 Hot



"홈앤"실제 주인공 차인수가 추천하는 Silver 패션
건강 팔찌! - 성공과 건강, 행운의 3대복을 누리세요.
- 고급 명품스타일 디자인
- 은볼에 자력을 넣어 자력 효과를 줌
- 자력 효과 : 사람의 혈액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에는 철 성분이 있어 자력을 띤 제품을 몸에 끼고 있으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됨.
- 자기 결핍 증후군 : 신경통, 어깨결림, 습관성 변비,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 안쪽의 은볼돌기로 지압 효과를 얻을수 있음
- 로듐 도금처리 : 로듐 도금 처리로 변질 및 알러지 방지
- 현재 미국 판매중(2003 뉴욕쇼 출품 作)
- 디자인고시 상품(디자인고시 No. 연합-02-038)
- 기본재료 92.5% silver사용(실버자체 항균/해독작용 응용)
- 상품가 : 99,000원



심장을 돕는 숯 목걸이

숯의 보석 비장탄이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의 발생 그리고 탄소덩어리인 숯에서 유도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상품가 : 19,800원



녹차향엽-목욕용 녹차향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든 목욕용 녹차향
■ 구성 : 18개 원료와 함량 : 국내산 녹차 100%
■ 상품가 : 15,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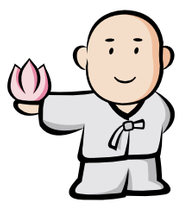
〈희담석 다기〉는 최고의 장인이 희담석 가루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만든 다기로서, 차의 맛을 좋게 함은 물론 차를 마시면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1인 다기 세트 : 1인 다기 2개
■ 상품가 : 80,000원



장수호두약돌

■ 당뇨와 풍등 손발이 차신분들에게 효과
■ 사이즈 : 30~35mm
■ 상품가 : 38,000원(大), 33,000원(小)

녹 차 다구전





백련차-우전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와 도융이 쓴「고반여사」에 의한 제다법을 근거로 하여 전통수제방법으로 손수 제조
■ 상품가 : 100,000원(100g), 50,000원(50g)



백련차-세작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와 도융이 쓴「고반여사」에 의한 제다법을 근거로 하여 전통수제방법으로 손수 제조
■ 상품가 : 60,000원(100g), 30,000원(50g)



백련차-중작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와 도융이 쓴「고반여사」에 의한 제다법을 근거로 하여 전통수제방법으로 손수 제조
■ 상품가 : 40,000원(100g), 20,000원(50g)



백련잎차

백련잎차는 하소백련지에서 자란 귀하디 귀한 백련의 잎과 화방을 엄선하여 다련원만의 독특한 제다방법으로 만든 차
■ 중 량 : 100g
■ 상품가 : 10,000원



3인다기세트

■ 구 성 : 다관, 다관뚜껑, 숙우(물식힘사발), 다기잔 3개
■ 상품가 : 39,800원



5인다기세트

■ 구 성 : 다관, 다관뚜껑, 숙우(물식힘사발), 다기잔 5개
■ 상품가 : 45,000원



분청다기 세트

청자,백자보다 단열보온성이 우수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다기가 숨을 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가 : 98,000원



청자국화문다기

은은한 빛깔과 국화 문양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어 소중하신 분과 함께 차를 하시기에 좋은 커플용 다기세트
■ 상품가 : 30,000원



공방인화문5인다기

흙이 주는 소박한 질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생활자기. 도공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순박함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 상품가 : 75,00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2-1520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통신80명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법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6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삼 화 불 교 대 학**

남경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6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 3 5 - 8 8 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도시락에 사랑 담아 드려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이웃과 밥 한그릇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 '좋은 모임' 자원봉사자들. 제일 오른쪽이 김남숙 회장.

한 끼 밥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1997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이사장으로, 경기 북부 지역 사찰 70여 곳의 재가불자들이 모여 발족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좋은 모임)'. 김장나누기와 주택수리, 무료진료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온 좋은 모임은 99년부터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00여 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09:00

경기도 의정부역 앞 상가에 자리 잡은 '좋은 모임' 사무실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사람은 김남숙(54) 팀장. 전날 수원까지 기증물품을 받으러 다녀온 탓에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하루 고생한 덕분에 사무실에는 비누며 세제, 칫솔, 즉석국 등의 생활용품들이 가득 쌓여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머리로는 물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김 팀장은 척척 계산해 낸다.

7년 전, 자영업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김 팀장은 보증 한 번 잘못 선 덕분에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학생이던 아이들과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는 좋은 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할 시기에 무슨 자원봉사냐'며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물론, 김 팀장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사장 정암 스님이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저만큼 멀리 도망간다"며 "당분간 마음을 비우고 좋은 모임 활동을 해 보라"고 권했다.

주위의 손가락질과 '푸드뱅크가 무슨 은행이냐?', '당신이 먹으려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물품 기탁자들의 오해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엄마의 일을 이해해주는 자녀들과 틈틈이 읽고 마음에 새긴 부처님 말씀 덕분이었다. "내 복을 쌓기 위해서 혹은 남을 돕는다는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껏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09:30

자원봉사자들이 한두 명씩 사무실에 도착하자, 도시락 만들기가 시작된다. 계란지단이 노릇하게 익고 버섯이 기름지게 볶아지고, 20인용 밥솥 5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자원봉사자 이순옥(44) 씨는 4년을 하루같이 '밥 짓는 일'을 하고 있다. 13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운 이 씨. 그 모진 세월을 재봉틀 하나로 이겨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다. 수술 후 더 늦기 전에 뜻있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은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좋은 모임에 동참하게 됐다. 이 씨는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처지도 잘 이해하잖아요. 그 예전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만큼 이제 힘겹게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12:00

도시락 싸는 일이 끝나자 송대현(44) 씨가 200여 개가 넘는 빵을 가지고 왔다. 오전 내내 의정부 시내 빵집을 돌며 받아온 빵을 여러 봉지에 나눠 담은 후 복지시설에 전화를 한다, "좋은 모임입니다. 빵 가져가세요!"

'봉사활동 5년차'인 송 씨는 식당과 가게, 학교급식소 등을 돌며 음식을 받아 오는 일을 하고 있다. 완성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송 씨의 몫. "언론에 기사가 나가도 후원하겠다는 사람보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전화가 더 많이 온다"는 송 씨는 "아무리 바빠도 좋으니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쉰다. 옆에 있던 김 팀장도 "지금 들어오는 후원금으로는 차량 유지비와 가스비, 전기비 대기도 빠듯하다"고 거든다.

의정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경기 지역사찰 70여곳 모여 발족
푸드뱅크 운영하며 도시락 배달

13:30

점심 식사를 마친 봉사자들이 도시락 바구니를 챙겨든다. 오늘은 도시락과 함께 '선물세트'가 준비됐다. 전날 협찬 받은 생필품들을 종류별로 담아놓은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특별 선물'을 드려요. 초복에는 삼계탕,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활용품세트, 동지에는 팥죽 등이죠. 어르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판자촌이 나타난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무 그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이들을 맞이한다. "더운데 고생이 많아. 잘 먹을게."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제 배달한 도시락을 수거하는 일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15:00

사무실로 돌아와 시원한 물 한 컵으로 목을 축이고 서너 평 남짓한 주방에 모여 앉는다. 수거해 온 도시락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 할아버지 댁 청소 한 번 해드려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더라." "○○ 할머니는 입원하셨대요. 한 번 찾아가 봐야 할텐데…."

매일 같이 어르신들 댁으로 찾아가는 봉사자들은 그 분들의 집안 사정, 건강상태를 훤하게 꿰고 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할머니의 대 · 소변을 치우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는 보호자 노릇도 해야 한다.

봉사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어제는 뭐 하셨어요?"하고 묻자 "밥 지었죠. 밥 안먹는 날도 있나요?"하며 웃는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매일 7~8시간씩 일하면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이 나이에 남을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참, 기자 아가씨. 굶는 어르신들 위해서 집이나 사찰에서 남는 쌀 좀 보내달라고 꼭 써줘요.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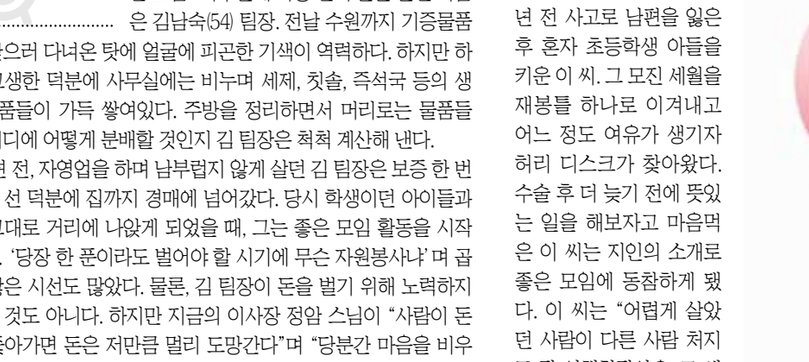
후원계좌: 국민은행 204-01-0766-273(예금주: 좋은 모임) (031)848-6114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신개발 玉 佛 (옥불)

천연 옥을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9인치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정심원 옥불의 좋은 점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차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 법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6. 동불이나 특수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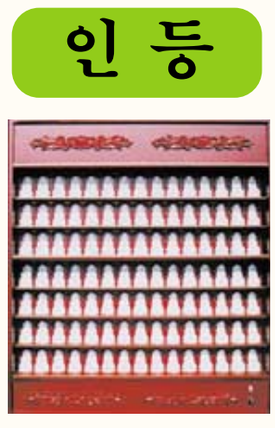
孝 · 정성 · 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916-0310 핸드폰 011-724-0455

릴레이 수행일기 〈上〉



이미자

서울 하계중 교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고교동창생 순옥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교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지난 1학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위장병까지 얻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내가 하고 있는 위빠사나를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만에 사은회를 하면서 다시 만났고, 더불어 소규모로 동창모임을 만들어서 매년 1월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만사를 제쳐두고 만나고 있다.

그 모임의 첫 만남에서 중학교 영어교사인 인숙이는 작은 소책자를 누워있는 우리들 머리맡에 한 권씩 놓아두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위빠사나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은 남편에 의해 찢어 없어진 그 책의 표지에는 '수행방법'이라는 제목이,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는 '위빠사나'라는 생소한 단어가 들어있었다. 빨려들 듯 그 책을 단숨에 읽어버린 나는 인터넷을 이 잡듯 뒤졌고, 바로 전 해에 태국 여행길에서 보았던 붉은 가사를 연상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는 비로소 근본불교를 처음 만난 것이다.

드디어는 선원을 찾았다. 그러한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릴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늘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길은 거의 교회를 향해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일요일을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이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달던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도 불교와 관련되는 책만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들해졌다.

〈우담바라〉 책 통해 또다른 불교 접해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에 출가 계획도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어떤 수행법을 고를까?

국내 위빠사나 다양·전문화

남방불교의 위빠사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1987년. 거해 스님의 안내로 미얀마의 우빤디타 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1904~1982) 스님이 체계화한 위빠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하면서부터다. 위빠사나는 아직 보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동남아에서 비구계를 받거나 수행법을 익히고 돌아온 스님과 불자들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잇달아 개설, 현재 수행기관만 20여 곳에 이른다. 최근 보리수선원, 여래선원, 연방죽선원, 천안 호두마을, 김해 다보선원 등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정진한 불자는 2만여명. 매주 한 차례 이상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수행자만도 1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빠사나 선원은 대부분 마하시 전통의 위빠사나를 도입해 다양한 위빠사나 행법을 접할 통로가 차단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마하시 전통은 지도하기 쉽고 단기간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칭 붙이기' 등으로 인한 상기병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2~3년전부터 미얀마 순륜 스님의 감각 관찰 위빠사나, 쉐우민 스님의 마음관찰 위빠사나, 태국의 아짠담마다로의 기공 위빠사나, 아짠문의 만트라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을 현지에서 배워오는 수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위빠사나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행법을 소개한다.



◇고엔카 위빠사나에 중관 · 화엄사상을 가미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명상 관법' 정진 모습.

▧ 마하시 위빠사나

배 움직임 관찰, 경행 병행

마하시 선사가 가르친 수행법은 좌선시에 배의 움직임을 주로 관찰하고 걷는 수행인 경행을 병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진실을 보게 되며 정신과 육체의 자연적인 과정을 수행자 스스로 체험하도록 이끄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좌선할 때 호흡에 동반되어 생기는 복부의 움직임을 일차적인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는다.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배가 꺼지면 '내려감' 하고 명칭을 붙이며 대상의 생겨남과 지속함과 소멸하는 과정 전부를 철저히 주시하는 것이다.

2~3년 사이 선원, 명상센터 늘어

현재 수행기관만 20여곳

서울 보리수선원(02-517-2841), 천안 호두마을(041-567-2841)이 대표적인 수행처다.

▧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평등심 유지, 욕망·성냄 제거

이 수행은 미얀마의 쉐우민 위빠사나 센터(Shwe Oomin Dhamma Sukha Tawya)에서 가르치는 '마음 관찰' 위주의 수행법이다. 모든 행동과 좌선시에 가슴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주로 관찰한다. 특히 무엇을 하든 평등심을 유지하면서 욕망과 성냄을 제거하게 한다.

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산불교대학 등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묘원 법사(vipassana.buddhism.org)는 신(身, 몸의 움직임), 수(受, 감각), 심(心, 마음의 움직임), 법(法, 생각의 대상) 등 사념처(四念處) 수행을 차례대로 지도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으로 나아가게 한다. "마음은 직관으로 보아야만 보인다"고 강조하는 묘원 법사는 수행자가 보는(아는) 마음을 '있는 마음', '일어난 마음', '일어날 마음'으로 구분하고 알아차릴 것을 주문한다.

▧ 고엔카 위빠사나

호흡관후 감각 관찰

인도의 고엔카 법사는 미얀마의 레디 사야도(1846~1923) 계통의 수행법을 전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입출식념(入出息念)을 수행하며, 이에 의해서 마음의 집중을 얻은 후에 감각(vedan)을 관찰하도록 한다. 즉 신, 수, 심, 법 사념처를 다 닦지 않고, 신념처의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入出息念)을 준비수행으로 닦은 뒤, '감각에 대한 관찰'(受念處)을 본 수행으로 닦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을 관찰하여 고(苦)의 원인인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고를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게 목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www.sgsb.ac.kr) 황용식 교수(명상치료학)와 '한국 비파사나센터 준비위원회'(cafe.daum.net/dhammakorea)가 정기 집중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 대승 관법

동체대비의 보살행 지향

남방 위빠사나에 대승불교의 관법을 가미한 대승 위빠사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면 사라진다〉(정신세계사)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길〉(선재) 등의 저서로 국내 위빠사나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열권 법사는 4념처 위빠사나에 용수보살의 중도관(中道觀), 원효스님의 자성(自性) 진여관, 천태지자 대사의 지관(止觀), 세친스님의 유식관(唯識觀) 등을 접맥시켜 지도하고 있다. 한국 위빠사나의 원형을 원효사상에서 찾는 김 법사는 "남방 위빠사나가 아비달마의 아공법유(我空法有)와 업감 연기에 근거해 일신의 열반에 머무는데 반해, 원효의 대승 관법은 일심의 진여에 의지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금강심지(金剛心地)에 머물면서 동체대비의 보살행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꾸준한 법회참석 1천여명

현지에서 배워온 수행자 급증

위빠사나가 아비달마의 아공법유(我空法有)와 업감 연기에 근거해 일신의 열반에 머무는데 반해, 원효의 대승 관법은 일심의 진여에 의지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금강심지(金剛心地)에 머물면서 동체대비의 보살행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아나파나사티 수행

들숨날숨 통해 마음챙김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입출식념) 즉, 호흡관은 모든 남-북방 불교 수행법의 기본이다.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sati)이라는 뜻으로, 한문으로는 '入出息念'이라 한다. 한역으로는 '안반수의(安般守意)'라고 번역되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는 특별한 기교나 방법은 없고,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챙김을 개발토록 한다. 서울 연방죽선원(02-334-1763)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김재경 기자

"수행 현지에서 배운다"

여래선원, 미얀마에 천축사 건립

비구, 비구니 스님 각9명씩 방부

미얀마에 한국 사찰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대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 www.buddhapia.cc)은 최근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재가신도의 보시로 양곤 시내 숲속에 천축사(8,617평)와 붓다피아 월드(2,781평, 재가자 수행처)를 설립하고 올 동안거부터 수행할 조계종 비구스님(9명)과 재가자(15명)의 방부를 받고 있다.

여래선원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왕복 항공료와 의식주 등 일체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가자들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자비로 부담하되, 정진 중의 모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구니 선방이 완공되는 내년부터는 비구니 스님도 방부를 받아 조계종 비구 · 비구니 스님 각 9명씩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위빠사나 선사와 원시경전 교수사(6명)는 미얀마 국립승가대학과 종교성의 지원으로 최고 권위자들만을 엄선, 매주 4시간 이상씩의 경전강의와 수행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산(빨리어 법명, Buddhapiya) 스님은 "언어나 음식 때문에 불편을 느껴 아직 정진을 미루고 있는 조계종 종도들이 결제할 수 있는 근본불교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일타 스님의 제자로 20여년간 위빠사나 수행을 해 왔으며, 6년전부터 천축사 건립불사를 발원해 왔다. (053)744-9009

김재경 기자



◇미얀마 양곤에 설립된 천축사 전경. 얼굴사진은 법산스님.

SALE

여시아문 개점 9주년!

※ 행사기간 : 2003년 8월 10일 ~ 9월 7일까지 ※ 한정수량이므로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서할인판매 20~40%

	도 서 명	저 자	정 가	할인가
	민족사			
1	중국선종의성립사연구	정성본	30,000	21,000
2	한국승전문학의연구	김승호	8,500	6,800
3	인도의이원론과불교	정승석	8,000	6,400
4	무아.윤회문제연구(1)	윤호진	9,000	7,200
5	신라초기불교사연구	신종원	15,000	10,500
6	의상화엄사상사연구	전해주	8,500	6,800
7	불교사상사론	김영태	25,000	17,500
8	대승기신론사상연구	박태원	8,500	6,800
9	한국불교고전명저의세계	김영태	14,000	9,800
10	신라불교사상사연구	김영미	14,000	9,800
11	진정국사와호산록	허흥식	15,000	10,500
12	삼국사기전거론	이강림	15,000	10,500
13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이평래	15,000	10,500
14	한국근대불교사연구	김광식	19,000	13,300
15	원효의화쟁논리	사토시게키	23,000	16,100
16	고려사원의구조와기능	한기문	27,000	18,900
17	한국불교사상의전개	한종만	18,000	12,600
18	화엄경사상연구	이도업	28,000	19,600
19	한국근대불교의현실인식	김광식	15,000	10,500
20	도선연구	김지관	18,000	12,600
21	고려말나옹의선사상연구	김효환	12,000	8,400
22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	최원식	13,000	9,100
23	원효연구	김상현	17,000	11,900
24	중론연구	박인성	18,000	12,600
25	근현대불교의재조명	김광식	25,000	17,500
26	주자의선불교비판연구	윤혜정	20,000	14,000
27	신라표원의화엄학	황규찬	20,000	14,000
28	인도철학과불교의실천사상	정태혁	35,000	24,500
29	불전해설사전	정승석	17,000	11,900
30	산스끄리트기기초와실천	스가누마아키라	7,500	6,000
31	티베트어의기초와실천	허일범	4,500	3,600
32	금강경전서	무비스님	25,000	17,500
33	일본불교사	이영자	6,500	5,200
34	티베트불교사	안영길	5,500	4,400
35	중국불교사상사	카무라키요타카	6,000	4,800
36	초기부파불교의역사	허일범	6,000	4,800
37	선의사상과역사	무비스님	6,000	4,800
38	천태법화의사상	이영자	5,500	4,400

	도 서 명	저 자	정 가	할인가
39	인도불교철학	안영길	5,000	4,000
40	중국불교의사상	카무라키요타카	5,500	4,400
41	초기대승불교의종교생활	히라가와이키라	6,500	5,200
42	인식과초월(유식의철학)	핫토리마사아키	5,500	4,400
43	중국불교(상)	KS.케네스첸	5,500	4,400
44	중국불교(하)	KS.케네스첸	6,000	4,800
45	밀교의역사와문화	요리토미토히	5,500	4,400
46	소승불교와대승불교	히로사치야	6,000	4,800
47	딴뜨라불교입문	S.B다스굽따	5,000	4,000
48	불교철학개론	팡리티엔	5,500	4,400
49	불교사상과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	6,500	5,200
50	달마	야나기다세이잔	5,500	4,400
51	붓다와그가르침	B.R 암베드카르	7,000	5,600
52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9,500	7,600
53	중국불교학강의	여징	8,500	6,800
54	붓다마르크스그리고하느님	트레버링	5,000	4,000
55	중국문학과선	진충길	6,000	4,800
56	불교의서구적모색	유다유타가	4,000	3,200
57	인도의선중국의선	아베쵸이치외	6,000	4,800
58	유식삼십송	박인성	20,000	14,000
59	인도불교사상사	에드워드콘즈	5,500	4,400
	장경각			
60	선림보전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61	산방야화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62	동어서화	백련선서간행회	3,500	2,800
63	치문승행록	백련선서간행회	3,500	2,800
64	선림보훈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65	임간록 상	백련선서간행회	4,000	3,200
67	임간록 하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68	오가정종찬 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69	오가정종찬 하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70	마조록.백장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71	위앙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2	조동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3	운문록(상)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4	운문록(하)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75	양기록.황룡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6	설봉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77	현사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도 서 명	저 자	정 가	할인가
78	태고록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79	나옹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80	인천보감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1	나호야록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2	종문무고	백련선서간행회	4,000	3,200
83	총림성사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4	운와기담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5	고애만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6	산암잡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7	원오심요(상)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9	원오심요(하)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90	종용록(상)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91	종용록(중)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92	종용록(하)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93	벽암록(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4	벽암록(중)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5	벽암록(하)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6	백일법문(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500
97	백일법문(하)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98	선문정로평석	성철스님	6,000	4,800
99	돈오입도요문론강설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100	신심명증도가강설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101	영원한자유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102	자기를바로봅시다	여무의	8,000	6,400
103	돈황본육조단경	성철스님	6,000	4,800
104	선문정로	성철스님	4,000	3,200
105	본지풍광	성철스님	7,000	5,600
106	한국불교의법맥	성철스님	5,500	4,400
107	선과문학	신규탁	4,500	3,600
108	나가르주나	깔루빠하나	10,000	7,000
109	간화선	원융스님	6,000	4,800
110	마음을바로봅시다	원순스님	20,000	14,000
111	선림승보전(상)	원철스님	18,000	12,600
112	선림승보전(하)	원철스님	18,000	12,600
113	일본의한국불교연구동향	불교학연구회	16,000	11,200
114	조사선의실천과사상	김태완	18,000	12,600
115	산하대지가참빛이다	양형진	8,000	6,400
116	한국유식사상사	이만식	25,000	17,500
	불광출판사			
117	무소의뿔처럼(상)	김재영	6,500	5,200
118	무소의뿔처럼(하)	김재영	6,500	5,200
119	광덕스님명상언어집(봄여름가을겨울)	광덕	20,000	14,000
120	달을보는섬	정운	3,500	2,450
121	그대그대 자신으로	정운	4,500	3,150
122	건강을이야기합시다	홍문화	5,000	3,500
123	홍문화박사의 간강장수법	홍문화	5,000	3,500
124	백사백경	박희건	7,500	5,250
125	내아픔의 연꽃이되어	김재영	3,500	2,450
126	하산 그다음이야기	권경숙	5,000	3,500
127	친구여 우리붓다가 되자	김호철	6,500	4,550

	도 서 명	저 자	정 가	할인가
128	또다른 이름이 되어	정운	3,500	2,450
129	친구여,우리붓다가되자	김호철	6,500	5,200
130	광덕스님의생애와불광운동	김재영	12,000	8,400
131	고통을모으러다니는나그네	법장스님	8,000	6,400
132	화엄경백일법문	장산	20,000	14,000
133	보살사상성립사연구	이봉순	15,000	10,500
134	여든살의연꽃한송이	이남덕	8,000	6,400
135	사막을건너는사람은별을사랑해야한다	이재운	4,000	3,200
136	목불을태워사리나얻어볼까	이재운	4,500	3,600
	우리출판사			
137	아도화상 향은제몸을태워은세상향기롭네	윤청광	10,000	9,000
138	겸익스님 버리고사는마음그마음이부처일세	윤청광	10,000	9,000
139	원광법사 인생은한토막꿈이로다	윤청광	10,000	9,000
140	자장율사 백년도못사는데무얼그리탐내는가	윤청광	10,000	9,000
141	원효대사 걸림없이살계나물처럼바랑처럼	윤청광	10,000	9,000
142	의상대사 마음을비우시게온갖근심사라지네	윤청광	10,000	9,000
143	보덕스님 지혜의눈뜨면행복이열리거늘	윤청광	10,000	9,000
144	진각국사 부처되기쉽다네자비롭게살게나	윤청광	10,000	9,000
145	일현큰스님 그대몸안에있는여섯도둑부터잡으시게	윤청광	10,000	9,000
146	원감국사 극락도지옥도마음속에있다네	윤청광	10,000	9,000
147	경허큰스님 착한일많이하게그대가부처일세	윤청광	10,000	9,000
148	용성큰스님 작은솔씨가푸른소나무되네	윤청광	10,000	9,000
149	영호큰스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윤청광	10,000	9,000
150	만공큰스님 사랑하는사람못만나괴롭네	윤청광	10,000	9,000
151	한암큰스님 바구니에물을담고달려가누나	윤청광	10,000	9,000
	만암큰스님 마지막입는옷에주머니가없네	윤청광	10,000	9,000
152	효봉큰스님 그대어디서왔다가어디로가는가	윤청광	10,000	9,000
153	동산큰스님 벼슬도재물도existing에이슬일세	윤청광	10,000	9,000
154	운허큰스님 영원한내것이란아무것도없다네	윤청광	10,000	9,000
155	경봉큰스님 돌장승이허허롭게웃느나	윤청광	10,000	9,000
156	금오큰스님 한생각돌리면천하가다내것일세	윤청광	10,000	9,000
157	전강큰스님 촛불을밝히면어둠이사라진다	윤청광	10,000	9,000
	고암큰스님 도물을것없네복밭이나가꾸게	윤청광	10,000	9,000
158	청담큰스님 마음에타는불무엇으로끄려는고	윤청광	10,000	9,000
	고요아침			
159	편지	명정,정성욱	9,500	8,550
160	마음꽃	명정,정성욱	11,000	9,900
151	바닷가에절이있었네	박원식	9,500	8,550
162	얼굴	이지엽,정성욱	9,900	8,550
163	절간이야기	조오현	9,000	8,100
164	무심	경허스님	8,500	7,650
165	**지혜의나무**			
166	이른아침나뭇기억하라	틱낫한	7,000	4,900
167	**여시아문**			
168	선방일기	지허	5,000	3,000
169	참선요지	허운스님	5,500	3,300
170	보르헤스불교강의	보르헤스외	5,500	3,300
17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4,500	2,700
172	방편개시	허운스님	6,000	3,600

http://www.yosiamun.com

http://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 Fax : 02-737-0696

바라밀현장 선학원 중앙선원 신도들의 진여원 나들이

수행도 프로, 봉사도 프로



◇뜨거운 햇살을 고스란히 받으며 100인분의 잡채를 만들고 있는 봉사자들. 아이들을 향한 정성과 어머니의 사랑을 더하면 '선학원 중앙선원' 표 잡채가 완성된다.

여름이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피서지를 찾아나서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대신 복지시설에는 후원금과 봉사자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든다. 고아와 장애우 30여 명이 함께 사는 비인가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의 진여원 역시 요즘 찾는 이들이 부쩍 줄어들었다.

지난 7월 24일 조용하기만 하던 진여원에 반가운 식구들이 찾아왔다. 선학원 중앙선원 신도회(회장 김영옥)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온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장을 보고 틈틈이 모아놓은 옷을 챙겨 진여원으로 한걸음에 내

장애우에 엄마 손맛 한껏 입던옷, 김치등 물품 보시 "봉사할 수 있음이 행복"

달려온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과 잡채를 만들기 위해서다.

봉사자들은 커다란 소쿠리에 가득 담긴 양파와 당근, 감자, 버섯 등을 눈 깜짝할 사이에 씻고 다듬은 뒤 가마솥에 불을 붙인다. 쨍쨍 내리쬐는 햇살과 가마솥의 열기로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불 옆에 바짝 붙어서서 주걱으로 자장을 골고루 저어준다. 자장이 조금씩 끓는 동안 한켠에서는 잡채 만들기가 한창이다. 100인분을 한꺼번에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썰어놓은 야채를 볶고 당면을 삶아내는 '프로 주부'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 선학원에서 직접 가져온 참기름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손맛을 더하니 맛있는 잡채 완성!

요리가 끝난 후 간단한 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이번엔 숙소 청소와 목욕봉사에 나섰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비롯해 네 다섯 살 꼬마 숙녀 상아와 채림이, 수정이까지 깨끗이 씻기고 나니 봉사자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 사이 몇몇 봉사자들은 방을 쓸고 닦고, 이불은 햇살 밝은 마당에 널어 말린다.

그동안 여러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녔던 이들이지만 지난 5월 진여원에 다녀오고 나서는 매사에 활력을 얻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엄마의 손길'을 나누어주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로는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진여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도회원들은 선원에 나올 때마다 자녀들이 커버려 입을 수 없는 옷과, 직접 담근 김치 등을 가져오기도 하고 진여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회비도 걷는다. 이날도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필요한 선풍기 7대를 보시했다.

신도회장 김영임 씨는 "한창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진여원을 찾게 됐다"고 말한다. 신도회원 이연임 씨도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 왔을 때는 멋모르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정도 많이 쏟았는데, 헤어질 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다.

이날도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봉사자들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더불어 사는 좋은이웃 되세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중고생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단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이어 24일부터 4일간 40명씩 1개조로 나뉘어 노인건강센터, 애광양로원, 민주공원, 소방본부, 용두산공원 등 부산시내 일원에서 개인당 14시간씩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맑고 깨끗한 부산 가꾸기(민주공원, 용두산공원), 도서-의류-장난감 수집,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양로원, 노인건강센터) 봉사, 설문조사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청소년들은 처음 해보

'2003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단 출범' 노인센터 등서 4일간 14시간 봉사

는 고된 자원봉사였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무여중, 덕천여중, 동평여중, 부산진중, 감천중학교와 예문여고, 동호정보고, 부산여상 학생들은 행사후 소감문을 통해 "나 아닌 다른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나와 이웃을 모두 위하는 길임을 알았다"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관 본부장은 "98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땀으로 실천하는 봉사의 소중함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우고 있다"면서 "불교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94년 4월 출범한 이 단체는 법정스님을 회주로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금정산 자연보호운동, 경주남산 생태기행, 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등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향기로운 삶을 가꾸는 활동에 힘을 모아 왔다.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051)898-2672

김재경 기자



◇부산서면 도로변에 붙은 껌을 떼고있는 청소년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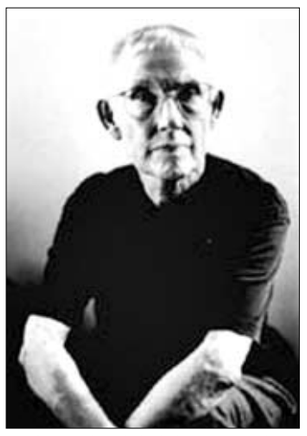
샤로테 조코 벡 (下)

일상 생활속 알아차림 강조

"좌선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예를 들면 특별한 명석함, 통찰력, 마음의 고요 등)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겠지만, 혼란과 좌절 또는 불안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잔잔하게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살아있는 선(Nothing Special : Living Zen)' 중에서)

진정한 서구의 선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샤로테 조코 벡(Charlotte Joko Beck). 그녀는 미국에서 선의 전통을 잇고 있는 보기 드문 선(禪) 마스터 중의 한명으로서 선을 실천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선의 길(Taking the Path of Zen)>의 저자 로버트 아이트겐(Robert Aitken)은 조코 벡의 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녀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는 동시에 언제나 핵심을 찌른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사와 사건들에 대한 그녀의 은유들은 나의 평범한 삶을 밝게 비추어주었다. 그녀의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선'은 생동적이며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트겐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코 벡의 선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수행에 대한 그녀의 정의는 이런 관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상심선원의 설립자인 조코 벡.

"진정한 수행이란 그 자체의 목적을 떠난, 기술이나 공안(公案, 화두) 또는 여타의 것이 아니라 당신과 타인의 삶의 변화에 관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우리 인생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살아있는 선' 중에서)

모든 수행을 '정신적 과정에 대한 관찰'과 '육체적 감각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는 그녀의 좌선에 대한 관점도 독특하다. 조코 벡은 "먼저 앉으려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얻을 것도 없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깨달음에 집착하는 생각까지 알아차리세요."라고 당부한다.

또한 그녀는 직장인 등 재가자를 위해서는 가능한 날마다 좌선할 것을 권한다. 만약 스스로 거부하는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념들이 번뇌 망상임을 알아채라고 한다. 다른 잡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이 수행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단지 의식의 흐름들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1주일에 한번은 보통 때보다 10~15분 길게 좌선해 보세요. 그러나 좌선이 고통스러워서는 안됩니다. 정신이 없을 때도 좌선을 회피하진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때가 앉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평상심선원(www.ordinarymindzen.org) 홈페이지 중에서)

조코 벡은 좌선

"의식 관찰하되 억누르지 말라"주의 무엇인가 얻으려는 인위적 수행 거부

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인위적인 수행을 거부한다. 즉 좌선을 통해 평화와 무아지경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상태는 매혹적이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신 일상 생활 가운데서 가십(gossip)이나 불평불만, 타인과 자신에 대한 판단, 뛰어남과 열등함에 대한 생각들을 세밀하게 알아챌 것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지도자인 잭 콘필드(Jack Komfield)는 이러한 조코 벡의 지도방침에 대해 "그녀의 깊은 지혜에서 나온 가르침은 강력하면서도 명확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불교에 대한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김재경 기자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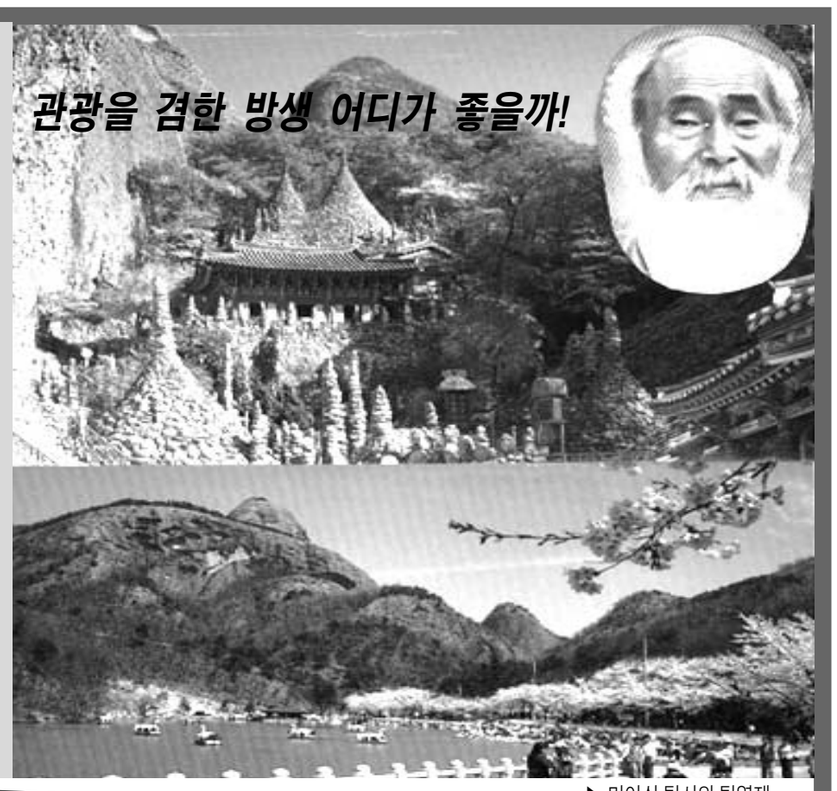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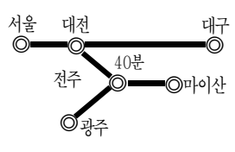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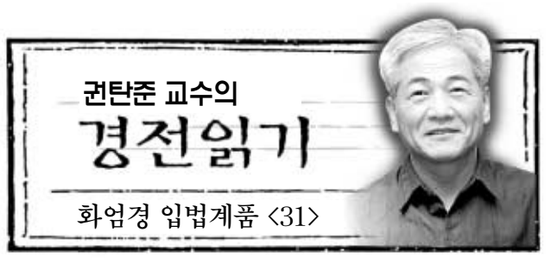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자재주 동자의 법문

육근이 깨끗하여 삶도 순진무구
지계는 중생의 이로움 가꾸는 힘

선견 비구로부터 남쪽의 명문(名聞)이라고 하는 나라의 물가에 있는 자재주(自在主) 동자를 찾아가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 나섰다. 공중에서 천룡, 건달바들이 동자가 지금 물가에 있다고 일러주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 보니, 그는 일만이나 되는 동자에게 둘러싸여서 모래를 모아 장난하고 있었다. 선재 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었다.

이에 자재주 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옛날에 문수사리동자로부터 글 쓰는 법과 산수(算數)와 모든 것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결인(結印) 등의 법을 배워서 '온갖 교묘한 신통지혜의 법문(一切工巧神通智法門)'에 들어 갔노라. 나는 이로 인하여 세간의 글, 산수, 결인 등의 법을 알며 또 풍병, 간질, 조갈병, 귀신이 붙은 모든 병을 치료하며, 모든 건축, 약제, 농업, 공업, 상업도 잘 알아서 관리한다. 또한 중생들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善惡)을 지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을 알며, 성문의 법을 얻거나 연각의 도를 얻으며 '온갖 지혜(一切智)'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들을 다 잘 안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배우게 하며, 증장케 하고 완수하게 하여 청정무구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또한 보살의 계산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법으로 모든 세계의 갖가지 차별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분명히 다 알 수 있다. 나는 오직 이 '온갖 교묘한 큰 신통지혜의 광명법문(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만을 알 뿐이다."

이와 같은 자재주 동자의 법문은 청정한 지계(持戒)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세간 속에서 중생을 여러가지로 이롭게 하는 법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자재주 동자가 강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갖 깨끗치 못한 것을 끊임없이 씻어버리는 물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가 평소에 지계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동자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지계생활이 청정해서 어떠한 오염도 없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동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 이름이 자재주인 것은 지혜로써 세간을 벗어나는 것과 세속에 들어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이다.

범본(梵本)에 의하면 '자재주'는 Indriyeśvara로서 '모든 인식기관이 자재하다(諸根自在)'고 하는 의미이다. 중생의 인식기관은 인식대상(경계)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참된 수행인은 계행(戒行)이 청결하여 훌륭한 삶을 자재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 스스로 앞에서 "나는 문수사리 동자로부터 여러가지 법을 배워서 '온갖 교묘한 신통 지혜의 법문'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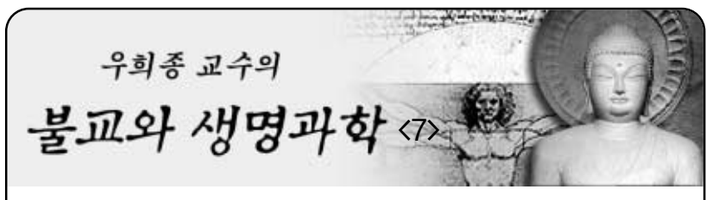
자재주 동자가 일만이나 되는 동자에게 둘러싸여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계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순진무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가 '온갖 교묘한 신통 지혜의 법문'에 들어가 세간의 서법(書法)·산수·결인·여러가지 병의 치료법·약만드는 법·각종 기술·농업과 상업·중생의 세간을 벗어나는 근기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은 결국 모든 감각기관(즉 六根)이 청정하여 자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청정한 계행을 바탕으로 세간 속에서 다양하게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살이 세간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면서 한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간의 각종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해 정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터득하고 싶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이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청정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정한 삶이 불가능한 것은 인식기관이나 인식주체가 외부의 각종 경계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갖가지의 계행을 지켜서 청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행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대승보살의 대비이타행은 청정하고 진실한 삶에서 꽃피어 나오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는 이와 같이 진정한 대승보살행은 청정한 지계생활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의 법문을 대하면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보살의 진정한 중생구제력은 지식이나 재주가 아니라 맑고 진실한 생활로 스스로를 지켜 나아가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사의 공안과 말이라는 감옥 (下)

'참나' 발견은 사물의 세계 버리는 것
세상 모든것 허망한 그대로 '진리'

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은유에 불과하여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에 말의 탄생은 사물의 질서의 탄생이요, 문화와 문명의 탄생이기는 해도, 동시에 인간을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 비극의 탄생이기도 하다.

은유는 은유를 낳고, 꿈은 꿈을 낳고, 말은 말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육근(六根)에 의하여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사실적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라고 믿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된 나, 진리의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은유·말·사물의 세계를 버리고 '그 자체'를 체득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이렇듯 '그 한 놈'을 알기 위해 말을 떠나야 하는 것과 '범소유상 개시허망'은 표리(表裏)의 관계이자 동전의 양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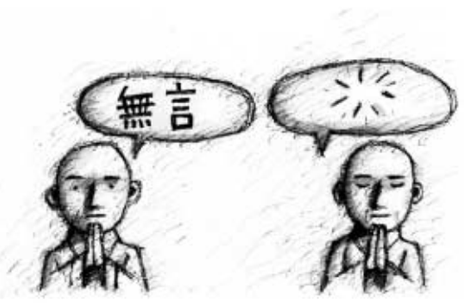
그렇기에 서양의 합리적 이성의 출발점을 이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것이고, 꿈속의 나비를 말하며 어느 쪽이 자신인지 되물었던 장자 역시 그 양쪽 역시 꿈에 불과함을 못 보았을 뿐이다.

특히 말은 말하는 나·주체와 너·객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내 안에서의 혼잣말이라도 말과 더불어 말에 의존한 생각은 곧 대상을 지닌 분별이요 집착이며 욕망의 한 발현이다. 인류의 문화·문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곧 인간 욕망의 한 단면이요 표현에 불과 함을 보게 된다. 본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실의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없어 주객이 없으며, 생사도 없고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며 전체라 해도 잘못되기에 말 없음, 그것은 참선 수행의 첫걸음이요, 말 떠남은 참선의 기본이 된다.

이제 선사들의 화두·공안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인 황당한 (사물의 질서로부터 볼 때)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말은 결국 단순한 상징과 은유이기에 한 모금으로 장강의 물을 마시라느니, 수미산이 거꾸러진다느니, 등등의 이런 황당한 말들이 지극히 자상한 도리가 되니 부디 의심하지 말고 이미 듣고·믿고 있는 말의 세계를 하루 빨리 놓아버리고 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꿈과 같은 이 사물의 세계 역시 진리의 한 얼굴이라는 점이다. 육근(六根)이라는 우리가 지닌 조건에 의해 진리의 한 단면을 사실이라는 믿음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물·비유 역시 그러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진실·실상인 그 자체와 또 다른 의미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기는 해도 알고 보면 이것이 그대로 진리의 한 모습이다. 처처불물 모두가 화두가 되고,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부처의 설법이 되는 것이기에 알고 보면 이 세상에 한마디 더 할 것도 없다. 각자의 모습으로 잠자고 밥 먹고 생업에 열심인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선의 세계 ④

직지인심-3
경전 연구

가르침의 견해차가 종파불교 꽃피워

갈수록 불교 경전이 많이 소개되어 번역되고 연구되면서, 불교 사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이해도 깊고 넓어졌다. 그런데 그럴수록 혼란도 더해갔으니, 많은 경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이런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해서 단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정보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문학자에게 문학이 뭐냐고 묻거나 역사학자에게 역사가 뭐냐, 종교학자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물어본 사람에 따라서 알아듣도록 임의로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답변이건 문학, 역사, 종교의 복잡한 속내를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대개 물건보다는 인간사, 즉 사람의 일, 사람의 사정이 알면 알수록 그처럼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부러지게 말해서 뭐냐는 물음은 석가모니께 던지는 것이 가장 좋겠건만, 석가모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살아있는 고승대덕들께 여쭈어본다고 하자. 갖가지 답변이 다 나올 것이다. 경전을 인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는 거야"라고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나아가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연기법(緣起法), 공도리(空道理) 등등 불교의 요체로 그때 그때 거론할 것이 선택하는 데 따라 무궁무진하게 많다.

다양한 경전과 그 밖의 문헌이 쏟아져 들어와 번역되고 보급되면서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그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불교의 핵심을 간파해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어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심지어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대목들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해명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전한 것이 이른바 교상판석(敎相判釋)이다. 말 그대로 가르침의 모양새를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은 초기에 사람들이 견해가 얕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방편으로 쉽게 설명하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그런 줄 알고 이해해야 하고, 어떤 가르침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꽤나 조예가 깊어진 뒤에 비로소 당신의 뜻을 다 담아 말씀한 것이라고 판정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남에 따라 종파도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의 일생에 따라 어떤 경전은 초기에 설한 것, 어떤 경전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한 것이 열반경이니 열반경이 아무래도 그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보는 열반종이 생겼다. 아니다, 묘법연화경이 궁극적인 가르침을 담았다. 아니다, 화엄경이다 등등 어느 경전을 궁극의 가르침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파가 생겼는가 하면, 공도리(空道理)를 열쇠로 하여 모든 교리를 풀어내는 데 주력하는 종파도 있고 무명(無明)을 일으키는 의식(意識)의 구조와 작동을 파헤쳐 무명을 떨치는 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종파도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불교는 인도의 부파불교 시대에 이어 이른바 종파불교를 꽃피우게 된다. 나중에 선종이 그 모든 종파를 교종이라고 싸잡아 부르면서 퍼부는 비판의 핵심은, 경전 공부에 매달리다보니 정작 자기가 직접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일은 뒷전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번 회도 어느새 지면이 다 차버렸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잇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제 5 기
선 심리상담 · 명상지도자 양성 및 특수과정 모집

◑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란?
현대물질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하지만 참 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 불감증과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대체의학으로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에서는 참선수행과 명상호흡,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 심리학, 대체의학 등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잔류하고 있는 불안한 음성적인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이 심리치유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프로그램연구를 겸한 최상의 정신심리치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상담명상교육'이라 하고, 이 전문가를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주요 교과
▶ 불교학 개론
▶ 선 심리치료학 개론
▶ 무아선무명상호흡법
▶ 참나 찾기 특수프로그램
▶ 금강경 능엄경의 선 심리
▶ 선불교와 요가심리
▶ 동양적 통찰심리치료법
▶ 청소년 임상심리
▶ 유식과 심리치료
▶ 사이크 심리치료

◑ 교과 일정(일반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11:00~12:30	9월4일~12월18일(4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이하, 3박 4일, 수련원)		

◑ 주요 강사진
▶ 이법산큰스님 : 동국대 정각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 백상창 박사 : 백상창 신경정신과 원장, 통찰심리치료 전문의
▶ 김철회 박사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참나지도자회 고문
▶ 이명우 교수 : 한국청소년상담원 책임연구원
▶ 고강호 교수 :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학회 교육이사
▶ 주명철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마음의 전화 전문의원
▶ 김도각 스님 :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마음의 전화 원장

◑ 입학자격 – 제한없음

◑ 특전
❶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❷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격증 및 자료 제공
❸ 참나 찾기 팔관재 큰 모임 (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 수강신청
2003년 8월 11일 ~ 9월 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 문의 및 수강신청
마음의 전화 /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 무아선무명상호흡연구원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26-0248 / 9(F)
H.P : 016-301-4080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 마음의 전화


퇴마승 해원

영혐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혐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1화)

"가득한 것은 조용하다"

〈출전 : 수타니파타〉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철도원의 '살신성인'

이 시대의 약왕보살

가끔 선재는 안다는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마음 속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그것을 온 몸으로 느껴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다. 영등포역의 어느 철도원 소식은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하게 한다. 이 철도원은 선로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구해내고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두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발목을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접합수술이 잘 되어 걸을 수는 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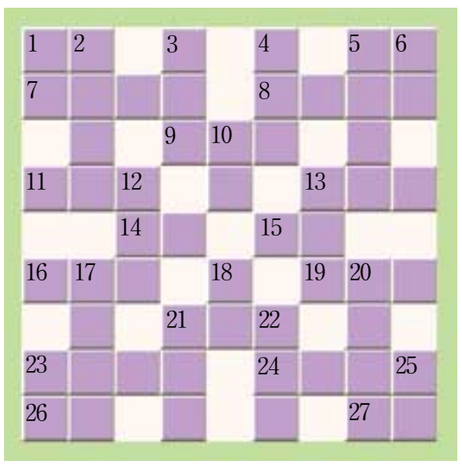
선재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으로 안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가 달려오는 열차를 뻔히 보면서도 선로의 아이에게 뛰어든 것이 '철도 공무원은 이런 상황에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든가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철도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는 등의 규정이나 지식 때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아이가 위험한 모습을 보고 아무런 분별심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철도 공무원도 존재하지 않고 아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상황만 존재한다.

〈법화경〉에서는 약왕보살이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일 때에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 온 몸을 공양한 일을 두고 "온갖 꽃과 향과 영락으로 공양하고 갖가지 물품으로 공양한다 할지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며 나라와 처자를 보시한다 할지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제일의 보시며 보시 중에는 가장 존귀하고 최상이니, 법으로써 모든 여래를 공양하기 때문이니라" 하며 칭송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 내 몸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위법망구(爲法忘軀)' 의 정신들은 진정한 무아(無我)의 실천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그 철도원은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약왕보살이다. 그런 보살께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공양을 올리는 일은 진리 속에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호기로운 기세 5. 이룩하거나 도달하려는 목표나 방향 7. 보살의 근본 이념, 상구보리 ○○○○ 8. 무슨 일인들 못하랴. 정신일도 ○○○○ 9. 경북 영주시에 있는 절로 의상대사와 선묘공주의 전설 즉, 바위가 허공에 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11.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검소함의 상징이다. 누더기 옷 13. 친권자가 없는 자를 보호하는 사람 혹은 법정대리인 14. 중생을 고해에서 건져 극락으로 이끄는 일 15. 함께 수행하는 벗 16. 문서의 향식을 갖추어 공포된 법률 19. 전류와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21. 화두를 참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23. 나라의 경제를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성하게 하는 일 24. 보리심을 일으킴 26. 좋은 값 27. 다른 사람.

세로

1. 얼마, 기하학의 준말 2.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짓다 3.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의 명단을 적은 기록 4. 황하의 모래,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비유 5.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 6. 일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 10. 돌 칼 12. 의복에 관한 제도와 법 13. 전반전 다음의 절반 17. 문화가 발달하고 민도가 높은 나라 18. 복숭아 꽃 20.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함 21. 환자를 돌보는 사람 22. 본대보다 앞서 출발한 대원이나 부대 23. 도와서 보호함 25.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심의 깨달음. 마음도장.

〈432호 「교리퍼즐」 정답〉

수	다		선		중		건	사
권	선	징	악		과	거	칠	불
	일		과	거	세		지	
수	미	산		사		선	불	장
		회	심		육	진		
찬	불	가		사		국	왕	은
	이		우	바	이		래	
불	법	점	유		부	창	부	수
성	문		체		제		절	상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화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사 문의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액후나불이편리한분들을위하시용하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58,000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독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격 : 20,000원



CD : 2ea set
가격 : 10,000원

1주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하만 TSI에서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로
• 팩키지 Ⅰ 디지털불경 룸비니 + 테이프 8개 + CD2개 특별가 58.000원
• 팩키지 Ⅱ 디지털불경 룸비니 + CD 1개를 특별가 39.000원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2-0880
입금구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무조건 잘 되는 사업 02)3210-0880
▲승합 및 봉고 소유하신분 ▲투자금 5백만원 ▲월수 3백만원 보장 ▲특수 사찰불교용품 취급사업

새로나온 책

통일신라 · 외국불상 비교연구



'한국고대 불교조각…'

김리나 지음

문예출판사 / 2만5천원

한국불교조각사 연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홍익대 김리나 교수가 지난 10여년간 발표한 논문을 선정해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불상들과 관련된 외국불상들과의 비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형식과 양식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불상들과 비교해 놓았다. 또 일본의 비조(飛鳥)와 백봉(白鳳)시대의 불상을 꼼꼼히 비교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전국 40여 사찰 역사 · 성보 소개



'손짓하는 돌부처'

박건태 지음

해조음 / 1만원

이 책은 제목처럼 돌부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불교역사와 함께 해온 돌부처 같은 도반을 찾아 모악산 금산사를 출발해 간월암, 두타산 삼화사, 치악산 상원사, 월악산 미륵사지, 천봉산 대원사, 문경 윤필암, 운서산 장육사까지 저자가 순례한 전국 40여 사찰의 역사와 성보문화재를 소개했다. 특히 취재하듯 꼼꼼히 메모한 내용을 옮긴 사찰의 당우, 불상, 탱화, 탑, 종, 부도 등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적 식견을 능가한다. 책 말미에는 낙양 백마사, 등봉 소림사 등 북중국 사원들과 중국의 문화유산을 둘러본 순례기도 함께 실어 놓았다.

6020가지 꿈사례 풀이 담아



'꿈풀이 큰사전'

편집위원회 엮음

화남 / 2만2천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잠을 자며, 또 잠자는 동안은 누구나 예외없이 꿈을 꾼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꿈은 억압당한 마음의 표현이자, 자신의 소원 성취"라고 말한 것처럼 꿈은 삶을 살아가는데, 또 미래를 예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6,020 가지 항목의 꿈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이 책은 자못 흥미롭다. 사람에 대한 꿈, 동식물에 대한 꿈, 문화 생활용품 및 장소에 대한 꿈 등 다양한 사례들을 가나다 순으로 사전식 편집을 해 놓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사람'

서옹 스님 지음

고요아침 / 1만3천원

세상 밝혀주는 서옹 큰스님 법문집
원고없이 법문… 시자 호산 스님 녹취

"인생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디서 왔으며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생은 무엇이며 사(死)는 무엇이냐, 또한 우주와 인생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등 인생의 참된 본래면목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것이 바로 선이다." <공안의 어원중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큰스님(93)의 대중법문집 <사람>이 출간됐다. 세상을 맑혀주는 법담(法談)들이 가득한 이 책은 1998년부터 '무위진인(無位眞人) 참사람 운동'을 대중들에게 펼쳐온 서옹 스님의 사자후를 담고 있다. 스님은 원고없이 법문을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행여 이 소중한 감로법문들이 허공으로 사라질까봐 시자 호산 스님이 법문 때마다 녹음기를 들이댔다. 이것을 옮겨놓은 것들이어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법회 현장의 냄새가 풀풀 넘친다.

서옹 스님하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님의 해맑은 미소다.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오랜 선수행에서 우러나오는 선재동자 같은 동안(童顔)의 미소는 친견하는 많은 이들에게 안심(安心)을 준다. 이런 모습을 보고자 찾아오는 대중들에게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사람은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와 '참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도 "서양문명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이러한 이기적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서양문명이 과학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고 기계와 물질에 끄달리면서 자기 정신없이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며 "바로 이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자비 정신을 가진 참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스님이 생각하는 '참사람'이란 어떤 유형일까?

일정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해 우주의 삼라만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좀더 설명하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생과 사, 이성과 반이성의 절대모순을 주체적으로 온전히 초월해 절대자유, 절대자율의 삶을 산 석가모니 세존같은 해탈자다.

그래서 참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카르트나 하이데거 같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불안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위한 해결책은 제시했지만, 생과 사를 초월해 절대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자유자재한 철학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불법이야말로 과학문명의 노예로 떨어져서 자유를 잃고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문집으로서의 성격외에도 이 책에는 선(禪)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바로 스님이 법문끝에 들려주는 착어(着語)들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선사어록 · 일화 3000여편
선의 세계 간접 체험

'선의 뜰에서 거닐다 1 · 2'

이계묵 역해

운주사 / 각 1만1천원



한국선의 위기론이 거론될 정도로 요즈음 일반인들에게는 소위 '제 3 수행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선인 간화선은 어떤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인 답을 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수행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천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옛 선사들의 어록이나 일화 3백편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선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호기심을 풀어주는 흥밋거리로 읽히지는 않는다. 시간과 공간, 세대를 초월한 선의 매력이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동반하고 다가온다. 이는 부처도 조사도 다 죽이는 수행의 파격성, 일자무식임에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비약성, 모든 논리를 단칼에 깨뜨리는 통쾌함 등 인간사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주말 休테크 … 산사서 재충전

'산사에서 마음 내려놓기'

김재경 지음

마당넓은집 / 1만원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젠 떠나라. 마음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산사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요즘, 주말은 이제 '일상의 탈출구'인 동시에 생산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거듭나고 있다. 주말이 휴테크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산사에서 마음 내려놓기'는 휴테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산사라고 추천한다. 단순히 조용하고 숲속에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수목원도 가능할텐데 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산사예찬론자인 저자 김재경(현대불교신문사 차장)씨는 몇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꼽는다. 우선 외적인 환경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채식 · 소식…음식에 고마움
침묵 · 느림의 미학 배운다

외에 산사의 일상생활에서 배울점이 많다는 것이다. 첫째로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는 잠자리 문화. 둘째로 채식과 소식을 하며 한톨의 음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음식문화. 셋째로 속세에서 느끼지 못하는 침묵과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생활문화다. 이 책은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전국의 유명 산사 26곳을 선정해 그곳의 풍경과 역사, 전통 그리고 방장스님 등 산사를 지키는 큰스님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책에 소개된 산사들은 특별한 산사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곳들로 프로그램, 현장사진(고영배 현대불교신문 기자), 수행법까지 기록해 놓아 불교수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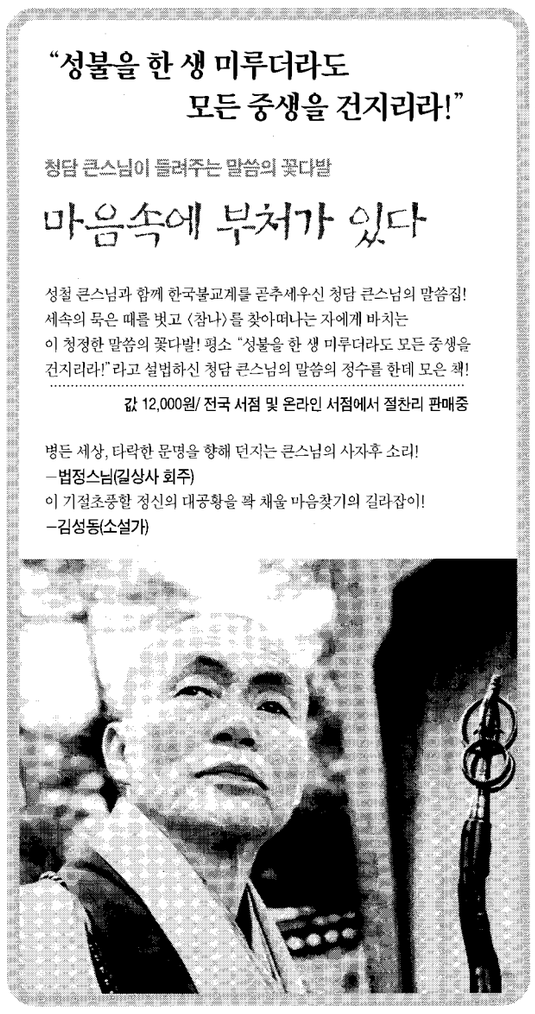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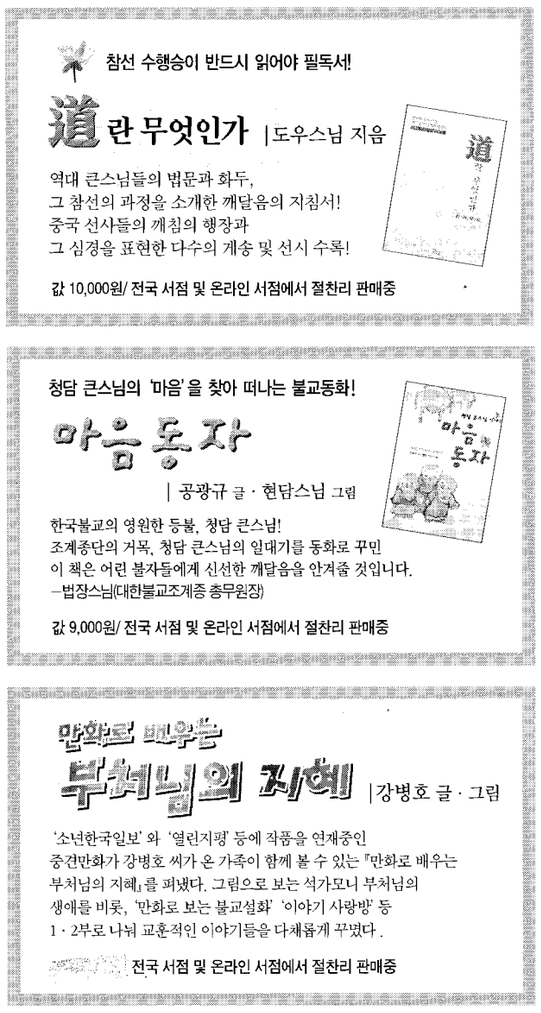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3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벤슨외 3인	여시아문
4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메킨지	김영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6	물은 답을 알고 있다2	에모투마사루	나무심는사람
7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	법장 스님	바보새
8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9	천수경과 기도법	윤영해	불교시대사
10	유식30송	서광 스님	불광

도서 안내 : (02)737-0695









명상 · 순종 · 봉사 등 간디의 가르침

"불살생 · 비폭력은 가장 위대한 사랑"


◇손녀들과 함께 한 생전의 간디.

"모든 사람의 눈으로부터 온갖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간디)

20세기의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Gandhi, Mohandas Karamchand : 1869~1948).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간디는 비단 정치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종교분야에서도 혁명적인 지도자로 일컬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하트마(위대한 영혼, 큰 성인)'라는 존칭을 부여했듯이, 아직도 그를 인류의 성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의 헌신 때문이었다.

그에게서 신은 곧 '진리'였으며,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는 '사티야그라하(眞理把持)'야말로 간디의 일생을 대변해 주는 본보기였다. 그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세미한 신의 소리에 따라 행동했고, 인도가 당면한 갖가지 부조리한 현실들을 타개해 나가고자 수없이 단식을 거듭하면서 '불살생 · 비폭력(Ahimsa)'이라는 위대한 저항정신을 인류사에 커다란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마다 갈등과 대립의 모순이 표출되고 있는 오늘날, 끝끝내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리로 하나 되게' 하려던 간디의 메시지를 차분히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간디 명상록'

간디 지음 / 이명권 옮김
열린서원 / 8천원

'진리와 사랑'으로 요약되는 간디의 사상을 엿보게 하는 <간디 명상록>(열린서원)은 오로지 '진리 실험'으로 평생을 보냈던 간디의 가르침을 신성(神性)에 대한 그의 지적 기반, 도덕적 수행, 영적 수행, 영적 체험 등으로 나눠 담고 있다. 독자들은 간디의 종교적 영성의 뿌리를 파헤치면서 사랑, 영혼, 명상, 봉사, 순종, 기도 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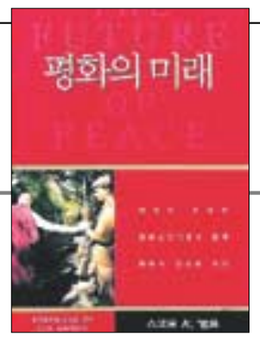
하지만 독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석 같은 진리 보다는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는 그현실적인 조언들이 아닐까 싶다. 거기에는 건강관리로부터 혁명운동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명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혼돈의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이렇다. "사방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자신마저 기만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만이나 무지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또 그의 혁명적 저항정신은 이렇게 표출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이다." "불살생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최상의 법칙이다. 이것만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카와 함께 이끈 천민해방 운동과 여성해방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남아프리카에서의 '소금세 신설에 반대한 운동' 등 약자를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진리의 신'을 믿고 주저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용기에서 비롯됐다.

이 책의 역자인 이명권 '코리안 아쉬람'(비움과 나눔의 공동체) 대표는 "아쉬람에서 물레질을 하며 자급자족 의식을 일깨우고, 채식주의의 실천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운동과 교육에 정열을 쏟기 시작한 것이 간디의 위대한 '아힘사'가 탄생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평화의 미래'
스코트 A. 헌트 지음 / 김문호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 / 2만8천원

평화 '코드'로 본 인류의 미래는?

달라이 라마 등 21세기 평화실천가들 인터뷰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잔혹한 사건은 무엇일까.

유럽인들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된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수십만의 사람이 학살당했다. 아우슈비츠 학살은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누구나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 범죄의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할 것이다.

1960년대 초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후투족은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투치족을 학살했다. 후투족은 2달 동안 하루 평균 11만5천명, 많을 때는 하루에 4만5천명, 2초 당 한 명을 살해했다. 1970년대 중반 캄보디아의 내전 중에 정권을 장악한 크메르 루즈는 약 150만명에서 200만 명의 동족을 살해했다.

이러한 대량 살상은 1990년대 이후에도 북부 이라크에서, 보스니아에서도 쉴새없이 자행되었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 학살도 있다. 베트남전의 와중에서 미국은 캄보디아에서만 15만 명의 민간인을 폭격을 통해 살해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약 350년간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50년 이상 보복테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공방전은 급기야 9.11테러로, 연이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다.

힌두교에서는 '무서운 것을 평화로운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교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삶을 수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슬람교는 '선을 행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라'고 가르치고,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불교는 늘 자비를 강조한다.

이런 여러 종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만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이익이나 인간의 욕망 앞에 종교적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종교가 아집이 되어,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범죄자들에게 종교는 심리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스코트 A. 헌트가 저술한 <평화의 미래>(원제: THE FUTURE OF PEACE)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연 인류에게 평화로운 미래는 있는가. 인류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18세기보다 19세기가 잔인했고, 19세기보다 20세기가 잔인했다. 그렇다면 21세기가 20세기보다 잔인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헌트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20세기의 위대한 평화 실천가를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평화의 미래>는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강력한 염원을 담은 평화의 실천가와 평화의 메신저를 찾아다닌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헌트가 만난 인물들은 다양하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투신하고 있는 아웅산 수지여사, 설명이 필요없는 달라이 라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실천가들, 베트남 희망의 투사 틱 캉 도 스님, 중앙아메리카의 평화의 대사 오스카 아이리스,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 스님, 지구를 구하기 위한 환경운동에 매진중인 동물인류학자 제인 구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헌트는 험로를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연금 상태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 인터뷰 한 녹음 자료와 컴퓨터 디스켓을 안전하게 국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이기도 해야했다.

헌트는 이러한 정신적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낙관적인 생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평화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관용과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헌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폭력은 줄어들 것이며 결국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비로운 본성의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확신은 평화실천자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응백 / 문학평론가 · 휴먼앤북스 대표

<평화의 미래>는 평화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 캉 도 스님,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동물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 등의 해학 넘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산 · 절집 노래한 여행산문집

'여운'

정끝별 지음
화니북스 /8천7백원



시인 정끝별(40)이 산과 바다, 강, 절집을 찾아 나선 여행 산문집인 <여운>(화니북스)은 마음의 상처, 삶의 덧없음을 어루만져 주는 28편의 시와 19개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눈물처럼 후두둑 지고 말 선운사 동백꽃, 여름 깊던 신륵사 무명탑, 사랑과 기다림으로 이어진 부석사 가는 길, 쌍계사 춘백에서 바래봉 철쭉사이 등 꽃피는 산사와 해저무는 바닷가 마을, 눈내리는 강가를 아름다운 시와 산문으로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여행하게 만드는 시는 단 하나의 풍경에 시인의 전 존재가 내던져지고 녹아드는 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풍경을 찾아 떠난 작가 역시, 시인의 존재가 녹아 있는 풍경에 다시 자신의 존재를 내던져 산문을 한편씩 완성한다. 이 책에는 시를 통해 바라본 풍경과, 실존하는 우리나라 산과 바다의 정직한 풍경, 그리고 다시 작가 정끝별이 설렘과 여운을 보태 빚어낸 세 가지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과목을 가르치는 정끝별 시인은 1988년 <문학사상> 시 부문,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당선되어 시작과 평론 활동을 겸하고 있다.

'뇌성' 장애인의 영혼의 소리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상석 지음
대희 /6천원



"이젠 아무리 목놓아 불러봐도 아무 대답없는 아버지,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면 그 어두운 앞마당에서 남몰래 안타까워 눈물 지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저의 그리움과 눈물이 베어있는 첫 시집을 바치며…."

33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정상석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떨리는 몸과 손가락 하나로 자판을 두드리는 일. 내면에 쌓인 고요를 세상 밖으로 표출한 시인은 새 한 마리가 되어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픈 장애인의 꿈과 사랑, 소망을 고루 적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 정상석 씨의 시집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면>(대희)은 고도의 기교나 화려함은 없지만 자신의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를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듯이 풀어내, 독자는 외로운 음유시인을 만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더구나 이 시집은 춘천 석왕사 신도인 정상석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모여 만들어 준 것이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박영림 사회복지사의 주선으로 도서출판 대희, 표지화를 그린 정현우 화백, 작품해설을 쓴 기정순 시인, 사진가 조명희씨 등이 함께 정성을 보시한 책이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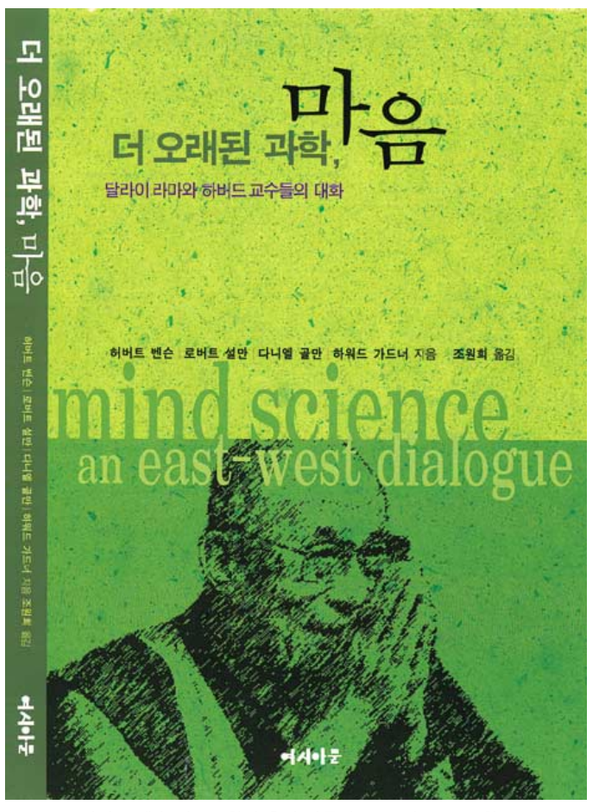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 · 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5계와 그정신

5계는 불교신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맹서할 때 평생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다섯 가지의 규범이다. 5계의 내용을 <<오분율>>에 나오는 사미들이 지켜야 하는 열 가지 계율 중에서 다섯 가지 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하잘 것 없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목숨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마라. 물을 걸러 먹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며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면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라"고 말한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목숨이 다하도록 훔치지 말라. 귀중한 금과 은에서 바늘 한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마라. 상주물이나 시주받은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대중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서 가지거나 또는 세금을 속이고 이간질이다.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방하거나 면전에서는 좋다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범부로서 성인의 자리를 깨닫고 증득했다고 하는 것은 큰 거짓말이니 그 죄는 지극히 무거운 것이다. 이 밖에 다른 이의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해 자비한 마음으로 방편 삼아 하는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 말한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독약이다.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심지어는 술 냄새도 맡지 말고 술집에도 머무르지 말 것이며, 다른 이에게 술을 권하지도 마라. ...술을 한번 마시는데 36가지 허물이 생기는데 어찌 작은 죄가 되겠는가?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서 오물 지옥에 들어가며, 날 적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의 종자가 없어진다. 차라리 구정물을 마실지언정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5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 5계는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이미 불교 보다 조금 앞서 성립된 자이나교에서도 5계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이나교의 5계는 술을 금지시키는 대신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출가승들도 무소유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가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5계는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출가자들이 지키는 불문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불자로서 평생 지켜야할 생활규범
재가자엔 철저한 '일부일처' 지향

불교에선 5계를 재가자들에게도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약간 바꾸게 된다. 그것은 부부 이외에는 간음하지 마라는 것과 술을 마시지 마라는 것이다. 출가자는 어차피 무소유를 근본으로 계율이 정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새삼 무소유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음행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재가자들은 달랐다. 결혼이란 결국 소유와 음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부처님은 철저한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게 된다. 만일 불교도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혼부터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차차석 박사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삼독에 얽매인 삶은



◇이두스님은 인과법을 믿으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이 두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지상 백고좌

불교의 근본 목적은 자아를 완성하는데 있습니다. 자아를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에 얽매인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모르면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탐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지, 무엇이 어리석음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끊고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이끌리면서 자신을 파묻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불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왜 부처님 법에 귀의했으며, 왜 경전을 외고 참선을 합니까.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보람 있게 살겠다는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찾겠다는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름지기 참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서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부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참된 자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자기를 보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하고 변합니다. 모든 형상은 공허한 것이요, 일체의 상(相)이 상(相)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부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부처를 보고, 자기를 보는 일입니다. 수행자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퇴전의 용기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일념에서입니다.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깨달으면 내가 곧 부처이듯이 말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의 공간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출가자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재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똑같이 정진합니다. 부처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는 것은 따지고 보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은 탐진치 삼독에서 말하는 욕심과는 다른 것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욕심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쓸데없고 무리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번뇌의 씨앗입니다. 이런 욕심에는 일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욕심에는 일념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보려는 인내가 있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요. 이것도 번뇌라면 번뇌겠지만, 이 욕심에는 번뇌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번뇌가 곧 보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종교에서 기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만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과 다를 바 없어요.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염치없는 욕심입니다. 세상에 그냥 얻을 수는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지요. 중생이 어리석은 것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사무치는 참구 없이 도를 이룰 수 없듯이, 피나는 노력과 원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과는 나로부터 비롯돼
악업짓지 않게 스스로 노력을

부처님 말씀에 '욕지전생(欲知前生) 금생수자시(今生受者是) 욕지내생사(欲知來生事) 금생작자시(今生作者是)'라는 것이 있어요.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과를 보고, 내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짓는 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과법의 이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탐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도(道)를 좋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인과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과를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과를 믿는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모든 인과는 밖이 아니라 나로부터 생깁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악행을 하게 되고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처럼 인과란 원인과 결과가 한 치의 빈틈없이 상응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악행이 어떤 것들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이나, 거짓말 따위의 악행들은 모두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를 잘 살펴서 스스로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나쁜 악업을 짓지 않으려면 선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업이란 단순히 악행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만 선업이에요. 평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고혈압·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SD D3000mg/2100AF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지혜 희망 합격 행운을 그대에게.....
소원성취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
www.bu juk shop.com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부산 · 경남총판 051)441-1670

살아도 사는게 아니죠”



◇이두스님은 ‘보시’야 말로 인과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신다.

상시에는 공손하다가도 화가 나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선업이란 화가 난 상황에서도 공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하며 다음 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인과를 안다면 다음 생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참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꼭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명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음행을 삼가는 것이요, 넷째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단순히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요구사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는 실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돕고,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이로운 생활습관을 가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을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베풀고, 도와주고, 받들어 주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시란 물건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주거나 부처님 법을 전하거나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모두 보시이지요. 또 부드러운 눈과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예의 바른 행동도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그만큼 행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베풀기에도 인색하지만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보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시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는 상대방에게 모두 보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깨끗지 못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준만큼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나는 강원도 김화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북한 땅이죠. 당시 우리 집은 꽤 풍족한 편이었는데, 공산당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1945년에 간신히 남한으로 넘어와서 공주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5살 때였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았죠. 게다가 전쟁이 나면서 별동대에 들어가 몇 달 동안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김해 피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차출을 당해 전쟁터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공산당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한으로 피난을 온 터라 기꺼이 싸우러 나갔어요. 당시 형님이 미군에서 일을 하셨는데, 형님을 따라 백범 김 구 선생을 만난 적도 있었죠.

출가해서도 이런 경험들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스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수행의 방편이 된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선방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일심으로 달려드는 것도 다름 아닌 수행입니다.

참회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제어해

깨달음의 인연 심어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습니다. 강과 산,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활력을 얻는 것도 좋지만, 평소 알게 모르게 배어 있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일에 대해 결심을 새로이 하고, 또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베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휴가가 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자가 본 이두 스님

현재 이두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관음사는 2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폐사지였으나 지금은 청주의 포교중심도량으로 자리잡았다. 이두스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9년 강원도 김화에서 태어난 이두스님은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화사 강원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1년 인도 팔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갑사 주지, 1978년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1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정치 · 사회 · 역사 · 문화에 상당한 식견을 겸비하고 있는 이

눈빛 형형…시집등 저서 10여권

두스님은 금오스님 상좌들의 모임인 금오문도회 문장(門長)을 맡고 있기도 하다.

5년 전부터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했지만 요즘엔 건강이 꽤 많이 호전돼 경전 공부와 산책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온화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날카롭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시집 · 소설 · 수필집 등 그동안 낸 책도 10여권이나 된다. 이두스님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그동안 발표하지 않은 작품들을 모두 모아 출판할 계획이다. 20여권을 더 출판해 그동안 출판했던 10여권과 묶어 30여권 전집을 만들 생각이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진관스님

스님이라고 해도 모두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네거리에서 목탁을 치며 인권운동에 뛰어든 스님이 있는가 하면, 산중에서 소나무와 벗하며 피나는 정진을 하는 스님 등 각각 다르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잊혀질만 하면 모습을 보인다.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바람같은 스님이다.

오늘도 웬 목탁 소리가 나서 절(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랑비가 소리없이 내리는 중에 황색 가사를 수하고 목탁을 치는 스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모자와 상하 동방은 검은 색이고 유독 하얀 구두가 눈에 띄었다. 스님이 광화문 쪽 방향에서 오는 걸 보아 미국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우 홈’ 뜻으로 나무 약왕보살 정근을 하다가 저녁 밥 때 한 끼 먹으려고 오는 성 싶다.

진관스님이 절 입구 쪽에서 모시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비구니 스님에게 느닷없이 말을 던진다. “스님, 목탁 치고 다닙시다.”



그림 · 문병성

그 비구니 스님은 움찔 하고 피한다.

식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쉼 없는 무용담이 쏟아졌다. 이렇게 진관 스님과 함께 있으면 이야기 삼매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

저녁 후였다. 배웅 인사를 하다말고 현관에서 그만 한시간 반 넘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저 어정쩡한 자리에 서서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다보니 옆의 의자에 앉았다가 섰다가 하며 들었다. 정말 대중을 휘어잡는 힘이 있는 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밤늦게 내려오다가 까치밥이 될 뻔 했다는 이야기는 실감이 났다. 그때 운전은 법주사 스님이 했는데 약간 마음이 상기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사고 순간 앞 유리를 머리로 받았는데, 이때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간 머리가 피범벅이 되었으나 그냥 손으로 머리에 묻은 유리조각을 쓸어내리고 몇 시간 후에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

후유증은 일년이 지나서 왔다. 머리가 띵 하게 아프고 어지러웠다. 주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등뼈까지 아플 것이라고 했다.

이 모두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 밤낮으로 날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어디서나 진관 스님은 자유자재 하다. 최근에는 삼 년 동안 국립선원 격인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와서, 사형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독방을 주니 교도소는 아주 좋은 선방이란다.

진관 스님은 8 · 15 범민족대회에 참석한 것과 비전향 장기수 북 송환 운동을 벌인 것이 결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하여 96년 10월과 99년 8월에 각각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다음은 일간지에 난 기사 내용이다.

“인권운동으로 수행하고 시로 법문하는 스님은 <지나간 세월>을 펴냈다. 수행과 삶이 단절돼 있지 않듯이 삶과 시 역시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듯 스님의 시는 모두 민주화와 인권 운동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잉태됐다.

이번 시집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참여로 구속됐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98년 3월부터, 99년 8월 범민족대회 참여로 긴급 체포

사형폐지 등 인권 운동 앞장

시대아픔 온몸으로 감싸안아

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쏟아낸 시어들이다.”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할 것인가. 목숨을 떼어 놓고 사는 사람 같다. 언제 봐도 열정적이다.

다른 사람은 스님 더러 실속을 차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된단다. 성격상 그런 모양이다. 북한 돕기에 누가 손을 뻗치지 않아도 끝까지 노력한다. 평양 시민의 발이 될 자전거를 100대 기증한 일도 그렇다.

죽어도 인권, 살아도 인권, 금생에 죽어 내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아마 이 길을 멈추지 않을 스님이 바로 진관스님이다.

진관 스님은 희곡을 쓴 적이 있다. 그게 지난 5월 명동 창고극장에서 20년 만에 무대에 올려졌다. 연극 제목은 ‘염화미소’.

이 작품은 87년에 <희곡문학> 가을호에 실렸고 신인희곡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한 수행자가 장님 어머니를 모시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불교 희곡이다.

배웅을 하면서 스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홀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무엇이 한스러워 그러는 걸까. 무엇이 그를 산중에서 끌어내 거리로 나서게 하는 것일까. 잠시 생각을 해 보았다.

진관스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싸안고가는 스님이다. ■ 송광사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물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늘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우너진 열알바란스를 조정해 준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효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통무정 원장
저널약사(천약사) 박종원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5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귀맥골라이프 Co.
(구)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귀신은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
신도님들의 사주상담시에 <용신 잡는법>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느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뺄셈,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가 될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 서적명 :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 규 격 : A-4 용지, 620 페이지
♠ 저 자 : 오산 정대균
♠ 가 격 : 220,000원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 기타사항 : 본서내에는 <용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분석 비결들이 담겨저있음.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저자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한글인터넷 주소 : "사주 팔자닷컴"
전화 : 02-831-0055(대표)
H · P 011-208-0051 FAX 02-831-0058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울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슈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茶道



일주문 안에서 밖으로…

헌다식·다도회 등 문화일구기 한창
유명 예술인 주축, 일반인에도 각광
양적 팽창 부작용 형식위주 지양돼야

"차나 한 잔 드시게(喫茶去)"

당나라 고승 조주 선사(778~897)의 유명한 화두 때문일까. 사람들은 사찰에 가면 으레 차 한 잔쯤은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향, 등불, 차, 꽃, 과일, 음식) 가운데 하나일 만큼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잠을 쫓고 맑은 정신을 유지시키는 차의 효능은 일찍이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수행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성행과 더불어 국가나 불교 의식에 차를 올리는 진다례가 행해졌다. 조선시대에 불교의 쇠퇴와 함께 그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선차(禪茶) 문화는, 오늘날 차맥을 이어온 스님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

17년간 이어져온 통도사 선다회는 부처님오신날이나 개산대재 등 사찰의 주요 행사에서 헌다의식을 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도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4년 과정의 '학생회' 과정과 중국차 음다법, 도자기 만들기 등을 가르치는 '사범회'도 운영한다. 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삼광사 다도모임 '차문화연구 보존회'나 통도사 부산포교원 '여란다회', 부산 안국사 선다회 등은 부산의 차문화를 일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교계 최대 규모의 차단체인 '천태다도연구보존회'가 결성돼 사찰 차문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 천태종의 '천태다도'를 생활화하기 위해 발족한 이 모임은 정기적인 헌다례와 연구소모임 결성, 학술발표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찍부터 차문화 보급에 나선 스님들에 의해 이미 일주문을 넘어 일반 사회의 차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여연 스님은 1998년 '사단법인 일지암 초의 차문화연구원'을 만들었다. 국내 굴지의 차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초의(草衣, 1786~1866)선사의 차와 선(禪)의 세계를 기리는 '초의 차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선암사 지허 스님이 10여년 동안 이끌어 온 차모임 '산중다담'은 지난해 임권택 영화감독을 비롯한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로 거듭났다. 이 모임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통 차문화를 배우기 위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높다.

하지만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일부 차계에서는 사찰의 차문화가 선차의 사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다.

서울 법륜왕사의 다회를 운영하는 선혜 스님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차의 덕에 몰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차는 곧 선(禪)이다. 불교계에서 꿋꿋하게 지켜온 다도의 숨결을 바탕으로, 선의 경지에 이르는, 보다 진보된 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7년 전통의 통도사 선다회는 주요 법회때마다 통도사 부도전에서 헌다의식을 갖는다.

우리차



봉로녹차

녹차의 고장 전남 보성, 해발 350m 고지의 오선봉에서 채취한 어린 차엽을 찌고 덖어서 만든 '봉로녹차'는 그 향과 맛이 싱그럽고 그윽하다. 1959년 문을 연 대한다업의 보성다원은 30여만평의 차밭을 형성하고 있어 각종 영화와 CF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00g 5만7천원. (02)2267-0973

차인연합회 지도자 연수회 개최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박권흠)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18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 단위차회 회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회원간의 유대 강화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연과 조별 토론회, 행다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02)734-5866

김포다도박물관 무료교육 실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다도박물관은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다도와 생활예절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낮 12시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차 마시는 방법, 차의 성분과 효능, 생활예절, 한복 입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선착순 100명. (031)998-1000

녹차, 충치 식중독 예방 효과

녹차가 입냄새 제거나 충치,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연구팀은 7월24일 "녹차 추출물인 폴리페놀이 치주질환과 입냄새를 일으키는 13가지 구강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물질은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에 대해서도 뛰어난 살균능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오계헌 순천향대(생명공학부) 교수는 "이 물질은 치아 표면에 세균막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차맥 지킴이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소장)

'차맥(茶脈)을 지켜가는 사람'.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50)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선사 차맥을 이은 응송 스님을 은사로 차를 접하게 된 후 20여년을 '차맥 지킴이'로 살아온 박 소장. 장마가 끝나가는 7월 말, 과천에 있는 서당에서 그를 만났다.

바람이 선듯선듯 불어오는 자리에 앉자 박 소장이 차를 한 잔 건넨다. 흔히 '동춘차'라 불리는 이 차는 전남 승주 송광사 근처의 야생 차밭에서 딴 차를 직접 덖어 만든 것이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등 '동춘차' 애호가들이 '소쇄(瀟灑, 산뜻하고 깨끗함), 담백하면서도 기운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평하는 이 차는 흔히 마시는 차와는 달리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열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풍토와 기후, 체질에 맞는 뜨겁고 맑은 맛을 선호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드러내는 차는 이러한 맛의 '결정체'죠."

하지만 시중에서 동춘차를 구할 수는 없다. 돈을 받고 차를 팔지 않기 때문이다. "차를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은 차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박 소장은 이어 무쇠솥에 덖고 비비는 작업을 비롯해 차가 만들어 지는 과정의 세심함과 정밀성에 대해 이야기했

초의선사 차맥잇기 20여년
음미하는 순간까지 모두 수행
"원형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

다. "결국 찻잎을 따는 순간부터 뜨거운 무쇠솥에 차를 덖는 과정과 뜨거운 물로 우린 차를 한모금 마시며 그것을 음미하는 순간까지 그 모두가 수행임을 20년 차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 소장이 오늘날의 우리 차문화를 우려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수행으로서의 차'가 아닌 상업화와 형식성에 물든 차만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차를 '문화'로 이해하고,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차가 가진 진정성은 행위가 아니라 사상이며, 예라는 것은 그 사상을 습득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차인(茶人)'이란 수행자이며, 이론가이고 실천가여야만 차가 갖는 수행자적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대의 자취와 노력, 인식이 녹아있는 결정체인 차문화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그는 최근 제자를 받아들였다. 차문화와 전통제다법을 전문적으로 연구·전승할 5명의 연구생들은 5년여 간의 교육과정 동안 한문의 원전인 <통감>과 <격몽요결>, 육우의 <다경> 강독, 제다 실습 등을 배우게 된다. 전통성과 함께 지킴이로서의 사상이 정립되어야 진정한 차맥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소장의 '교육철학'이기 때문이다.

"도제식 교육이 전통의 원형질을 지켜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차를 바르게 다룰 줄 아는 소양과 정신자세를 갖춘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다. 여수령 기자

육법등(六法燈)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충판 및 대리점 모집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내구성이 각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금오 불상 풍경의 특징

자체 합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반 영구적 입니다.
용조각의 최고 권위자가 조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풍경제원 ▶ 높이 : 22cm (용두 4cm)
▶ 넓이 : 14.7cm
▶ 무게 : 2.6kg
▶ 재질 : 동 98%, 실리콘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건

佛法의 오묘한 진리를 선율에…


로터스 불교현악4중주단 창단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구성된 클래식 불교 현악 4중주단 '로터스'가 창단된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유진섭, 체반타티아나, 홍지영씨.

12일 동국대 행사서 교가등 연주 첫선
9월중 창단음악회…교구본사 순회공연

미국, 독일, 러시아 등 해외 유학파 음악 재원들이 불음포교를 위해 '로터스 불교 현악4중주단(Lotus String Quartet)'을 창단한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연꽃 불교현악4중주단'이다. 이들의 창단 소식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주자 개개인의 화려한 이력들이다.

창단에 실질적 역할을 한 홍지영씨(33 · 첼로)는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 샘퍼드 심포니단원, 줄리아드스쿨 오케스트라 수석, 탱글우드 섬머뮤직페스티벌과 링컨센터 연주를 했으며, 현재는 수원대 강사로 근무한다. 유진섭씨(33 · 제2 바이올린)도 홍지영씨와 예원, 예고 동창생으로 서울대 음대를 거쳐 독일 국립만하임대 최고 연주자 과정,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 단원, 코리안심포니 부악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바로크 합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유일한 외국인인 체반타티아나(36 · 비올라)씨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음대를 나와 러시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국내에서 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씨(36 · 제1 바이올린)도 미국 줄리아드 음대와 예일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물론 단원들 모두가 불자는 아니다. 조계사와 성남 정토사를 다니는 골수신자(?) 홍지영씨 말고는 종교가 없거나 다르다. 특히 한국생활 5년째지만 아직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타티아나는 러시아정교 신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클래식 연주단체의 대다수가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점도 이들이 함께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다. 홍지영씨는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와 그 음악은 분명 우리정서가 가장 많이 녹아 있다"며 "세계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클래식을 통해 불교가 가진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담아낸다는 것은 연주가로서 큰 매력을 느끼는 일"이라고 창단 취지를 설명한다. 실제로 이번 창단을 결심하기 까지는 현재 홍보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심 돈독한 홍씨의 남편 임종욱씨(42 · 동국대 문학연구소 전임 연구원)가 큰 몫을 차지했다. 예비 출범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이는 12일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1000일' 행사에 초청된 것도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인연이 있는 임씨가 주선했다. 이날 연주에서도 클래식으로 편곡한 동국대 교가를 비롯해 불교에 큰 영향을 받은 작곡가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 찬불가 두 곡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9월중 예정된 창단 기념음악회는 불교 악단답게 조계사 역사문화관 개관식때 연주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섭외중이다. '로터스 불교현악4중주단'은 창단기념연주회를 연 후 가장 먼저 전국에 있는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를 돌며 순회 연주를 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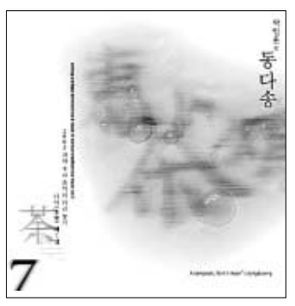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선율(禪律) 가득한 불교음악을 클래식화한 편곡으로 대중들에게 선사한다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클래식 음악 선진국에서 공부한 것들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세계인들에게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불교적 하모니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번 지켜봐 달라며 굳은 각오로 다시 연습 삼매경에 빠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옛선비 풍류·자연풍광 '물씬'

박일훈씨 창작국악 7집 '동다송' 출시


◇작곡가 박일훈.



◇다락 제7집 '동다송'.

작곡가 겸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 박일훈(57 · 사진)씨의 창작국악 음반 다락(茶樂) 제 7집 '동다송(東茶訟)'이 새로 나왔다.

'다우삼매(茶友三昧)' '차잎소리' 등 자연의 풍광이 물씬 풍기는 기악곡도 좋지만 고즈넉한 삼현육각 반주로 부르는 남창 · 여창 가곡이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를 되새기게 한다. 통광스님이 초의(草衣)선사 탑비명에서 지은 시에 가락을 얹은 '끽다향(喫茶香)'과 역시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 가사에 곡을 붙인 '동다송'등이 수록돼 있다. '차와 선은 하나(茶禪一如)'라는 초의선사의 사상을 실천하기라도 하듯 정악(正樂)의 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박일훈의 '동다송'은 차향처럼 은은하고 여유있게 다가온다. 창작 국악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서양음악 작곡법에서 탈피해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정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박일훈씨는 "차갑고 이지적이지만 따스함을 지니고 있는 대금과 단소, 흙의 모나지 않고 풍요로운 속성을 지닌 토부(土部)악기, 명주실 소리의 부드럽고 애잔한 선율이 흐르는 가야금 등이 잘 어우러져 있어 편안하게 차(茶)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킷 디자인은 안상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맡았다.

김주일기자

중국·동남아 불교문화재 전시

가네코 가즈시게씨 기증 특별展 열어


◇캄보디아의 석가여래좌상.

시원한 냉방장치가 돼 있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과 만나는 것도 흐뭇한 피서법이 아닐까.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일본의 저명 수장가 가네코 가즈시게씨의 기증 특별전은 가네코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수집한 불교 문화재와 칠기, 토기, 공예품 등의 이색 문화유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의 불상, 불화, 불경, 칠기, 토기, 목공예품 등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16세기 미얀마에서 제작된 대형 건칠 불두와 19세기 경상 등이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타이 반치앙 유적의 선사토기와 무령왕릉의 문지기 괴수를 떠올리게 하는 중국 후한시대의 진묘수가 주목되는 유물들이다. (02)398-5077.

김주일 기자

산사의 四季 등 화폭에
해인사 성타스님 초대전

전통과 현대의 기법을 아우르면서 산사의 사계를 화폭에 담아온 성타스님(부산 범어사 금강암)의 다섯 번째 초대작품전이 해인사 구광루 1층 특설미술관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장보살', '가야산 백운동의 여름', '초발심', '도반', '달마 8폭병풍', '달마서래의'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그동안 주로 그려왔던 실경산수화를 비롯해 수묵화, 문인화, 달마도 등 지난 전시회보다 종류가 많아졌다. 특히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6개월간 캔버스를 들고 약사암, 운문사, 용천사 등 전국 20여 산사로 만행을 했다. 그래서일까. 스님의 그림에는 사실적이고도 담백한 서정미가 느껴진다.(018)609-8011.


◇성타스님의 '백련의 향기'.

문화소식

승무·한량무·살풀이 공연

국립무용단의 대화가 있는 특별기획 공연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2003'이 23일까지 국립극장내 별오름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무용단 소속 단원들이 승무를 비롯해 한량무, 살풀이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9 · 10일 김진영-'살풀이에 숨어 있는 이미지 찾기' △13 · 14일 박재순-'승무의 장단속에 담겨있는 춤의 내면성' △16 · 17일 윤성철-'한량무' △19 · 20일 서정숙-'태평무' △22 · 23일 김윤규-'노장춤에 담겨진 해학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2271-1743.

한국의 禪문화展 열어

한국 불교의 고유문화 가운데 하나인 선(禪)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한국의 선 문화전'(www.SeonFair.org)이 19일부터 열흘간 대구 밀리오레 백화점 특별 전시장에서 열린다. 요가, 기체조, 단전호흡 등 명상 체험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다. (053)423-3211.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6:25 신행 365일
11:1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지금
15:05 음악의 마을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6일 13:20 시가 있는 찻집
7일 23:45 원각경 강의
8일 12:20 정률 스님의 찬불가 교실
9일 19:35 특별법회 자광 스님
10일 20:20 설수진의 러빙유
11일 14:25 특별법문 전강스님
12일 07:40 야! 부처님이다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세계음악여행(10일 23:05)- 남유럽의 항구에서 중앙아시아의 고원까지. 지구촌의 낯선 음악과 친구가 되는 시간 '세계음악여행' 1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 마음의 지도>가, 2부에는 행복한 음악 듣기의 동반자와 함께 멀고도 가까운 시간의 비밀과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과 음악>이 이어진다.

■불교텔레비전

▷시가 있는 찻집(6일 13:20)- 의상대사의 <법성게>에 이어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시인인 우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야트> 시집에 들어 있는 단막 시 두 편을 소개한다. 그는 근대 페르시아어로 모두 1천편에 달하는 4행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보시나 불사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寫經
金剛般若波羅蜜經
妙法蓮華經
地藏經

기도와 성취의 길 금강경 사경 불사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경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사경은 기도이며 수행이고 참회이며 복을 짓는 일이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서사(書寫)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예로부터 사경경전의 제일로 꼽아왔습니다.

절첩식 10×25cm
표지 : 고급 T/C 하드카바 금박
내지 : 매직칼라 연미색 120g

표지에 사찰 이름을 금박으로 넣어 드립니다.
주문후 7~10일 정도 걸리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 : 국민/ 665901-01-252268
우리/ 116-07-085001
우체국/ 104216-02-138824 예금주 조재호
문의전화 : (080)662-8522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께 권합니다.
사십 구재를 모시면서 사경을 하면 왕생의 요결이 됩니다. 사경한 것은 사십 구재날 고인을 위해 불살라 줍니다.
조상님이나 임신중절한 태아의 천도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천도시식하는 날 함께 불살라 영가에게 공양합니다.
자식의 입시나 남편의 승진을 위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감사공양을 올립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도 사경기도를 하거나 병고퇴치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한 것은 불전에 올립니다.
탑이나 법당을 세우거나 새롭게 부처님을 모실 때 사경불사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사경불사를 올려야 합니다.

TEL/(032)662-8522 FAX/(032)662-8524 양지바른곳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2화 선정에 든 부처님





이때 하늘의 범천왕(梵天, Brahma-deva)은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급히 내려와 부처님을 간곡히 설득하여 본다.

"붓다는 이미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넜으나 아직도 그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세간의 뜻이 있는 의사(義士)가 얻은 이익을 남에게 주어 고르게 하는 것처럼, 붓다도 이제 얻은 법으로 마땅히 세상의 범부들을 구해야 할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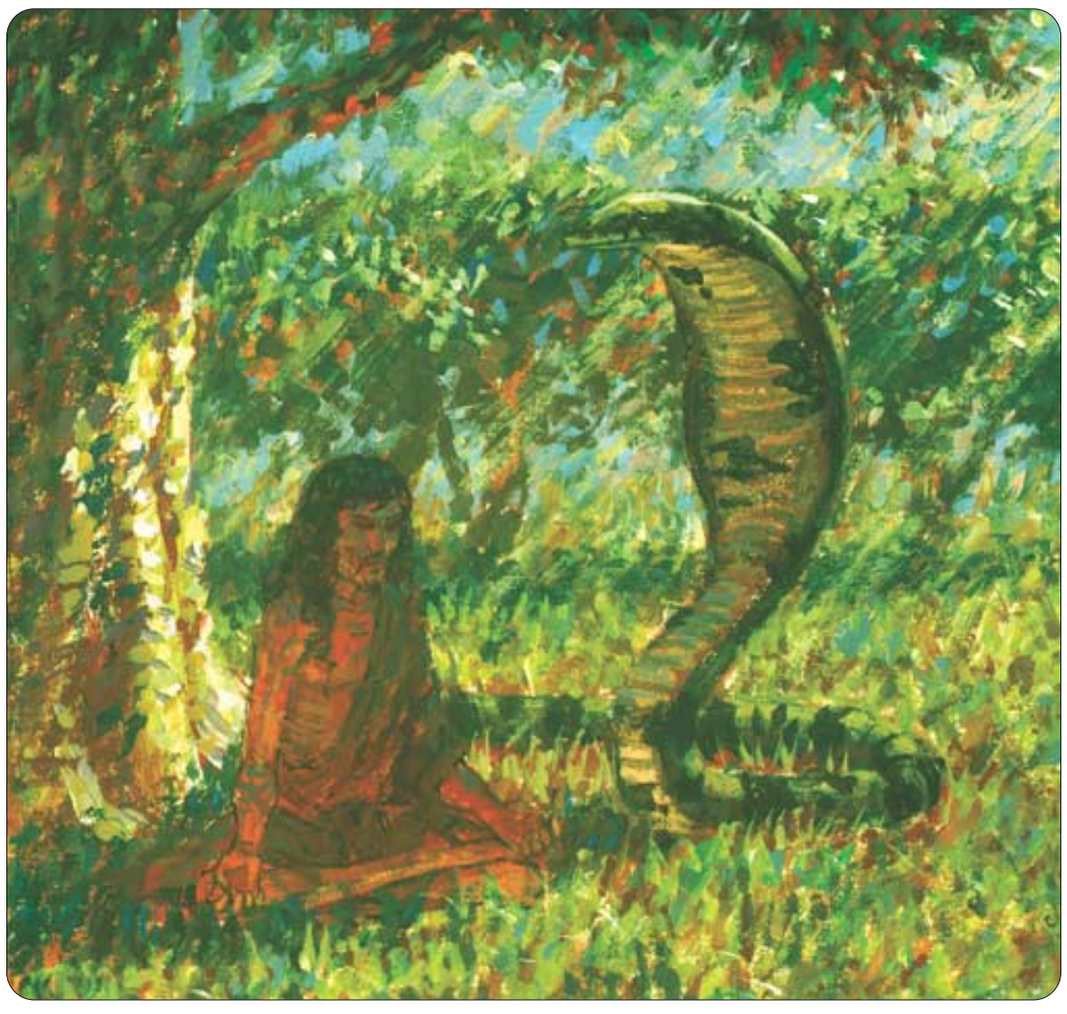
돌연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자 자신의 늪을 지키며 붓다의 행동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던 무칠린다 용왕은 가만히 뭍으로 올라 붓다의 곁으로 다가갔다. 붓다의 곁에 자리 잡은 용왕(龍王) 무칠린다(Mucalinda)는 그에게도 <화엄경(Avatamsaka - Sutra)>을 들려주기를 청하여 들으니 금강좌의 보리도량(菩提道揚, Bodhimamda)에서 처음 법을 말한 때로부터 중각강당(重閣講堂, Vajshali)까지 모두 일곱 장소를 옮기며 아홉 번에 걸쳐 설하였다 한다. 붓다로부터 시방세계(十方世界)의 모든 법이 인연(因緣)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는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화엄경>을 듣고 감동한 무칠린다는 그의 몸을 바쳐 붓다의 선정(禪定)을 깨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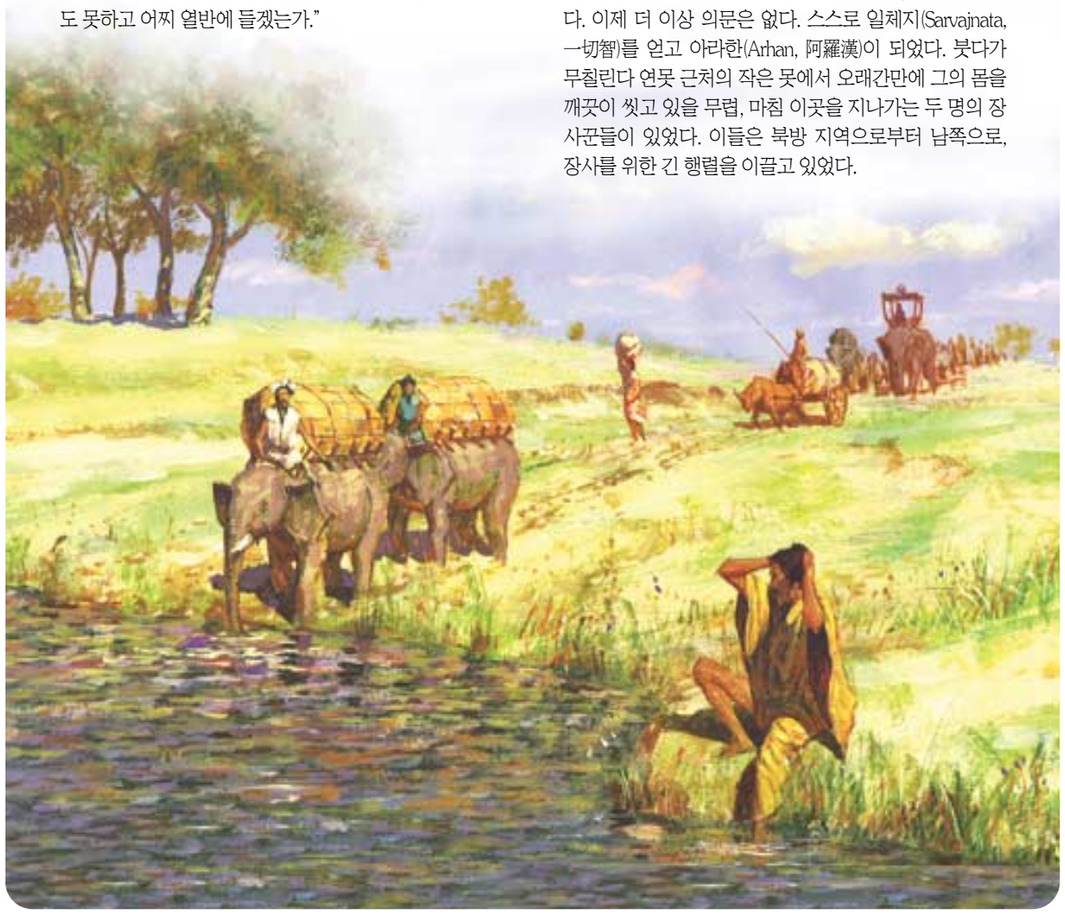
붓다가 해탈(Vimokds Vimukys, Mukti)을 얻은 후 다섯 번째로 자리를 옮기며 또 다시 칠일간의 선정에 접어든 무칠린다 호수에는 벌써 이레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또 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그러자 무칠린다 용왕은 모처럼 모시게 된 붓다가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 갈까 두려워 감히 붓다의 몸을 일곱 겹으로 칭칭 감고 머리로써 붓다의 머리 위를 덮어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며 붓다가 선정에 머물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 쏟고 있었다. 이때 무칠린다 용왕의 보호막을 뚫고 마왕 파피야스(Papiyas)가 슬며시 붓다의 마음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은근한 목소리로 붓다에게 말한다

"세존(世尊)이시여, 무량겁에 정진 고행 끝에 비로소 소원하시던 해탈을 얻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얻으셨으므로 열반(涅槃)에 들 때가 바로 이 때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곧 열반에 드시옵소서."

이 때 붓다는 결심을 굳히고 파피야스에게 대답한다.

"파피야스야, 나를 이 욕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 이제사 겨우 정각을 성취하였고 그 모든 것이 애초부터 중생을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었으니 아직 세상에 나의 법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어찌 열반에 들겠는가."





마왕 파피야스는 더 이상 붓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감지하고 울면서 제육천의 마성으로 돌아갔다.

마왕 파피야스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범천(梵天, Brahama) 사함파티(Sahampati)가 붓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가다국에서 밝혀진 법(法, Dharma)은 더럽혀진 자들에 의해 생각된 더러운 것이므로 이제 붓다의 깨끗한 법으로 불을 밝혀달라"고 주문한다.

마가다의 더러운 법이란 두말할 것 없이 바라문교(Brahmanism)라고 말하는 것으로 불교는 탄생부터 아리안계의 종교와 그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成道)한 후 일곱 장소에서 칠일씩 모두 사십구일간의 오랜 선정에 잠기며 여러 천신들과 대화하며 또 그 자신이 얻은 정각을 몇 번씩이고 다시 검증, 재검증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은 없다. 스스로 일체지(Sarvajnata, 一切智)를 얻고 아라한(Arhan, 阿羅漢)이 되었다. 붓다가 무칠린다 연못 근처의 작은 못에서 오래간만에 그의 몸을 깨끗이 씻고 있을 무렵,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두 명의 장사꾼들이 있었다. 이들은 북방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장사를 위한 긴 행렬을 이끌고 있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인연줄에 얽히고 설킨 것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스님: 법당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깥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많기에 추워서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추운 바깥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고통이지만 법당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듯싶으니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여튼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마음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반드시 그 땅을 딛고 일어나지 다른 곳을 딛고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또한 마음 속에서 모든 천차만별로 나오는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있어서, 오직 그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할 땐 그 마음 속에서 모든 이름도 나오고 그 마음 속에서 행도 나오고 그 마음 속에서 활용 자격도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쯤하고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먼저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의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 마음 공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좀 자세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매사 생활해 나가는 데에 내 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마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라는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실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과 몸이 어디 둘입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 낀 것과 둘이겠습니까? 장갑을 끼었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아미타불도 들어 있고 관세음보살도 들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아미타불의 행과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둘이 아니게 모두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일체가 다 가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연줄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가설 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다고들 말하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으면 좁은 것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타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아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바깥으로 찾으며 끄달린다면 그건 공부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도리는 참나를 발견해서 깨달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나투는 방법까지도 체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위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자1: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몸 떨어질 때의 의식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몸 떨어지고 없는 조상의 천도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식에 조상들께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스님: 사람이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보가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보가 생기는 법. 다시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소리죠. 이렇듯 법이 연결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몸 떨어지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의 차원대로 죽어서도 일차원이면 일차원대로 있고 이차원이면 이차원대로 있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로 한 물건이 나온다면 수만 가지로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침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부드럽게 하며,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의 보를 받을 것이고, 악하게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불이고 사기나 일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악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몸 떨어지면 그 상태로 남는 것이죠. 그대로 업보에 의해서 마음 컴퓨터에 스스로 입력이 되었다가 다음에 하나하나 솔솔 나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악업과 선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 차원대로 있기 때문에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몸 속에 있던 모습대로 다 나와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이 가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악업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강을 건너려 해도 자기 몸이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며, 체가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도 체가 있는 걸로 알고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허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대로 끄달리고 한 발짝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아니 설사 건너갔다 하더라도 타 죽을까봐 불바퀴를 못 건너가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이며,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장님을 이끌어 가는 도리가 있으므로 천도의가 생긴 것입니다.

▲질문자1: 저희가 공부해 가는 도중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갖가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정신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말하자면 공부가 익어서 그런 것인지 혹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자주 없는 경우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 가는 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스님: 그것은 아까도 요약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해도 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정신세계의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하여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빚어내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 속에 잔뜩 들어있는 악업 선업의 의식자체가 모습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이니 다시 거기에다 맡겨 놔야만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엎어지면 엎어질 때마다 땅을 딛고 일어나려고 해야 일어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러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대로 거기에 맡겨 놔야 하고, 또는 그러한 경계가 다가오면 오는 대로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거기에다 다시 되놔야 하는 것입니다. '만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란 얘기가 있듯이 일심에서 만 가지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심에다 다시 놓고 일심 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질문자1: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량적으로 그 말씀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참의 경우에서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고 통 밖은 무엇이며,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러지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스님: 통이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하며 나라는 것을 세우고, 그래서 아집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넓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벗어나야만이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갇혀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니 그럼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벗어나는 길인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속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이며 마음속에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참마음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그 때에 진짜 공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응 상조 하면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질문자1: 훌륭하신 말씀, 여러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자2: 부처와 보살은 마음을 낸 것과 안 낸 것과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는 그 마음의 무위법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스님: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따로 이름은 가졌어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듯이,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배우려 하지 마세요. 마음의 뜻을 알아야 그 도리를 알 것입니다.

▲질문자2: 49라는 숫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49일 동안을 선정에 계셨고, 또 보통 천도를 할 때 49일을 하시고, 과거에 여인네들이 아이를 낳으면 7일이 다 갈 때까지 출입을 못하게 했었는데, 유위법으로 볼 때는 49라는 숫자에 뭔가 뜻이 있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스님: 49라는 것은 49일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3×3은 9를 말하고 40은 동서남북 전체를 한 데 합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2: 그럼 7×7은 49가 아니고 40하고 9하고 합친 겁니까?

▲스님: 뜻으로 볼 때는 전체가 한 데 합쳐서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 해서 구를 일심으로 돌려 일심조차도 없을 때에 비로소 49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49일이라 하는 것은 천도식의 문이 열렸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2: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 제 막내아들이 방에만 들어앉아 한숨을 쉬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들으니 그 아이 할아버지 산소에 상석을 놓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스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스님: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저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고가 많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거를 못 보거든 현실을 보거라. 현실에 다가오는 걸 본다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현실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본다면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요, 누가 빼앗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죠. 모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녹이려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한마음은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한 데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익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말과 올바른 행을 하며 남에게도 착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물질적인 보시는 못하나마 마음으로라도 보시를 해야죠.

무엇보다도 마음 보시가 첫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며 밖으로만 끄달린다면 그 업보는 세세생생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꼭 한마음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해 주시오'라고 하지는 마세요. '해 주시오' 한다면 둘이 되니까요.

장갑을 낀 손이나 장갑이 똑같이, 손이 움직여야 장갑이 움직이듯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과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업보를 녹이며 병고액난을 소멸케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맡겨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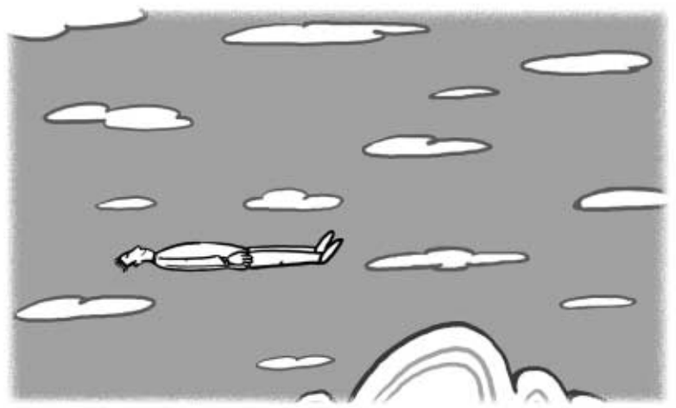
▲질문자4: 여기 오는 신도들 중에 현대의학으로도 나을 수 없는 병들을 한마음 도리로 낫는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이 낫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가면 기독교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으며 그 기도원의 지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현대의학으로는 낫게 할 수 없는 암이나 백혈병, 또는 다른 기타의 병들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찾는 주인공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기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그렇게만 한다면 밖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낫게 해달라고 항상 빌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 세세생생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말을 할 때 벌써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전자와 전자가 한 데 합쳐지는 순간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지는 순간에 어느 한쪽에서 네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가 없단 얘기죠. 알아듣겠어요?

불은 양쪽 전자와 전자가 합쳐져야 밝게 들어오는데 어느 쪽에서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말을 하는 순간에 마음과 마음은 전기와 같이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낫게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닌 데서

☞30면으로 계속

우리가 길을 가다 엎어지면 반드시 그 땅을 딛고 일어나듯


그림 · 최주현

거기서 나온 것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행해야

☞29면에서 계속

불이 번쩍 켜진 건데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낫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 열매가 열리고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낫게 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악업의 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선업의 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니 무너뜨리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자비인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어서 사랑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가 붙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걸 비유하면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도 (법상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자5: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마음법을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 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데 다시 동생이 사용하면 얼마 안가서 또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아라. 그러면 네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작업을 한 것이다. 항상 기계에게 고마움을 갖고 작업을 해라.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계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항상 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계가 했다고 생각해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와 나와도 똑같이 한마음으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까?

▲스님: 그렇죠. 어느 것 하나도 이심전심으로 말 안 듣고 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있다 해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땐 부처님으로 모두 한 데 합쳐지고 때에 따라선 나한테로 합쳐집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아들한테 오면 아들로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도리는 무슨 까닭인고?' 하고 물었다고 하듯이, 내 마음을 전부 기계로 합쳐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이 아니라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리 가도 하나요, 저리 가도 하나이니까요.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이리 가도 나요, 저리 가도 나이니 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질문자5: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는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치료할 때 제가 한다는 생각 없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그 아픔을 느낍니다. 또 손님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손님들의 근심 걱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와 똑같은 원리에 속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픈 것을 나한테 넣되 넣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것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하고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질문자5: 이건 제 가정의 문제입니다만, 어머니와 저는 항상 마찰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에게 제 자신은 할 만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정신 상태나 행동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스님: 그건 전자와 전자가 똑같듯이 어머니의 마음과 처사님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처사님 마음에 어머니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도 스스로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원만해질 겁니다.

▲질문자5: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앞에서 질문드렸던 법우가 기독교와의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 보면 세상에서 금년 10월 예수가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 영혼들을 끌어올린다는 식의 휴거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짓기에 달린 거예요. 종말이 따로 없어요. 마음의 심판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착실하고 진실하게 쓴다면 모든 것이 원만히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말이 올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로 산 사람들이 마음을 잘 씀으로 오고 가는 것이지 종말이 온다 안 온다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됐소?

▲질문자6: 아미타불!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일체 계급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삼 아승지겁을 닦지도 않고 단 한 번 뛰어 여래의 지혜에 오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이것이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서 스님께 여쭈려고 멀리 산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스님: 바다에 온갖 물이 다 모였어도 물 자체가 짖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온갖 물이 다 모여서 흘러 돌아도 그 물 자체는 짖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까닭을 아시오? 읊어야 될 일이지만 말로 그냥 했어요. 말을 해도 말함이 없어야, 모두들 죽비를 치고, 주먹을 쥐고 법상을 치고 하지만 쳐도 침이 아니요, 치지 않아도 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이 짖지 않는 까닭이오.

▲질문자6: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짐작으로는 '그럴 것이다' 하고 그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확신은 있어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한점 먼지도 없는 그러한 허공과 같은 탁 트인 것이 항상 막혀왔습니다.

▲스님: 대나무 방귀씨를 참구한다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방귀씨를 찾았다 해도 대나무 방귀털을 먹여서 길러야 할 테니 방귀씨를 찾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죠.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일체 모든 것을 거기에 놓는다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나 선지식들이 이끌어 주고 깨우쳐 준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또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이 서로 상봉을 해야만 족하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 조상부터 발견해야 남의 조상도 내 조상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고 내 몸 속의 악업 선업의 중생들에게 다 항복받을 것이며, 모두가 보살로 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중생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알며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고 바른 길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



그림 · 최주현

내 마음 아닌 내 마음 알아야 터득되고 정신계 간파할 수 있어

업보도 한마음속에서 나온것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갖고 참구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비, 이유 붙이면 자비 아니죠"

▲스님: 그럼 뭣 때문에 왔소? 여기 온 까닭은 뭐요?

▲질문자7: 경을 보면 굳이 개안종사를 찾아가서 결택을 하라고 한 그런 말에도 제가, 천진의 자리에 어디 결택과 점검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인연이 있으면 흘러가는 바람도 열기가 들으면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열기가 없으면 바람도 자는데 한번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이렇게 나온 것도 혹 거기 대답이 될까 싶어서요. 대답이 따로 없는 것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님: 물론 진실하게 내면세계에서 함이 없이 그 말을 했다면 좋겠으나 그 대답은 말을 했으면 벌써 한데 떨어지는 일인데….

▲질문자7: 그런 것은 압니다.

▲스님: 알긴 뭘 알아요? 안다고 하면 벌써 그릇된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할 줄 알면 됐어요.

▲질문자7: 제가 말대답을 한 게 됐습니다.

▲스님: 말만 그렇게 해놓고 행이나 말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무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질문자8: 옛 선객들이 선지식을 친견하실 때 선상을 돈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 토지 값을 내지 않는 도리이지요.

▲질문자8: 부처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스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불자가 원한다고 표현하면 뭘지 모르겠으나 성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불은 인과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인과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스님: 인과에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8: 그렇다면 어찌 불법에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스님: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요? 인과도 불을 자리가 없다고 했거늘 어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거기 붙을 수 있겠어요?

▲질문자8: 병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 입장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끔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항상 품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집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매를 때리실 때에도 결국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매가 매가 아님을 느낍니다. 물론 이건 제 입장이지만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병이 병입니까?

▲스님: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고 했거늘 자기도 없는데 병이 어디 있겠어요.

▲질문자8: 물론 여기서는 스님 말씀을 듣는 게 옳지만 짤막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말이나 경전은 중생들을 위한 말이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스님: 지금 붙을 자리가 없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까? 한마음은 포괄적인 한마음이지 개별적인 한마음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어떠한 것이 오든지 닥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도록 해요.

▲질문자9: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제 심정이 아주 이상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이 절실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찌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본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공허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어요. 그런 까닭을 알면 허망치도 않고 또는 즐겁지도 않으며 그대로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허망함이나 공허함이 바로 법우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네 속이 있고, 네 속이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땅에 엎드러지면 그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그 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해봐요.

▲질문자10: 스님,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실은 저희 애가 아픈데 처음에는 딴 아이들보다 걸음이 늦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6학년인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온 몸에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불치병이라고 진단이 나와 있고 해서 다른 데 믿을 곳이 없어 스님께 왔습니다.

▲스님: 그것을 이 마음 도리로써, 그 업보를 녹이려면 모든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참구하세요. 애한테도 그렇게 일러주시구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꾸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잠시 공부 잊고

'와와' 소리 질러봐!

12개팀 참가, 리허설부터 후끈
진명여고 '진품명품' 팀 대상

7월 26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전용극장. 노란색으로 물을 드린 머리에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린 무대복장을 입은 몇몇의 사람들이 기타, 키보드 등 악기 연습에 한창이다. 한켠에서는 친구들의 연습 모습을 디지털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하다. 이들은 모두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2003년 wa wa 청소년 가요제'에 출전한 12개팀의 참가자들.

오후 5시에 열리는 가요제의 무대 리허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리허설이 있다는 장내 안내방송을 듣고 있는 한강전자공예고 'Questions' 팀. 기타 박건우(3년), 드럼 송화선(2년), 베이스 김창언(3년)군이 각자의 악기의 소리를 점검한다. 보컬 박강준(3년)군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는 듯 심호흡을 한다. 이번 가요제를 위해 방학동안 매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맹연습을 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정각 5시 신목고 '천하무적' 팀의 연주를 시작으로 된 가요제. 오지오스본의 'I don't want to change the world'가 연주되자 극장 안은 천둥같은 함성으로 가득찼다. 비록 학교공부 관계로 연습을 많이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가요제에 참가한 12개 팀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진명여고 밴드동아리 '진품명품'이 영예의 대상을, 한강전자공예고의 'Questions'이 은상을, 금옥여고 윤미영(2년)양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딸아이의 공연을 보러 가족들과 함께 가요제를 찾은 정민호(목동 거주·49)씨는 "평소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가 안쓰럽기 까지 했는데 방학을 맞아 학교공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열심히 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궁금했다"며 "오늘따라 딸아이가 무척 자랑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Interview

청소년 '끼' 발산 공간으로 활용

목동청소년수련관장 **경륜 스님**



"청소년가요제는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열린 목동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의에서 제 6대 관장으로 재 선임된 경륜스님(사진)은 "특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연임소감을 밝혔다. 보다 원활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스님은 수련관 2층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님은 또 수련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탐방 :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작지만 당당함으로 뭉쳤어요"



◇'이불회로 오세요!' 이화여대 불교학생회원들이 7월 24일 학생회관 5층 동아리 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원, 한재련, 임지현, 이보라미(회장), 김선미, 강신재, 최경화, 이은정 학생. 사진=박재완 기자

글모음 '야단법석' 이불회의 역사
동문의 밤 통해 선·후배 관계 돈독히

개신교계 대학 안에 '작은 불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대 불교학생회를 찾은 것은 7월 24일. 5평 남짓 되는 학생회실은 법당이기보다는 '동네 사랑방'에 가깝다.

"학교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예요. 기자님은 이런 행복함을 모르실거예요. 먼발치에서 신발만 봐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우리들만의 경지. 믿기세요?"

월드컵 학번 선미(행정학과)가 동의를 구한다. 나머지들도 맞장구를 친다. 영락없는 여대생들이다. 서로의 신발까지 꿰뚫고 있는 이불인(梨佛人)들. 이처럼 두터운 법우애는 어디서 나왔을까? 지난 68년 창립이후 내려온 '야단법석'이란 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수만 50여권이 넘는다.

"야단법석은 이불회의 역사입니다. 선배들의 이야기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센티멘털한 단상, 선승들의 법문, 글씨체, 심지어 쉼표에서도 이불인임을 느낍니다." '빵빵(2000 학번)' 지현이(정외과)가 이렇게 말한다.

이불회의 남다른 점은 매년 11월에 여는 '창립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부 나눠 열리는 창립제에서 압권은 전공과 불교를 접목해 마련되는 세미나. 그간 다룬 주제만 '불교의 여성관', '티베트 불교' 등 다양하다. 자랑거리는 또 있다. 올 3월에 동문초청의 밤을 열었다. 이름 하여 'home coming day'. 이불인들이 선·후배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자리였다.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지도법사 서울 신림동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 스님에게서 법문을 듣는다.

이보라미(02학번·국문과) 제36대 이불회장은 "언제나 당당한 이불인이고자 합니다. 불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 불자임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지난 68년도에 출범한 이대 불교학생회는 35년간 배출한 동문만 1천5백여 명에 달한다. 또 지난 70년에 이불총동문회가 결성돼, 불교학생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동문들 중 학계·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동문들도 많다.

배출 동문, 1천5백여명
70년 이불 총동문회 결성

이불회 창립을 주도한 초대회장 이현정 동문(67학번·가정관리학과·사진 왼쪽)을 비롯해 백경임(69학번·가정관리학과·사진 오른쪽) 동문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로, 안승신(71학번·영어교육학과) 동문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동문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이인혜(80학번·의류직물학과) 동문은 동국역경원에서 10년 넘게 역경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민정희(86학번·물리학과) 동문은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사진) 100구좌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 10구좌 ▲장범중 홍무흠, 홍종표 5구좌 ▲이자옥, 유정애, 이윤정, 송충근 3구좌 ▲이수경, 조영숙 1구좌.

7월 30일 현재 총 337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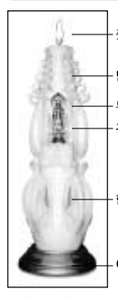
※기사넘쳐 '2003 물의 해 캠페인'과 '명작비디오 파일' 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 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외 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부처님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등(초)로써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늘 합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들어 주십시오.
탑쌓는 정성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당 및 가정에 백일기도 일일기도 1인 인등으로 최고 전기료 저렴 한달기준 500원

●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장미, 종이배, 카라 등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가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중국 티베트의 신산(神山)
수미산(mt.Kailash:6,714m)
네팔 룸비니 순례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 : 중국 티베트(수미산,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롱부크,옛 구개왕국), 네팔 포카라,룸비니.
2. 일 시 : 2003년 8월25일 부터 ~ 9월18일 까지
3. 대상자 : 사부대중 (신체건강하며 순례에 이상이 없는자)
4. 동행자 : 약간명
5. 준비물 : 개인장비(세부적인것은 모임시 발표)
6. 문의처 : (051)441-2811, 442-1814
7. 주 관 : 부산등산연구소,부산등산교실, 한국불교산악회,(주)제일항공여행사
8. 후 원 : 서장(티베트)중국여행사,네팔아시안트레킹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인도 그림기행

12 그림·글 이호신

숭고한 믿음, 초절한 기원의 '끌' 흔적

현실과 문화유산 사이에서

(뉴델리 국립박물관 안팎)



◇제발 도와주세요(64×95cm).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하늘. 그 하늘 아래 대지위의 풍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지러운 파장으로 번져간다. 고대와 현대의 공존, 유산과 현실의 간극이 극명한 실체감으로 나그네에게도 엄습한다.

고대왕조의 흥망, 13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한 이슬람정권, 그리고 무굴제국의 성쇄, 20세기 영국에 의한 식민지 본부의 도시.

그 흔적은 곳곳에서 병풍처럼 늘어선 중세의 성탑 형상에서 살펴지고 코노트 플레이스(connaught place), 즉 영국인에 의해 설계된 도시계획은 식민지 델리의 역사를 또 다시 바꾸어 놓았다. 방사선 형태의 도로와 주요 건물의 집산은 지도만 보아도 둥근 광장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내뿜어져 나오는 만다라식 공간구조로 펼쳐져 있다.

그 지도의 중심 광장에서 차는 남쪽으로 직선으로 내달아 국립박물관 인근에 멈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앞으로 몰려드는 걸인들.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고 "기부미 머니, 기부미 머니"를 외쳐대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예전 미군들에게 "헬로우 헬로우" 해야했던 사정이 차마 저러했을까.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경험자들의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 가리지 못하는 동행들은 벌써 루삐, 볼펜 등이 손에 들려있다. 간난아이를 꿰찬 젊은 여자, 악기를 앞뒤로 들러멘 소년의 절규어린 외침. 땟국물 흐르는 맨발의 소녀가 깡통을 찬 어린 동생을 껴안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라니.

실로 난감한 현실을 겨우겨우 뚫고 박물관에 이르니 일행 중 자랑스런 효도관광(?)의 노인들 중에는 난생처음 박물관 문턱을 밟아보는 사연인즉, 조국의 국립박물관 경험없이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먼저 접하는 경우이다. 다 이것이 시절 좋은 지구촌 시대이려니. 하지만 자꾸만 헛갈리는 여행길에선 그저 '인연' 하나로 세상일을 긍정, 위안 삼는 얼굴빛이 역력하다.

언제나 찰나와 영겁의 흙먼지를 덮고 있는 선사 시대의 유적들. 기원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인더스문명의 자취. 간다라 불상과 힌두 사원의 조각과 신상등이 숨막히게 즐비하니 화첩을 든 손은 땀에 젖어 자꾸 미끄러만 진다.

특히 초기 불교 발상지답게 불교조각의 풍부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붓다의 전생과 탄생설화. 그리고 불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불두(佛頭). 간다라 출토의 불전도 조각의 뛰어난 구성과 솜씨는 실로 호흡을 멈추게 한다.

델리의 만다라식 구조는 아픈 역사 대변
조각의 형식·내용, 불상의 변천사 한눈에

저 무명으로 남은 장인들의 숨결과 영혼이 인류의 유산으로 남겨진 까닭은 무엇일까. 숭고한 믿음. 경외를 넘어선 초절한 기원은 결코 강제가 아닌 집합의 정신과 결속의 저력이 하나하나 끌을 댄 흔적으로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꽃이 피고 지듯 씨앗으로 남긴 인류의 서원, 그 향기가 시간을 거스르는 길이요, 삶의 추구와 대 긍정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서 빛난다.

특별히 여러 신상(神像)의 나라답게 빚어진 에로틱한 신상들의 자태는 눈요기를 더해주는데 12세기 남부 인도 출토의 '춤추는 시바신상'은 더욱 이채롭다. 활활 타오르는 둥근 불꽃 원속에서 4개의 팔을 흔드는 가녀린 손길은 나래치며 가이없고, 요염한 자태에 한발을 든 동세는 청동조각에 생명을 투사한 솜씨로 빛난다. 그 부드러운 발길로 지긋이 악귀를 누르고 선 모습은 나비 날개처럼 뻗힌 머리 장식만큼이나 우화적이며 장식적이다. 엄숙한 신상이라기보다는 장식과 공예 요소가 짙은 작품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사실 신(神)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 춤추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빛과 꽃향기를 조건없이 전해 주듯이. 한편 벽화의 이미지를 축소한 세밀회화의 색채와 치밀함은 누구든 잃어버린 시력의 회복을 염원하게 한다.

이렇게 손살같이 박물관 기행이 끝나자 모두들 먹먹한 표정,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꿈벅이니 다들 거대한 '유산 항아리의 술'에 취한 낮빛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중식을 위해 모여서 차를 타려는데 아까 보았던 걸인들 모두가 두서너 시간을 꼼짝없이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며 출입문에 서성거리며 서 있지 않는가.

한 푼의 동냥을 위해 끝끝내 기다려야 하는 저 존재의 처연함. 달라드는 기세는 더욱 필사적인데 한 소녀의 눈빛은 애원을 넘어 마치 구원을 청하는 애절함으로 사람의 심연을 흔든다.



◇춤추는 시바신(32×29cm).

도리 없이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자 소녀는 미소 띠며 성호를 긋고 마침내는 합장을 하더니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마저 흔들어주는 게 아닌가.

결국 나그네의 마음못에는 방금 전 과거의 유산 그림자가 어리고 현실의 감회가 파문을 그리며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무엇이 '가치'이고 '진실'한 삶인가를 따지기엔 아직은 너무 모자라고 또 여행중이지 않은가. 결국 가슴에 함께 새기고 묻어야하는 명백한 존재의 흔적들. 저 팽팽한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배우고 현실속의 나를 깨닫는 오늘의 풍경들이 방금 다녀갔다.

절도(絶島)의 삶을 사는 박희진 시인은 '회복기의 환자처럼 인생을 살 일이다'고 하였거니와 이 같은 겸허 속에서도 또 오늘에 마주한 '현실과 문화유산' 그 사이에 나는 존재한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벽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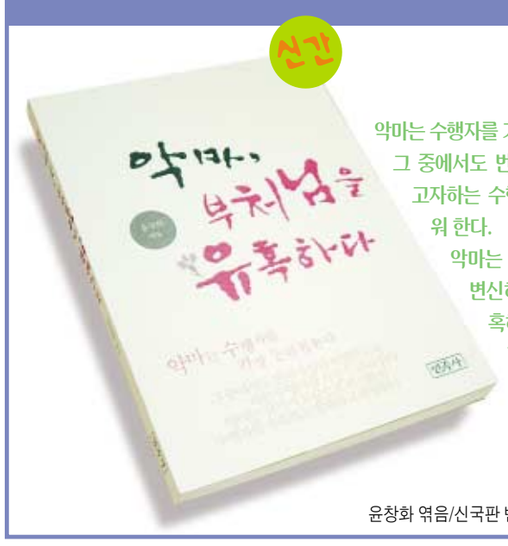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악마는
수행자를 끝없이 유혹한다.

"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오?"
"어진 이여, 번뇌를 멀리 여읠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이여, 이 세상에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떠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사랑이나 나누면서 즐겁게 삽시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미 수없는 생애 동안 숱한 자식을 잃어왔고
또 숱한 남자들과 헤어진 적이 있으므로 이젠 남자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노라.
나는 모든 애욕의 고통을 떠났고 일체의 무지를 버렸노라. 번뇌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번뇌의 불꽃을 잠재웠노라."



악마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 한다.
악마는 갖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위협한다.

윤창화 엮음/신국판 변형, 223쪽/값7,000원

근본불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서.

근본불교 불교입문총서 1



진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세존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가르쳤다.
후대의 불교는 세존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세존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의 근본이므로 '근본불교'라고 해야한다. '원시불교'라는 명칭은 세존의 가르침을 소박하고 유치한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중표 지음/신국판 294쪽/값8,500원

대승불교와 관련하여 소승불교비판으로부터 전개되는 불교입문서의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비달마불교 불교입문총서 3



불타의 팔만사천 법문은 말 그대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교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논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권오민 지음/신국판 367쪽/값9,0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방장,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구절,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엮음/ 4×6판 양장/180쪽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율주 종진 큰스님 감수/박연진 지음/ 4×6판 양장/216쪽 /값 6,000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전화 : (02) 732-2403~4 / 팩스 : (02) 739-7565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